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엔트로피를 응용한 바디아트
작품 제작 연구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김 수 빈

엔트로피를 응용한 바디아트
작품 제작 연구

김경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김수빈

인 준 서

김수빈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4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엔트로피(Entropy)는 무질서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엔트로피의 양은 미시적인 열운동에서부터 인간의 환경, 지구의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질-에너지 현상에서 비가역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열역학 이론의 특징을 가진다.

오늘날 이러한 특징을 가진 엔트로피는 사회, 문화, 예술 등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확대되면서 그 파장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내·외면에 혼란(Chaos)과 무질서 그리고 질서를 동반하고 있는 회화, 조각, 건축 등의 현대예술 경향이 질서와 무질서의 상호관계를 통해 다각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해 엔트로피를 매개체로 활용하였으며, 이렇게 도출한 엔트로피 특성을 예술적, 정보적, 비평적 측면별로 분류하여 바디아트 작품에 적용 제작하였다.

엔트로피 현상을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점에서 분류된 3가지 측면에 적용하여 회화, 조각, 건축의 현대예술 사례에서 도출한 엔트로피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화, 조각, 건축의 현대예술 사례에서 나타난 형태와 와해의 다양화를 통해 예술적 측면에서의 생산자 관점에서 형태에 의한 다양성과 와해에 의한 다양성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예술적 측면의 다의(多義)적 특성은 작품을 해석하는 수용자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엔트로피 특성으로서 자율성에 의한 다의성과 상대성에 의한 다의성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생산자에 의해서 표현되는 카오스(Chaos)적인 복잡성을 노이즈(Noise)에 의한 복잡성과 능동성에 의한 복잡성으로 분류하여 엔트로피 특성이 정보적 측면의 생산자 관점에서 가지는 특성을 도출하였다.

넷째, 정보적 측면에서 수용자가 받아들이는 생산자나 작품의 의도는 잠재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유용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잠재적 정보에 의한 유용성과 효율성에 의한 유용성으로 분류하였다.

다섯째, 비정형은 비평적 측면으로서 생산자에 의해 행해진 작품의 형태 및 의미체계의 변화를 통해 수용자에게 새로운 시·지각 경험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비정형의 방식으로는 이질성에 의한 비정형과 표현에 의한 비정형으로 분류하였다.

여섯째, 수용자는 엔트로피의 고-저의 흐름에서 요소와 전체의 상관관계를 통해 구조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이 요구되기 때문에 구조에 의한 질서와 무질서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무질서 극대화 방법을 통해 역설적으로 질서와 균형의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설에 의한 질서와 무질서로 분류하였다.

현대예술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생산자 측면과 수용자 측면에서 엔트로피의 관점을 분류하여 현대예술의 한 부분인 바디아트를 바라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바디아트 또한 쌍방향적 소통을 바탕으로 전통의 신체 장식에서부터 현재의 진보된 형태로까지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정성을 보이며 발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와 수용자는 고-엔트로피 현상을 보게 된다.

하지만 이처럼 바디아트의 화려하고 복잡화 되어가는 외적 모습의 이면에는 엔트로피 관점에서 내적질서도 존재할 수 있으며, 현대예술의 다양한 분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환경과 시대, 관점 등에 따라 생산과 수용에서의 엔트로피 고-저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생산자와 수용자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각각 바라보며 관점과 경향을 재인식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토대로 바디아트에 대한 재인식은 물론 엔트로피의 특성을 활용한 현대예술의 다양한 분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II. 이론적 배경	5
1. 엔트로피	5
1) 엔트로피의 개념	5
2) 엔트로피의 선행연구	8
3) 엔트로피의 관점	12
4) 엔트로피의 측면	16
2. 바디아트	23
1) 바디아트의 개념	23
2) 바디아트의 표현유형	25
3) 바디아트의 표현기법	30
III. 현대예술에 나타난 엔트로피 특성	38
1. 예술적 측면	39
1) 다양성	39

2) 다의성	43
2. 정보적 측면	49
1) 복잡성	49
2) 유용성	54
3. 비평적 측면	59
1) 비정형	59
2) 질서와 무질서	64
 IV. 미디어아트 작품제작	 70
1. 제작 의도	70
2. 작품제작	73
 V. 결론	 121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엔트로피 선행연구	11
<표 2> 엔트로피의 측면의 특성 도출	22
<표 3> 바디아트의 표현 기법	37
<표 4> 엔트로피의 예술적 측면에 표현된 현대예술 사례	48
<표 5> 엔트로피의 정보적 측면에 표현된 현대예술 사례	58
<표 6> 엔트로피의 비평적 측면에 표현된 현대예술 사례	69
<표 7> 엔트로피 특성을 응용한 바디아트 디자인 계획	72
<표 8> 작품 I의 디자인 이미지와 디자인 계획서	75
<표 9> 작품 II의 디자인 이미지와 디자인 계획서	79
<표 10> 작품 III의 디자인 이미지와 디자인 계획서	83
<표 11> 작품 IV의 디자인 이미지와 디자인 계획서	87
<표 12> 작품 V의 디자인 이미지와 디자인 계획서	91
<표 13> 작품 VI의 디자인 이미지와 디자인 계획서	95
<표 14> 작품 VII의 디자인 이미지와 디자인 계획서	99
<표 15> 작품 VIII의 디자인 이미지와 디자인 계획서	103
<표 16> 작품 IX의 디자인 이미지와 디자인 계획서	107
<표 17> 작품 X의 디자인 이미지와 디자인 계획서	111
<표 18> 작품 XI의 디자인 이미지와 디자인 계획서	115
<표 19> 작품 XII의 디자인 이미지와 디자인 계획서	119

그림 목 차

<그림 1> 페이스페인팅 분장	29
<그림 2> 이사배 「말라피센트 커버메이크업」	29
<그림 3> 판타지 메이크업1	29
<그림 4> 판타지 메이크업2	29
<그림 5> Stace, 「Jell-O Editorial」	29
<그림 6> KOMMUNIKATION, 「PERFORMANCE」	29
<그림 7> Audtte sophia , 「Airbrush Body Art」	35
<그림 8> John Poppleton, 「Autumn Gardens」	35
<그림 9> Howard Schatz, 「Beauty Study #1393」	35
<그림 10> Vanessa Davis, 「The Gold Mermaid」	35
<그림 11> Diana Cermakova, 「Metamorphose serise」	36
<그림 12> TeamLab , 「暗闇の中で花が咲き亂れるデジタルアー」	36
<그림 13> 김준, 「Party-louis vuitton」	36
<그림 14> Howard Schatz, 「Body Knots #272」	36
<그림 15> Marcel Duchamp, 「un descendant un escalier n°2」	42
<그림 16> Unknown, 「Moulage du Torse du Belvedere」	42
<그림 17> Charles Moor, 「piazza d'italia」	42
<그림 18> Pablo Picasso, 「Weeping Woman」	42
<그림 19> Robert Smithson, 「Four-sided Vortex」	42
<그림 20> Robert Smithson, 「Spiral Jetty」	42
<그림 21> Robert Rauschenberg, 「Erased de Kooning Drawing」	47
<그림 22> Antony Gormley, 「Asian Field」	47

<그림 23> Bernard Tschumi, 「La Parc de la Villette」	47
<그림 24> Kazimir Malevich, 「Black Square」	47
<그림 25> Robert Morris, 「Untitled: Three L-Beams」	47
<그림 26> Le Corbusier, 「Unité d'Habitation」	47
<그림 27> Andy Warhol, 「Marilyn Diptych」	53
<그림 28> Kusama Yayoi, 「Dots Obsession - Infinty Mirrored Room」	53
<그림 29> Jean Nouvel, 「Fondation Cartier pour l'art contemporain」	53
<그림 30> Chuck Close, 「Self-Portrait」	53
<그림 31> Hans Arp, 「Constellation with Five White Forms and Two Black, Variation III」	53
<그림 32> Robert Morris, 「Mirror cubes」	53
<그림 33> Sophie Taeuber-Arp, 「Grasse - Linien gometrisch und gewellt」	57
<그림 34> Antony Gormley, 「Edge」	57
<그림 35> Nancy Holt, 「Sun Tunnels」	57
<그림 36> Hans Arp, 「Torn-and-pasted paper and colored paper on colored paper」	57
<그림 37> Thomas Hirschhorn, 「Too Too Much Much」	57
<그림 38> Anish Kapoor, 「Leviathan」	57
<그림 39> Andy Warhol, 「Oxidation Painting」	63
<그림 40> Marc Quinn, 「Alison Lopper pergnant」	63
<그림 41> Nancy Holt, 「Hydra's Head」	63
<그림 42> Edward Ruscha, 「eyes」	63

<그림 43> Jake and Dinos Chapman, 「ZYGOTIC ACCELERATION, BIOGENETIC DE-SUBLIMATED LIBIDINAL MODE」	63
<그림 44> Frank Garry, 「The Solomon R. Guggenheim Museum」	63
<그림 45> Piet Mondrian, 「Composition With Red, Blue and Yellow」	68
<그림 46> Claes Oldenbur, 「Mistos」	68
<그림 47> Zaha Hadid, 「DDP」	68
<그림 48> Jackson Pollock, 「no.13」	68
<그림 49> Robert Smithson, 「Asphalt Rundown」	68
<그림 50> Anish Kapoor, 「Marsyas」	68
<그림 51> 작품 I	76
<그림 52> 작품 II	80
<그림 53> 작품 III	84
<그림 54> 작품 IV	88
<그림 55> 작품 V	92
<그림 56> 작품 VI	96
<그림 57> 작품 VII	100
<그림 58> 작품 VIII	104
<그림 59> 작품 IX	108
<그림 60> 작품 X	112
<그림 61> 작품 XI	116
<그림 62> 작품 XII	120

I.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인간 세계 그리고 자연과 모든 만물은 질서를 얻으려는 본능과 열역학 제 2 법칙에서 표현된 엔트로피 원리 사이에서 상충을 경험한다. 우주적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연구되어오고 이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왔다.

그러나 현대예술에서는 구조의 극단적 단순화와 정반대인 혼돈과 무질서의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화, 비율 등의 확립이 전통이었던 예술로부터 현대예술에서 나타나는 질서 아니면 혼란뿐인 엔트로피의 양면성을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점에서 특성을 도출하여 현대인들이 무방비 상태로 경험하는 에너지 소모에 의한 피로감을 설명하고 진정시키는 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문화와 모든 물질과 에너지 현상에 엔트로피 개념이 적용되면서 수용자의 관점에서 하나의 예술 현상을 표현해내고 읽어낼 수 있는 방식은 거의 무한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떠한 해석도 고정된 의미가 없다는 논의도 인정되고 있다.¹⁾ 즉, 현대예술에서 작품의 생산과 수용은 무한한 창조성과 상상력이 연결되어 경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현대예술의 분야 중 하나인 바디아트가 가지는 특징과 경향에도 엔트로피 현상을 적용하여 특성을 분류하고 관찰할 수 있다. 개념미술의 맥락에서 몸을 도구화하였던 70년대의 바디아트와는 달리 현대의 몸 미술은 금기시 해

1) 허나영(2008). “시각예술의 형식분석에 있어서 엔트로피의 역할”, *한국조형예술학회*, 14, pp.103-122.

왔던 표현 영역을 과감하게 타파하여²⁾ 표현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몸은 20세기 지성사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90년대 이후부터 그 의미가 확장되고 심화되어오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예술에서 도출한 엔트로피 특성을 바탕으로 제작한 바디아트 작품에서 엔트로피의 특성을 분류하며, 앞으로의 바디아트에 다양한 표현시도와 더불어 균형적이고 비평적인 접근 및 해석 방법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미술, 조각, 건축, 바디아트 등 다양한 분야들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예술 경향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현대예술의 재료, 형태, 질감 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불확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배치 및 표현되어 결국은 수용자들에게 무질서한 혼란을 가중시킨다.

그러므로 물리학에서 무질서로 정의되는 엔트로피는 현대예술인 바디아트가 마주하고 있는 무분별하고 무질서하며 예측 불가능한 경향에 쉽게 적용되어 현상을 다각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비평적 관점으로 읽어내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엔트로피의 특성을 바탕으로 바디아트 제작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2) 김연아(2015). “바디아트퍼포먼스와 메를로퐁티 몸 현상학의 상호작용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1-16.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엔트로피를 회화, 조각, 건축의 현대예술 분야에 접목하여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점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하여 엔트로피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다면적으로 나타나는 엔트로피의 현상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엔트로피에 관한 선행연구는 각 주제를 살펴보면 이브-알랭 부아(Yve-Alain Bois, 1952 - 현재)와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E. Krause, 1941 - 현재)는 1960년대 이후의 현대예술의 다양한 동향과 흐름을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엔트로피³⁾와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 1904 - 2007)의 예술에서 나타난 무질서와 질서를 엔트로피 관점⁴⁾에서 서술한 책이 있으며, 현대 조형예술에서 나타난 생산자와 수용자 관점에서의 엔트로피 원리 고찰⁵⁾, 엔트로피를 모티브로써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시각적 표현 연구⁶⁾, 현대예술에서 나타난 엔트로피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책 고찰 연구 및 제시⁷⁾, 디자이너가 시각적 복잡성을 조절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성 요소로서의 엔트로피 연구⁸⁾, 시각 커뮤니케이션에서 나타난 엔트로피의 잠재적 정보 활성화 연구⁹⁾, 경계가 모호한 동시대 미술의 융합적 경향을 설명하기 위한 작품 해석방법으로서 엔트로피 연구¹⁰⁾ 논문등이 있다.

3) Yve-Alain Bois & Rosalind E. Krauss(1996). 「Formless: A User's Guide」, *The MIT Press*, 78, pp.38-88.

4) Rudolf, Arnheim(1971). 「Entropy and art: An essay on disorder and ord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5) 채정우(2004). “작품 생산과 수용의 엔트로피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회*, 5(3), pp.35-45.

6) 윤영인(2012). “엔트로피 법칙의 시각표현 연구 - 디지털미디어 도구와 기초디자인 요소 및 원리를 바탕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김정현(2014). “현대예술에서 엔트로피의 문제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이광호·윤성원(2018). “시각적 복잡성 연구 고찰 I - 문헌고찰을 통한 문제점 도출-”, *한국기초조형학회*, 19(2), pp.343-356.

9) 안신영(2019). “시각 커뮤니케이션에서 엔트로피와 정보의 변용 가능성”.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 김승휘(2019). “혼돈에서 질서로: 현대 금속조형디자인에서의 엔트로피 융합형상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술, 건축, 디자인, 조형, 미디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엔트로피가 적용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현대예술에서 도출한 엔트로피의 특성을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점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작품에 적용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바디아트 작품제작 진행에 있어서 현대예술에서 나타난 엔트로피의 특성을 도출 및 분류하고, 특성들을 응용하여 바디아트 작품을 제작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엔트로피의 이해를 바탕으로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점으로 분류한다.

둘째, 엔트로피의 선행연구와 생산과 수용의 과정에서 나타난 엔트로피 현상을 바탕으로 예술적 측면, 정보적 측면, 비평적 측면 세 가지로 분류한다.

셋째, 바디아트의 개념 및 표현 유형과 표현기법 등을 고찰한다.

넷째, 회화, 조각, 건축의 현대예술 작품들을 바탕으로 엔트로피 관점의 분류에 따른 세 가지 측면에서 각 네 가지 특성들을 도출한다.

다섯 번째, 도출된 엔트로피 특성들을 바탕으로 바디아트 작품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및 실증 연구를 병행한다. 문헌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외의 선행연구 및 단행본, 신문기사 등의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엔트로피와 현대예술, 바디아트에 대하여 고찰하며,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 도록, 잡지 자료, 전용 작품 웹 페이지들을 대상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 온라인 자료들은 인용한 내용의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곳과 사람, 날짜가 분명한 것을 선택한다.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총 12점의 전신 바디아트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엔트로피

1) 엔트로피의 개념

엔트로피(Entropy)는 1850년 물리학자인 루돌프 클라우지우스(Rudolf Clausius 1822 - 1888)가 열에너지의 변형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에너지(Energy)라는 단어와 그리스어의 변환·변형(Tropy)이라는 말을 합성한 것으로, 물질의 열적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¹¹⁾

일과 에너지를 연결하는 물리학 공식은 열역학 법칙이 있으며, 열역학 제 1 법칙은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것이다. 에너지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결코 새로이 생성 또는 소멸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순수 열역학은 원자 구조에 대해서 아는 바라곤 아무것도 없이 모든 물질을 절대 지속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¹²⁾

하지만 열역학 제 2 법칙에서는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감소하고 사용 불가능한 무효(無效) 에너지는 증가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¹³⁾ 즉,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비가역적인 과정에 서 발생하는 ‘에너지 변화량’을 엔트로피라 한다.¹⁴⁾

11) 제레미 레프킨 저, 이창희 역(2015). 「엔트로피」, 서울: 세종연구원. p.153.

12) R Arnheim(1971). 「Entropy and art: An essay on disorder and ord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7-13.

13) 김송휘(2019). op. cit., p.6.

14) 이재은(2008). “로버트 스미슨(R. Smithson)의 “개간 프로젝트(Reclamation Project)”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9.

그러므로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엔트로피의 양은 미시적인 열운동에서부터 거시적으로 인간의 환경, 지구의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질-에너지 현상에서 비가역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모든 물질은 비활성의 균일한 상태에 이른다는 열역학 이론의 특징을 가지는 것이다.¹⁵⁾ 즉, 엔트로피가 최소인 상태는 집중도가 제일 높고 유용한 에너지가 제일 많은 상태가 최고로 질서 있는 상태로 보며, 유용한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고 확산된 상태인 엔트로피가 최고인 상태를 가장 무질서한 상태로 보는 것이다.¹⁶⁾

이러한 엔트로피 현상은 모든 근대의 이론적 학문이 통합적인 질서를 지닌다는 가정의 틀을 무너트리며¹⁷⁾ 정치, 역사, 경제뿐만 아니라 예술에서까지 진보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그 이면에 혼란과 무질서를 동반하고 있다.¹⁸⁾

엔트로피적 긴장을 내포하고 있는 예술은 단순한 감각의 재미 이상이길 원하며, 예술작품은 스스로 의미를 지님으로써 의미심장함을 낳는 것이며, 이는 수용자에게 매우 강하고 복잡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¹⁹⁾ 이처럼 엔트로피는 현대예술의 질서와 통일성을 전제로 형성된 형태나 시각적 재현성에 변화와 변형을 가하며 형태 자체만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내포된 기존의 의미체계 역시 전복 및 확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⁰⁾

그러므로 현대예술과 엔트로피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대예술의 독자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5) 이재인(2015). “로버트 스미슨의 엔트로피와 현대건축 비교 연구 - 초기에 해체주의 성향을 보였던 현대 건축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50, pp.121-129.

16) 제레미 레프킨 저, 이창희 역(2015). *op. cit.*, p.67.

17) 김상철(2019). “로버트 스미슨의 장소특정적 예술에 나타난 엔트로피 성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18) 윤난지(2012). 「현대조각 읽기」, 서울: 한길아트. p.362.

19) R Arnheim(1971). *op. cit.*, pp.43-46.

20) 강덕봉(2020). “현대 조각에 나타나는 신체 이미지의 비정형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76-77.

따라서 엔트로피는 현대예술에서 생산자에 의해 창조된 작품과 작품을 수용 및 소비하는 관람자로부터 에너지 과잉이 발생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무질서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혼돈의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2) 엔트로피의 선행연구

본 연구는 엔트로피 관련 책 Formless: A User's Guide²¹⁾와 Entropy and art: An essay on disorder and order²²⁾, 엔트로피 관련 논문인 작품 생산과 수용의 엔트로피에 관한 연구²³⁾, 엔트로피 법칙의 시각표현 연구²⁴⁾, 현대 예술에서의 엔트로피의 문제 고찰 연구²⁵⁾, 시각적 복잡성 연구 고찰²⁶⁾, 시각 커뮤니케이션에서 엔트로피와 정보의 변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²⁷⁾, 혼돈에서 질서로: 현대 금속조형디자인에서의 엔트로피 융합현상 표현 연구²⁸⁾들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엔트로피 현상에 대해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점으로 분류하였고, 생산과 수용의 과정에서 나타난 엔트로피 현상을 예술적 측면, 정보적 측면, 비평적 측면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브-알랭 부아(Yve-Alain Bois, 1952 - 현재)와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E. Krause, 1941 - 현재)(1996)는 종래의 예술사 근간인 양식 개념에서 탈피하고 있는 더 이상 포괄할 수 없는 현대예술의 동향을 분석하는 수단으로서 엔트로피를 활용하였으며, 형태의 낡음이나 변형을 나타낸 생산자들의 작품을 서로 교차하여 해석함으로써 생산자 관점에서의 예술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현대예술의 형태 못지않게 수용되는 의미를 공격하는 개념으로써 엔트로피를 활용한 점을 통해 수용자 관점에서의 예술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엔트로피를 조화, 질서, 순서, 통일에 반하는 개념으로써 시각예술을 바라보는 다른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서 활용하

21) Yve-Alain Bois & Rosalind E. Krauss(1996). op. cit., pp. 38-88.

22) R. Arnheim(1971). op. cit.,

23) 채정우(2004). op. cit., pp.35-45.

24) 윤영인(2012). op. cit.,

25) 김정현(2014). op. cit.,

26) 이광호·윤성원(2018). op. cit., pp.343-356.

27) 안신영(2019). op. cit.,

28) 김승휘(2019). op. cit.,

였고 이를 통해 수용자 관점에서의 비평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자연과 인간 세계에서 질서를 얻으려는 본능 즉 구조의 극단적 단순화와 정반대로 혼돈과 무질서로 치닫는 현대예술의 모순된 경향을 열역학 제 2 법칙에 표현된 엔트로피 원리를 활용하여 일치시키려는 노력으로 수용자를 진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 1904 - 2007)(1971)은 이를 통하여 수용자 관점에서의 비평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현대 조형예술에서 엔트로피의 원리를 고찰하는 연구를 진행한 채정우(2004)는 작가의 의식과 경향, 조형의 특성을 통하여 엔트로피를 생산자 관점에서의 비평적 측면으로 분류하였고, 수용자 관점에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이론 그리고 수용미학을 통하여 엔트로피의 법칙을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 점을 통해 비평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생소화 수법으로 인한 엔트로피 증가는 정보적 측면에서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작품을 접하도록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통해 생산자 관점에서의 정보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윤영인(2012)은 엔트로피를 모티브로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하여 시각적 표현을 연구하였다. 질서와 무질서가 서로 쌍방향으로 이동하며,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특성을 통해 수용자 관점에서의 비평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유연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정보 전달의 효율로 인해 관객과의 소통이 가능한 점을 통해 생산자 관점에서의 정보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현대예술의 엔트로피 문제를 고찰한 김정현(2014)은 개별화된 양식과 융합 및 해체된 교접 장르를 빠른 속도로 양산하는 현대예술이 극단의 다양화와 다원화를 주요 동력으로 장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생산자 관점에서 예술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가장 엔트로피가 낮은 '순간'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현대예술에 적용하여 현대예술의 극단적 경향에 경제적이고 효율적

인 관점으로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수용자 관점에서의 정보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이광호, 윤성원(2018)은 디자이너가 시각적 복잡성을 조절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성 요소로서 엔트로피를 제시하였으며, 질서와 복잡성 사이에 균형을 강조한 점을 통해서 수용자 관점에서의 비평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생산자 관점에서의 시각적 복잡성에서 최적의 지점과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매력의 관계성을 그래프와 함께 설명하였는데 이를 통해 생산자와 수용자 관점에서 의미 전달과 수용으로 인해 정보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생산력이 풍부한 무질서’에 근거하여 엔트로피의 무질서가 새로운 정보 가치 창출의 가능성으로 본 것을 통해 수용자 관점에서의 정보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리던던시’ 개념을 통해 수용자의 호기심과 참여를 유도함에 따라 생산자 관점에서의 예술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동시에 수용 과정에서 환경에 따라 수용자의 해석은 달라지기 때문에 수용자 관점에서의 예술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하여 안신영(2019)은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엔트로피 잠재적 정보 활성화를 연구하였다.

경계가 모호한 동시대 미술의 융합적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 현행 미술에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의 수단으로서 엔트로피를 제시한 김송휘(2019)는 이점을 통해 수용자 관점에서의 예술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예술 창조에 있어서 질서와 무질서의 상호 존재의 필요성과 외부환경과 연결의 중요성 제시를 통해 수용자 관점에서의 비평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통해 엔트로피 원리는 여러 분야를 바라볼 수 있는 수단으로써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점으로 분류될 수 있고 예술, 정보, 비평의 측면으로 엔트로피를 미시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관점과 측면을 도출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엔트로피 선행연구

선행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 내용	엔트로피의 관점	엔트로피의 측면
Yve-Alain Bois and Rosalind Krauss (1996)	Formless: A User's Gu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화, 질서, 순서, 통일에 반하는 개념으로서 다른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엔트로피 활용 납음과 변형된 형태 및 수용된 의미의 변형에 있어서 엔트로피 활용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예술적 측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정보적 측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비평적 측면</div> </div>
Rudolf Arnheim (1971)	Entropy and art: An essay on disorder and or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과 인간 세계에서 질서를 얻으려는 본능에서의 엔트로피 원리 활용 극대화된 무질서의 현대예술에 엔트로피 원리 활용 		
채정우 (2004)	현대 조형예술의 엔트로피 원리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적 측면에서 엔트로피 증가로 인한 수용자에게 유용성 수행 수용미학적 측면과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의 엔트로피 법칙 적용 가능성 모색 		
윤영인 (2012)	엔트로피를 모티브로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시각적 표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서·무질서의 쌍방향적 이동에서의 상호 공존 특성 연구 유연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전개로 인해 정보 전달의 효율 발생 		
김정현 (2014)	현대예술의 엔트로피 문제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관점의 가속화된 엔트로피에 대한 해결책 모색 연구 교접 장르 가속화로 인한 현대예술 다양화 및 다원화 		
이광호 윤성원 (2018)	시각적 복잡성에 관한 엔트로피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적 복잡성의 최적 지점과 수용자 간의 관계성 연구 질서와 복잡성의 균형 강조 		
안신영 (2019)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엔트로피 정보 활성화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엔트로피의 무질서로 인한 새로운 정보 가치 창출 정보와 엔트로피(숨겨진 정보)의 조절을 통한 수용자 유도과 정보의 양·수준의 차등으로 인한 해석의 다양화 		
김송휘 (2019)	미술의 융합적 작품 해석방법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융합적 작품 경향의 해석 수단으로서 엔트로피 활용 생산자 관점에서의 질서·무질서 상호 공존의 필요성과 외부환경과 연결의 중요성 제시 		

3) 엔트로피의 관점

본 장에서는 앞장에서 분류한 엔트로피의 현상이 발생하는 생산과 수용의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현대예술에서의 엔트로피는 예술의 특성을 통하여 생산자의 작품 해석, 정보 전달을 생산의 관점으로 해석하였으며, 패러다임의 모색, 수용미학을 수용자의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엔트로피는 생산과 수용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며, 생산과 수용의 양방향 간 탄력적 이동을 보인다.

또한, 현대예술과도 결부되어 생산자와 수용자의 각 관점에서 현대인이 가져야 할 시각과 자세를 제시함으로써 엔트로피를 비평적 작동 기제로서도 볼 수 있다.

(1) 생산자의 관점

인간이 무엇을 생산한다는 기원은 엔트로피를 변화하는 행위로부터 시작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²⁹⁾ 생산자의 관점에서 질서로 향하는 과정에서 무질서를 가함으로써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고,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추구하는 과정 모두를 엔트로피를 변화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생산자에 의해 예술작품에서 다양한 재료의 사용은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생산자가 발견하고 선택하는 재료들은 여러 시행착오와 탐구를 통해 재료로서의 적합성을 찾게 된다. 즉, 재료들은 그 특성에 맞게 제작되며 그 과정³⁰⁾에서 수반되는 엔트로피 현상을 생산자의 관점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29) 채정우(2004). op. cit., pp.35-45.

30) 조아라(2019). “비가시적 정감의 조각적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3.

또한, 생산자는 작품의 창조와 수용의 조건들을 재배열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 이때 예술의 문화적 약호들의 유동적인 상호관계 내에서 구축된 사회관계의 그물망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 하면서, 예술의 재현이 개인의 상상이라는 절대적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수용자의 관점에서 작품이 의미하도록 허용하는 기구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³¹⁾을 통해 생산자에 의해 발생한 엔트로피 현상은 수용자와 긴밀한 관계성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예술은 일반적 제도와 다른 차원의 소통방식을 제공하는데 예외적인 소통의 장으로서의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정적인 ‘틈’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틈’에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생산자는 수용자와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거리도 가짐으로써³²⁾ 엔트로피는 긍정적인 기능 또한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생산자는 작품에서 창조된 잉여의 오브제나 정보는 관람자에게 수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함이 넘쳐나는 상황으로부터 오히려 해방될 수 있는 지점 즉 과도하게 증가한 엔트로피를 벗어날 수 있는 소멸의 지점을 제시함으로써, 의식의 정화라는 교환 가치를 유발할 수 있다.³³⁾ 이처럼 생산자 측면에서 엔트로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도 존재한다.

31) 윤자정(2011). “현대미술의 매체환경 대응과 그 의미”, *현대미술학회*, 15(2). pp.175-205.

32) 유현주(2011). “팝아트 이후, 현대미술의 소통 가능성 : 아도르노와 보드리야르의 시각에서 팝아트와 미니멀리즘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중심으로”, *현대미술학회*, 15. pp.175-210

33) 김정현(2014). op. cit., p.138.

(2) 수용자의 관점

엔트로피의 증대는 일차적으로 현대예술의 다원화 경향의 징후를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지만, 속도대비 무분별한 엔트로피 증대는 현대예술에서 과잉 에너지의 소비와 피로감을 드러내는 부정적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수용자가 마주하는 현대예술의 복잡성과 무질서적 경향으로 인해 수용자는 더욱 혼돈에 빠져들며, 이러한 경향이 속도와 연결되면 엔트로피의 파장은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예술에서의 엔트로피 이증성도 수용자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³⁴⁾

또한, 수용자는 작품을 관찰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실제 공간에 있는 관계 체계의 일부로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관계 체계를 고정할 수 없고 경계를 정확히 설정할 수도 없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수용자의 관찰에서 출발해 경계에 대한 질문을 수용자의 관점에서 계속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³⁵⁾

하지만 엔트로피의 고-저는 수용자에 의해 영향을 받고 변화될 수 있다. 다양한 문화권과 사회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다양한 층위의 수용자들과 비로소 만남으로써 수용자의 관점에서 작품 해석의 틀이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 것처럼³⁶⁾ 작품의 의미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엔트로피 즉 무질서의 정도는 수용자의 다양한 배경과 관점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인 에르빈 슈뢰딩거(Erwin Schrodinger, 1877 - 1961)는 인간은 네거티브 엔트로피(Negative entropy)를 수용할 수 있는

34) 김정현(2014). op. cit., p.27.

35) 질케 폰 베르스보르트-발라베, 이수영 역(2008). 「이우환 : 타자와의 만남」, 서울: 도서출판 학교재, p.90.

36) 고동연(2011). “전 지구화 시대의 중국 현대미술과 비평: 우홍의 ‘실험적인 예술’ vs 가오밍루의 ‘트랜스 내셔널 아방가르드’”, *한국미술사학회*, 27. pp.69-99.

존재라고 하였다.³⁷⁾ 즉, 수용자는 동화와 이화작용의 동시적 관점³⁸⁾에서 엔트로피를 분석할 수 있고 질서와 무질서가 균형을 이루는 구조적인 질서로의 재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37) 채정우(2004). op. cit., pp.35-45.

38) 불완전한 구조에서 질서를 생성하려는 동화 작용(엔트로피의 감소)은 음의 엔트로피(Negative entropy)적 성향을 통해 질서 생성에 대한 파괴를 목적으로 이화 작용(엔트로피 증가)이 일어나게 된다. 동화와 이화의 자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평형상태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4) 엔트로피의 측면

엔트로피 현상은 생산과 수용의 과정에서 생산자와 수용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가지며 추상화되거나 시각화되어 발생한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앞서 다루었던 선행연구 및 분류된 생산자, 수용자 관점을 바탕으로 미시적 측면으로서 예술, 정보, 비평으로 분류하였다.

(1) 예술적 측면

생산자에 의해 창조되는 현대예술이 생생한 인간 현존의 반영이라는 특성을 놓고 볼 때 양식이 단순했던 예술은 여태껏 없었다.³⁹⁾ 현대예술을 가장 난해하게 만든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생산자들의 집착과 예술 자체의 정체성 상실, 즉 끝이 보이지 않은 예술 자체의 확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⁴⁰⁾ 즉, 현대예술은 생산자의 과잉 에너지 소비를 통해 급속한 다원화와 무질서를 자신의 주요 동력으로 삼아왔다.⁴¹⁾

이에 아트 이론가 이원곤(1956 - 현재)은 현재의 예술 상황에 대해 ‘장르의 확장과 퓨전 현상은 수많은 형태의 합성 장르를 만들어냈고 미술과 일상, 자연과의 경계가 없어진 상황이 도래하였다’고 보았다.⁴²⁾

20세기에 들어서서 엔트로피의 개념을 예술에 적용한 대표적인 이론가인 에드가 모랭(Edgar Morin, 1921 - 현재)은 사회 전체 현상을 이해하려면 오히려 무질서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사고하고 접근하여야 하며 작품의 상징적 의미, 용도, 장르 등의 융합 및 변화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39) R Arnheim(1971). op. cit., pp.40-43.

40) 전해숙(2016). 「포스트휴먼 시대의 미술 - 신체변형 미술과 바이오아트」, 경기도: 아카넷, p.5.

41) 김정현(2014). op. cit., p.18.

42) 이원곤(2004). 「디지털 영상과 가상공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p.8.

현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⁴³⁾

이탈리아 미학자인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 1932 - 2016)가 예술의 경향으로부터 도출한 개념인 ‘열림(Openness)’은 개방적이고, 열린 구조로 되어있는 현대예술에서 수용자의 자유로운 해석적 개입을 허용하는 의미로써 엔트로피의 다의적 특성과 결부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수용자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동일 작품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⁴⁴⁾

또한, 시각예술에서도 다의성을 볼 수 있다. 시각예술은 그 긴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근대 이후부터 현대까지 학문의 영역과 관점이 더 세분화하면서 하나의 예술 현상을 읽어낼 수 있는 방식은 거의 무한에 가깝다고도 말할 수 있다.⁴⁵⁾ 이처럼 작품은 표면상으로는 완결되었지만, 예술작품을 해석하는 수용자들은 각기 다른 취향과 환경 앞에서 무한하게 열린 해석을 허용할 수 있다.⁴⁶⁾

결국, 이미지들 안에서 무엇을 가져가 의미화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그것을 보는 수용자의 몫으로 남겨지는 것이다. 즉, 만들어진 의미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로부터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⁴⁷⁾ 그러므로 작품에서 발생한 엔트로피 현상은 수용자들은 체감되고 혼란을 경험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작품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자율적으로 끌어낼 수도 있다.⁴⁸⁾

43) 김송휘(2019). op. cit., p.11.

44) 김운찬(2016). 「움베르토 에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주), p.34.

45) 허나영(2008). op. cit., pp.103-122.

46) 김운찬(2016). op. cit., p.36.

47) 남상식 외 5명(2017). 「경계를 넘는 공연예술 - 상호매체성과 새로운 지각의 파노라마」, 경기도: 태학사, pp. 75-76.

48) Michel Mendès France, Alain Hénaut, Jacques Mandelbrojt(1994). “Art, Therefore Entropy”, *The MIT Press*. 273), pp. 219-221.

(2) 정보적 측면

정보이론가는 특정 메시지의 시스템 안에 있는 질서와 무질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정보적 측면에서 정보량을 측정하는 것이며,⁴⁹⁾ 엔트로피와 정보는 비례관계를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엔트로피가 높아지면 정보량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⁵⁰⁾

엔트로피를 정보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로 활용한 클로드 새넨(Claude Elwood Shannon, 1916 - 2001)은 정보이론에서의 엔트로피는 예측 불능의 척도로서,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지를 측량하는 것은 메시지에 저장된 정보량을 측량하는 것과 같으며,⁵¹⁾ 고-엔트로피는 정보 메시지에 포함하고 있는 정보량이 증가하여 선택조건도 많아져 낮은 예측성을 가질 수 있지만, 반대로 저-엔트로피일 때는 정보량이 감소하고 선택조건도 줄어들어 높은 예측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⁵²⁾ 그러므로 새넨은 ‘리던던시’⁵³⁾개념을 바탕으로 예술작품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술작품에서 고-엔트로피로 인한 낮은 ‘개연성(Probability)’과 예측성을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⁵⁴⁾

프랑스 문화 사회학자인 로베르 에스카르피(Robert Escarpit, 1918 - 2000)는 복잡성을 생성하는 ‘노이즈(Noise)’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소음(Noise)도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⁵⁵⁾ 이는 생산자에 의해 창조된 노

49) 박은주(1996). “정보예술론의 기초와 미학: 정보이론의 미학적 한계”, *한국미학예술학회*, 6, pp.167-186.

50) Claude E. Shannon, Warren Weaver(1949).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p.27.

51) 신종천, 윤준성(2018). “정보 생성 예술로서의 바이오아트: 엔트로피와 노이즈, 그리고 생물학적 변이의 예술적 활용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회연구*, 19(1), pp.307.

52) 오병근, 홍석일(2005). “정보디자인의 잉여성적용 연구”, *디자인학연구*, 18(1), p.53.

53) Redundancy: 정보이론에서 리던던시는 부가적 정보의 표현이나 중복되는 성질을 나타내는데는 요소로 메시지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분명한 정보전달을 도와주는 요소이다. 예술 분야에서 리던던시의 사용은 관람자에게 호기심을 주고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관람자의 이해도와 집중도, 참여도를 높여준다.

54) 남상식 외 5명(2017). op. cit., pp.16-17.

55) 로베르 에스카르피 저, 김광현 역(1995).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서울: 민음사, p.54.

이즈에 의해 수용자는 그것을 흥미 요소로써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수용자 관점에서 노이즈는 시각적, 청각적, 동적 흥미 소재들로서 관람자의 참여도를 높여주는 것이며, 변수가 적고 예측성이 높은 정보가 효과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⁵⁶⁾ 이처럼 정보는 수용자가 가치를 부여할 때만이 유용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 부여 행위는 특정한 상황에서 나타나며 각 개인의 경험에 근거할 수 있다. 즉 정보적 측면에서의 정보 유용성은 수용자의 필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⁵⁷⁾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서 에코는 저서 「열린 예술작품」을 통해 ‘생산력이 풍부한 무질서’를 언급하며, 어떠한 원인에 의해 일어날 가능성이 기존에 확정되어 있던 것과는 다를 수 있다거나 전혀 가치가 없었던 요소들이 새로운 유용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⁵⁸⁾ 즉, 무질서에서의 정보는 드러나는 질서가 없는 듯 보이나 그 안에 숨겨진 유용한 정보가 존재하고, 이를 ‘잠재적인 정보, 숨겨진 정보’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⁵⁹⁾

미디어 아티스트 로이 애스콧(Roy Ascott, 1934 - 현재)은 정보가 고도로 조직화되고 엄밀하게 결정되었을 때, 예술작품은 수용자에게 피드백을 거의 받지 않고, 생산자의 메시지를 작품을 통하여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정보가 명확하게 결합 되어있지 않고, 복잡하고 불확정적 질서의 구조를 통해 수용자로부터 작품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예측 불가능한 상호작용으로 소통도 가능할 수 있다.⁶⁰⁾

56) 오병근, 홍석일(2005). op. cit., pp.49-58.

57) 이호규(2010). “주체형성 장치로서의 가상공간과 커뮤니케이션 모델: 르페브르와 푸코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7(2), pp.173-213.

58) 김운찬(2016). op. cit., p.36.

59) 안신영(2019). op. cit., p.42.

60) 로이 애스콧 저, 이원곤 역(2002). 「테크노에틱 아트 새로운 의식, 리얼리티, 예술의 창발을 향하여」,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p.18.

(3) 비평적 측면

생산자 관점에서 형태 및 의미체계를 전복시키는 비정형의 방식을 비평적 측면으로 사용한 로버트 스미스슨(Robert Smithson, 1938 - 1973)은 기성 체제의 와해를 포착한 예술의 동향들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엔트로피 개념을 사용하였다. 스미스슨은 역설적으로 엔트로피 증가를 체험하게 만듦으로써 엔트로피에 대한 에너지 소비와 피로감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의 필요성을 인지시켰다.⁶¹⁾

크라우스와 부아의 저서 「비정형: 사용자 안내서」를 통해 엔트로피를 확장된 비정형의 개념으로서 현대예술에서 엔트로피의 작동방식을 이해하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고 말하였다.⁶²⁾ 현대예술에서 엔트로피 증가는 그에 반대되는 구속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파괴를 ‘이화’라고 하였다. 생산자의 관점에서 인간의 과도한 질서 추구로 인한 개성상실에 대해 우려는 존재하였고, 이에 변화를 엔트로피의 근간으로 제시하면서 기존의 통일성, 조화, 질서로 인해 만들어진 형태와 재현, 그리고 의미작용에 생산자 관점에서 변형을 가하여 무질서의 혼란으로 빠뜨리는 것은 비정형의 비평적 전략 중 하나로서 볼 수 있는 것이다.⁶³⁾

아른하임은 현대예술에서 질서와 무질서의 모순 속에서 엔트로피를 하나의 비평수단으로 제시하였다.⁶⁴⁾ 「엔트로피와 예술」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간에게는 엔트로피 속성인 전체와 부분뿐 아니라 낱낱 부분들도 서로 갈라져 합쳐야 하는 분화를 시키는 이화작용과 질서를 추구하는 동화작용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⁶⁵⁾ 또한, 우연히든 의도적이든 현대예술작품에서 생성

61) 김상철(2019). op. cit., p.42.

62) Yve-Alain Bois, Rosalind E.Krauss 저, 정연신, 김정현, 안구 역(2013). 「비정형: 사용자 안내서」, 경기: 미진사, p.7.

63) 강덕봉(2018).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인체 조각에 나타나는 비정형 신체 이미지 연구”, *한국 기초조형학회*, 19(5), pp.1-16.

64) 김정현(2014). op. cit., p.36.

된 무질서는 질서가 없다는 의미이기보다는 관련 없는 개별 질서들의 구조적 충돌로 볼 수 있으며,⁶⁶⁾ 현대예술의 작품에서 설명되지 않은 일정한 불확정적인 요소를 통하여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질서와 무질서의 상태가 교차하며 예술작품의 의미가 증폭되게 되는 것이다.⁶⁷⁾

무질서 속에서 질서가 주어질 때 유의미할 수도 있다는 비평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만, 최대한의 무질서 즉, 역설적인 극대화 방법을 통해 최대한의 질서를 끌어내는 것, 이것이 미학과 예술이 추구하는 방향일 수 있다.⁶⁸⁾

균형 잡힌 질서가 자리를 굳혀가는 과정에서 변화를 바라는 욕구들과 뒤떨어진 형태가 맞다투는 무질서의 과도 단계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평형(Equilibrium)’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설적 현상은 오히려 새롭고 균형적인 예술작품의 생산 과정에 긍정적인 ‘긴장’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⁶⁹⁾

수용자는 전통적인 예술의 질서를 재정의하는 노력을 통해 강박적으로 무질서와 혼합하려 하지 않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것 즉 무질서와의 혼재를 역설적으로 지향⁷⁰⁾함으로써 현대예술을 이루는 여러 요소에서 무질서와 질서 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화합을 통해 새로운 비평적 해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표 2>는 엔트로피 측면의 특성 분류를 정리한 것이다.

65) 김상철(2019). op. cit., p.70.

66) 루돌프 아르하임 저, 오용록 역(2017). 「엔트로피와 예술」, 서울: 전파과학사, p.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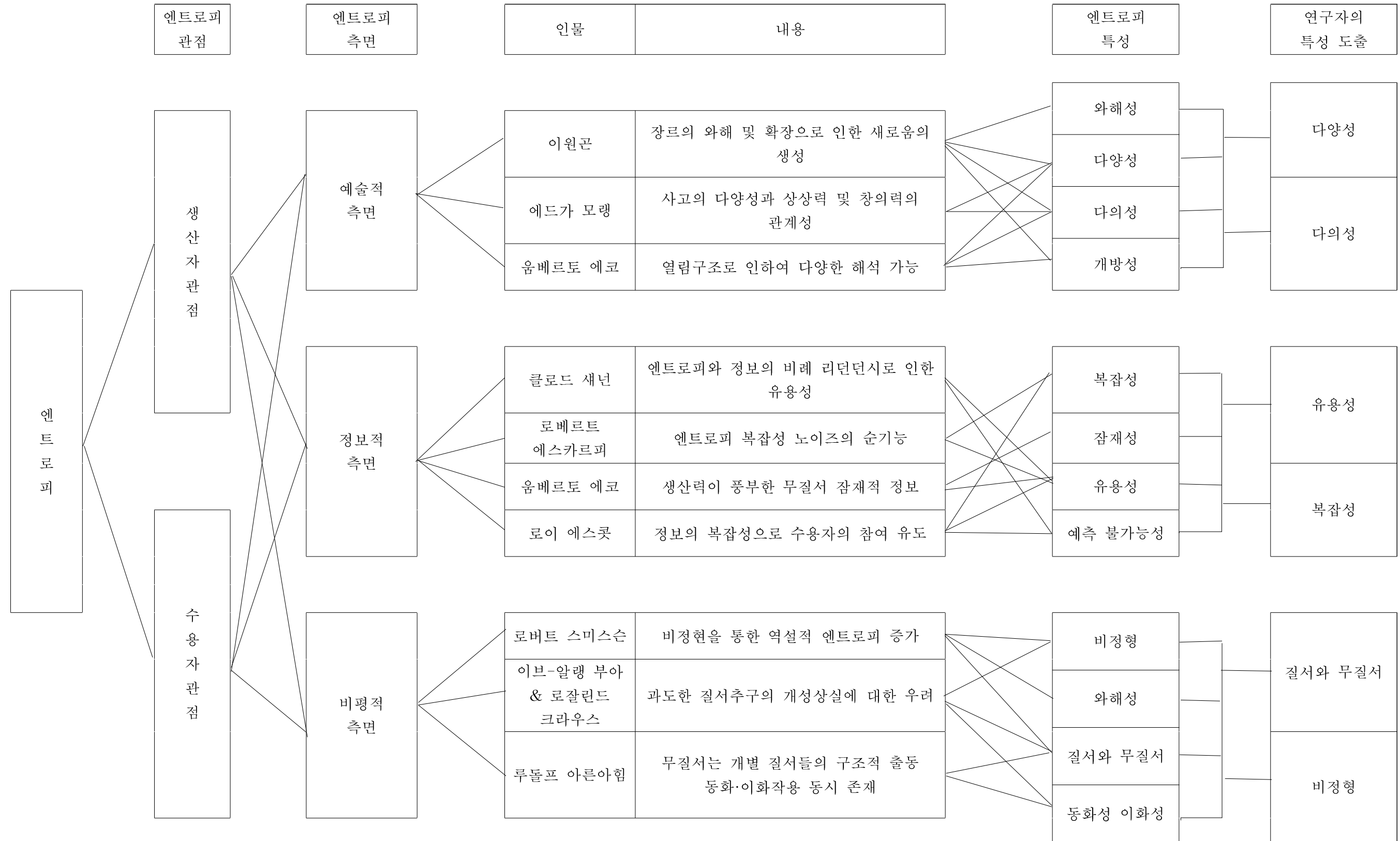
67) 허나영(2008). op. cit., pp.103-122.

68) 안신영(2019). op. cit., p.42.

69) R Arnheim(1971). op. cit., pp.21-22.

70) 김성은(2015). “경계와 관계의 엔트로피: 소피 토이버 아르프와 한나 회히의 다다”, *한국미학예술학회*, 45, pp.145-178.

<표 2> 엔트로피 측면의 특성 도출



2. 바디아트

1) 바디아트의 개념

바디아트(Body Art)는 인간의 몸을 대상으로 어떤 일정한 재료와 양식, 기교 등을 사용하여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활동이나 산물로써 인간의 신체를 형상화하는 조형예술 분야의 하나이며, 인간의 몸이 예술의 행위자인 동시에 표현의 재료로써 나타나는 예술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⁷¹⁾

현대예술에서 넓게 보았을 때 바디아트는 행위 예술(behaviour art)과 동일시 할 수 있다. 행위 예술은 개념미술에서 발전한 것으로, 육체의 운동 및 변화의 여러 조건을 나타냄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각 순간의 육체적 변화를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과정미술(Process Art)과 마찬가지로, 관념을 생산하는 개념미술의 필연적 진적으로 볼 수 있다.⁷²⁾ 이는 개념미술 속에 보이는 탈 오브제 적 관념으로 개념-실행의 수단으로⁷³⁾ 분류하여 신체를 캔버스화하여 재료로써 사용하는 퍼포먼스 아트(Performance Art)의 형태로도 설명할 수 있으며 단순히 칠하는 개념에서 시작된 신체 장식에서 진보적인 형태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⁷⁴⁾

현대의 바디아트는 다양한 방향으로 구현하며 정치·사회적 비판과 결합하면서 설치물, 비디오, 퍼포먼스, 문자 혹은 이 모든 것을 다양하게 섞은 형식으로 발전했다.⁷⁵⁾ 이는 단순 인간의 모습에서 탈피하려는 욕망에서 비롯

71) 한명숙(2015). “바디아트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9.

72) 태동숙(2011). “투명성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9.

73) 박정신(2007). “클립트의 회화 장식을 응용한 바디아트 연구”, *한국인체미술학회*, 8(1), pp.39-58.

74) 이유나, 김경희(2011). “시물라시옹 개념에 의한 바디아트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화장품미술학회*, 1(1), pp.59-71.

되어 인간을 예술적 창작에 의해 재창조하고 형이상학적인 인간의 심리까지 표현하는 상징적 수단의 한 형태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⁷⁶⁾

그러므로 바디아트는 예술적 측면을 넘어 대중과 순수 예술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며, 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신자의 역할까지 수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음을 반증한다.⁷⁷⁾

따라서 바디아트는 신체 장식에서 진보된 형태로 신체를 대상으로 시각적 해석을 조형적으로 표현하며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형성된 예술과 인체가 결합하여 여러모로 해석이 가능한 창의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75) 캐롤 스트릭랜드 저, 김호경 역(2013). 「클릭, 서양미술사 동굴벽화에서 개념미술까지」, 서울: 도서출판 애경. p.341.

76) 김광숙(2001). “바디아트의 조형적인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2(1), pp.11-23.

77) 이유림, 소황옥(2019). “의미 네트워크를 활용한 바디아트 트렌드 분석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20(2). pp.133-150.

2) 바디아트의 표현 유형

바디아트는 미적 형태를 가지며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예술로써 좁은 면적의 얼굴을 사용하여 장식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페이스 페인팅, 독특한 오브제를 사용하여 다양한 이미지 표현을 위한 판타지 메이크업, 인체를 하나의 조형물로 생각하여 조형예술로 표현하는 바디페인팅으로 나누어지며 바디아트의 종류나 역할은 다양성을 띠고 있다.

(1) 페이스 페인팅

16세기 영국의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 - 1616)의 희곡에서 ‘페인팅(painting)’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백납분에 향료와 색상을 섞어 만든 다채로운 안료로 얼굴에 색칠하는 것을 ‘페인팅(Painting)’이라 하였다.⁷⁸⁾

페이스 페인팅은 특정한 상황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와 색채를 활용하여 얼굴에 한정시켜 페인팅하는 것으로 장식적이거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함과 동시에 위장, 분장 등 일상적이지 않은 화장 행동을 뜻한다.⁷⁹⁾ (그림 1)이처럼 얼굴에 문양이나 기호를 그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페인팅으로 얼굴이 캔버스가 되어 생각이나 메시지를 색과 문양으로 얼굴에 그리는 비일상적 화장행위로 설명된다.⁸⁰⁾ 또한, 현대에서는 다양한 문화권이 생성되고 교류됨으로 기존의 미의 획일화보다는 개성이 강조되는 것을 중요시하며,

78) 이경은(2007). “메이크업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에 관한 연구: 2001년~2005년 파리 컬렉션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

79) 이연희(2009). “화장의 상징적 기능과 페이스페인팅”, *한국의류학회지*, 32(1), pp.1608-1618.

80) 박미정(2020). “현대 아트메이크업에 나타난 페이스페인팅의 시뮬라시옹 표현기법과 페인팅의 재료특성 연구”,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1.

신체에 대한 인식의 개선되어 얼굴에 페인팅하는 새로운 메이크업 시도가 대중의 관심을 끌도록 하였다.⁸¹⁾ <그림 2>는 요즘 유행하는 페이스 페인팅 중 커버업 메이크업으로 유튜버 이사배가 말레피센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을 따라서 표현한 메이크업이다.

이와같이 페이스 페인팅은 바디아트의 표현 유형 중 하나로 신체의 국소 부위인 얼굴에 다양한 색채와 이미지를 활용하여 의미를 전달하며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고자 하는 조형예술의 분야이다.

(2) 판타지 메이크업

판타지(Fantasy, Phantasy)의 어원은 '터무니 없는 공상, 종잡을 수 없는 상상, 즉흥적인 착상 등 계획된 디자인의 흥미로운 발명'을 뜻한다.⁸²⁾ 이는 상상력의 기능이나 실체가 없는 환영, 정신적 과정으로 그리스어 'Phantasein'에서 파생된 라틴어 'Phantasticus'에서 나온 것으로 "가시화하다, 착각을 주다, 명백하게 하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다."라는 의미가 있다.⁸³⁾ 판타지 메이크업은 자신이 상상하는 것을 신체에 표현하는 것으로 실제와 상상의 세계를 교합하는 추상적인 존재 또는 신성하거나 사실주의적인 동물의 형상화, 그리고 나아가 초현실적인 예술을 표현하는 도구로 발전되어 왔다.⁸⁴⁾(그림 3)

판타지 메이크업은 의상 컨셉과 연계하여 이질적이며 독특한 소재와 표현 기법인 메이크업의 기표를 통해 기존의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아티스트의 예

81) 최지은, 정연자(2019). "피카소의 큐비즘 표현기법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20(1), pp.289-300.

82) 신단주(2016). 「신단주의 바디아트와 캐릭터 메이크업」, 서울: 크라운출판사, p.78.

83) 정승희(2010). "2000년대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 디자인의 이국적 이미지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0.

84) 장진미, 우나라야(2010). "환타지 메이크업에 나타난 미래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1(4), pp.1-15.

술적 의미는 물론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이기도 하다.⁸⁵⁾ <그림 4>처럼 독특하고 이질적인 재료를 이용하고 다양한 색으로 여러 회화적 기법을 사용하여 환상적이고 신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적인 감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판타지 메이크업은 기존의 고착된 관념을 파괴하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미지를 구체화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바디아트의 유형 중 하나이다.

(3) 바디 페인팅

바디페인팅은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최후의 얇은 층인 피부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몸에 색을 칠하고 장식을 하게 되면서 행하여지게 되었으며,⁸⁶⁾ 특정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믿음, 역사를 응축한 색채나 모티브와 기법들의 상징적 결정체로서 전통적인 자신들의 문화를 대표하는 시각적 상징물로 변모하여 발전해 왔다.⁸⁷⁾

바디페인팅은 인간의 신체를 형상화하여 미를 창조하는 조형예술 분야의 하나이며, 주관적 예술 감성을 부여하고 작가의 메시지와 주제를 전달하는 것을 회화적 측면에서의 디자인 요소인 색상, 형태 질감을 바탕으로 디자인 원리를 적용하여 표현한다(그림 5).⁸⁸⁾

<그림 6>과 같이 신체 또한 예술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신체를 사용한 행위 예술에서 내포한 의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바디페인팅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바디페인팅은 살아있는 인체 위에 직접

85) 신원선, 권태순(2014). 「아트 메이크업 발상」, 서울 : 훈민사. p.15.

86) 박정신(2007). op. cit., pp.39-58.

87) 태동숙(2011). op. cit., p.36.

88) 박소경(2019). “고대 이집트의 전통문양을 응용한 바디아트디자인 연구”,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60, pp.101-110.

그리기 때문에 인체성의 의미를 가지며, 인체 위에 예술로서 정지되어 있는 예술품보다 생동감 있는 다차원적 표현⁸⁹⁾이 가능한나 오래 보존하기 어려운 단점을 갖는다.

따라서 바디페인팅은 신체를 하나의 조형물로 간주하고 창조적인 활동으로 퍼포먼스가 가능한 조형예술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미학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현시대의 문화 심벌로 나타내어지고 있다.

89) 김혜균(2019). “뱅크시 그래피티를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사단법인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173), pp.31-40.



<그림 1> 페이스페인팅 분장
출처:<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51366586541104&mediaCodeNo=258>
(2019.11.14.)



<그림 2> 이사매, <말레피센트 커버메이크업>
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YPIKdqgaRLc>
(2019.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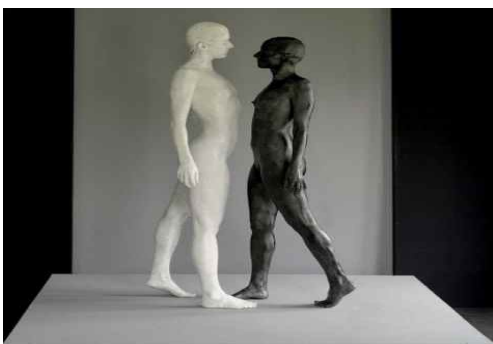
<그림 3> 판타지 메이크업1
출처:<https://www.boredpanda.com/makeup-styling-dark-fantasy-characters-candy-makeup-artist/>
(2019.11.14.)



<그림 4> 판타지 메이크업2
출처:http://www.dibf.co.kr/2019/sub.php?mode=view&idx=1331&page=1&menu=page&menu_id=19&search_field=&search_key=&search_cate=
(2019.11.14.)



<그림 5> Stace
<Jell-O Editorial>, 2016
출처:<http://www.fubiz.net/2016/06/15/human-fashion-masterpieces-by-juco/>
(2019.11.02)



<그림 6> KOMMUNIKATION
<PERFORMANCE>, 2008
출처:<https://www.pinterest.co.kr/pin/468092955018151421/>
(2019.11.05.)

3) 바디아트의 표현기법

본 연구는 광고에 나타난 바디페인팅 연구⁹⁰⁾와 바디아트퍼포먼스와 메를로퐁티 몸 현상학의 상호작용 관계 연구⁹¹⁾, 현대 아트메이크업에 나타난 표현기법과 페인팅의 재료특성 연구⁹²⁾를 바탕으로 바디아트 표현기법을 분류하였다.

안성준, 정재윤(2011)은 회화적 기법, 그래픽 표현기법, UV물감의 블랙 라이트 기법, 스텐실을 이용한 에어브러시 기법, 오브제를 이용한 기법으로 분류하였다. 김연아(2015)는 회화적 기법, 오브제 기법, 프로젝션 맵핑 기법, 3D 디지털 기법으로 분류하였으며, 박미정(2020)은 회화적 표현기법, UV형 광물감과 블랙라이트 표현기법, 에어브러쉬를 이용한 표현기법, 오브제를 활용하는 표현기법,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일루미네이션기법의 표현기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회화적 기법, 오브제 기법, 프로젝션 맵핑 기법, 디지털 기법으로 분류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회화적 기법

회화적 기법은 인체를 캔버스 삼아 주로 자연물과 같은 어떤 대상을 형상화 시키고 정밀묘사와 액션페인팅의 우연적 기법등의 요소를 이용하여 주제에 따른 메시지를 그림을 그려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⁹³⁾

<그림 7>은 회화적 기법중 에어 브러시기법은 압축된 일정한 공기를 만

90) 안성준, 정재윤(2011). “광고에 나타난 트롱프로유 기법을 활용한 바디페인팅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2(2), pp.283~293.

91) 김연아(2015). op. cit.,pp.11-16.

92) 박미정(2020). op. cit.,pp.18-24.

93) 김연아(2015). op. cit., p.11.

드는 콤프레셔와 에어건을 연결하여 액체 상태의 물감을 밀어내어 분사시키는 스프레이 형식의 채색 방법이며, 스텐실을 사용할 경우 완성도 있는 형태와 반복적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⁹⁴⁾ 발광 UV 물감과 블랙 라이트 기법으로 표현된 작품으로 <그림 8>과 같이 형광물감으로 표현되어 일반 물감보다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발생하고 색의 대비에 따른 형상의 이미지가 강하게 표현되며 조형성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디자인을 살려 무대공연이나 퍼포먼스에 많이 사용되는 회화적 표현 기법이다.⁹⁵⁾

이처럼 회화적 기법에는 정밀묘사, 액션페인팅, 스텐실 및 에어브러쉬 기법, UV 형광물감의 블랙 라이트 기법 등이 있으며 바디아트 표현기법 중 가장 넓게 사용되는 기법이다.

(2) 오브제 기법

오브제란 물건, 물체, 객체를 의미하는 낱말로 ‘앞으로 던져진 것’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⁹⁶⁾ 일반적으로 객체 또는 대상이라는 의미를 갖는 오브제의 사전적 정의는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인식되는 것이다.⁹⁷⁾

오브제는 기법이나 재료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며 새로운 조형개념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소재의 확장과 디자인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었다.⁹⁸⁾ 몸에 바르고 붙일 수 있는 오브제로 사용하는 재료 또한 예술가의 표현 욕구

94) 민수영, 최희자(2010). “바디페인팅에 응용한 표현주의 회화기법 연구”, *기초조형학회*, 11(6), pp.231~237.

95) 안성준, 정재윤(2011). *op. cit.*, pp.283~293.

96) 강형구(2010). “아트퍼니처와 오브제의 상관관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2.

97) 박찬국(1995). 「현대미술의 기초개념」, 서울: 재원, p.186.

98) 김금란(2010). “오브제바디아트의 표현기법에 따른 심리적 반응 연구”,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61.

와 문제의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적절히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재료를 찾아 나선 결과이며,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와해하는 예술의 산물이다.⁹⁹⁾ <그림 9>는 신문지를 몸에 부착하여 본래의 물체로부터 관습적 용도와 의미를 제거하였고¹⁰⁰⁾ 질감표현 또한 나타낼 수 있었다. 또한 오브제 기법 중 3D 조형물이나 보형물(Prosthrtics)을 바디와 결합하여 입체적이고 예술적 요소를 더욱 부각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0)¹⁰¹⁾ 이렇듯 오브제를 창조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표현되며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나 기대효과도 매우 다양해졌다.¹⁰²⁾

이처럼 오브제 기법은 폭넓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표현의 범위를 넓혀 보다 창조적인 이미지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법이다.

(3) 프로젝션 맵핑 기법

프로젝션 맵핑은 빛 또는 영상의 투사를 의미하는 프로젝션(Projection)과 가상의 삼차원 물체의 표면에 세부적인 질감의 묘사를 하거나 색을 칠하는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법으로 환영적 영상 효과를 위해 영상이나 이미지를 가상공간이 아닌 실제 공간의 건물이나 물체의 표면에 투사하는 특수한 영상 기법이다.¹⁰³⁾ 물리적 신체를 확장하거나 동시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비디오 프로젝션 기술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인지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해진다.¹⁰⁴⁾

99) 고충환(2006). 「무서운 깊이와 아름다운 표면」, 서울: 중앙M&B(랜덤하우스중앙), p.13.

100) 강형구(2010). op. cit., p.32.

101) 김연아(2015). op. cit., p.13.

102) 박미정(2020). op. cit., p.22.

103) 문정혜, 김현주(2014). “인체 실루엣 기반 프로젝션 맵핑 작품 제작 연구“, *한국영상학회*, 12(2), pp.85-99.

104) 이재운(2016). “증강현실 퍼포먼스 디지털 공연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0.

바디페인팅에서 프로젝션 맵핑 기법은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인체에 투영시켜 마치 바디에 그림을 그린듯한 느낌을 주는 방법으로¹⁰⁵⁾ 이 기법으로 바디페인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디에 투영할 디지털 이미지를 제작한 후 어두운 공간에서 모델을 세운 후 촬영한 영상을 투영하여, 작품을 완성시키는 것이 시각적으로 더 집중이 잘 될 수 있다.(그림 11)¹⁰⁶⁾ <그림 12>와 같이 투영되는 프로젝션 맵핑의 이미지에 따라 표현하고자 하는 바디아트의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프로젝션 맵핑 기법은 가상의 이미지를 바디에 투영시켜 다중화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해주는 기법이다.

(4) 디지털 기법

과학적 기술의 발전은 예술적 표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표현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21세기의 디지털 기술은 디지털 아트라는 새로운 예술 분야를 탄생시켰고, 고전적인 예술을 디지털화로 변화시켰다.¹⁰⁷⁾

디지털 아트는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되는 작품을 이루는 예술형식이다. 기술적으로 컴퓨터 기술이 핵심이 되며 디지털 페인팅은 2, 3차원의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창출하며 정지된 화상의 미적 개념을 다룬다.(그림 13) 이는 인간의 상상력을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하여 컴퓨터로 보여주는 작업을 뜻하며¹⁰⁸⁾ 인체에 간접적으로 바디아트를 나타내며, 나아가 모델과 디자인 모티브 모두 디지털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표현 기법에 비해 영

105) 박미정(2020). op. cit., p.24.

106) 최경옥(2009).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 아트 연구: 바디페인팅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7.

107) 최경옥(2009). Ibid. p.47.

108) 박천신(2008). 「디지털 아트 디지털 페인팅」, 서울: ㈜한연, p.16.

역의 폭이 넓다.¹⁰⁹⁾

<그림 14>는 미국의 포토그래퍼인 하워드 샷츠(Howard Schatz, 1940 - 현재)의 (바디 매듭, Body Knots)라는 작품으로 신체와 디지털 기법을 이용하여 비틀고, 꼬고, 뭉치고, 흩어지고 재조합하여 신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이같이 디지털 기법은 순수 예술의 표현 한계를 극복하며 모든 예술을 아울러 통합적으로 표현 가능한 기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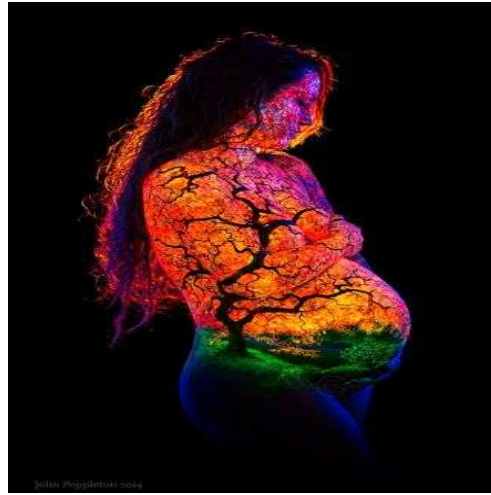
따라서 바디아트는 색채와 선을 사용하여 묘사로 표현되는 회화적 기법과 다양한 재료를 부착하여 표현하는 오브제 기법, 빛 또는 영상을 투사하여 표현하는 프로젝션 맵핑 기법,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디지털 기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표 3>은 바디아트의 표현기법을 정리한 것이다.

109) 김연아(2015). op. cit., p.15.



<그림 7> Audtte sophia
 <Airbrush Body Art>, Unknown
 출처:<https://www.audettesophia.com/airbrushbody/>
 (2019.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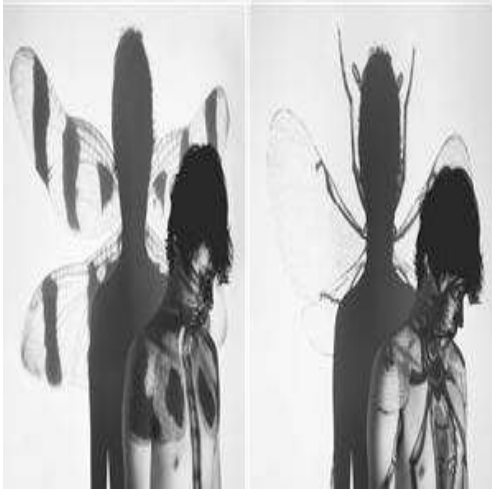
<그림 8> John Poppleton
 <Autumn Gardens>, 2014
 출처:<https://www.jpunderblacklight.com/>
 (2019.11.14.)



<그림 9> Howard Schatz
 <Beauty Study #1393>, 2018
 출처:<https://howardschatz.com/beauty/body-body/>
 (2019.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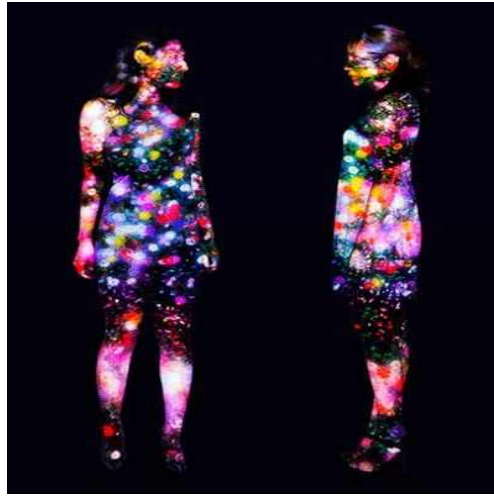
<그림 10> VANESSA DAVIS
 <The Gold Mermaid>, 2019
 출처:<https://www.instagram.com/p/B3mxMpenDa4/>
 (2019.11.23.)



<그림 11> Diana Cermakova

<Metamorphose serise>, 2014

출처:<https://www.flickr.com/photos/129578281@N07/15993257856/in/photostream/>
(2019.11.24.)



<그림 12> TeamLab

<暗闇の中で花が咲き亂れるデジタルアート>, 2016

출처:<https://www.pinterest.co.kr/pin/356910339223183199/>
(2019.12.04.)



<그림 13> 김준

<Party-louis vuitton>, 2007

출처:<https://www.kimjoon.net/2007?lightbox=imagepau>
(2019.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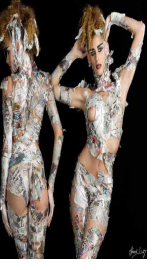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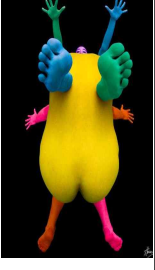


<그림 14> Howard Schatz

<Body Knots #272 >, 2000

출처:<https://howardschatz.com/human-body/body-knots/>
(2019.12.19.)

<표 3> 바디아트의 표현기법

구분	표현방법	기법	재료	바디아트 사례	
회화적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어브러쉬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물감을 사용하여 그림을 표현. UV 물감과 블랙 라이트를 이용하여 발색을 선명하게 표현 	정밀묘사 에어 브러쉬 기법 UV 물감과 블랙 라이트 액션페인팅 기법	수성물감, UV 물감, 브러쉬, 에어브러쉬, 콤프레셔, 블랙 라이트		
오브제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브제나 3D 조형물 오브제를 만든 후 모델의 신체에 결합하여 표현 	질감 표현 오브제 부착 기법 오브제 결합 기법	3D 조형물, 완성된 오브제		
프로젝션 맵핑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델의 움직임이나 현상에 맞춰서 프로젝션 이미지를 맵핑하여 표현 	이미지 투영 기법 바디맵핑 기법	프로젝트 맵핑 이미지		
디지털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체를 다 각도로 만든 후 디지털 이미지를 맵핑하여 표현 	바디합성 바디맵핑 디지털 이미지	디지털 프로그램 맵핑 이미지		

Ⅲ. 현대예술에 나타난 엔트로피 특성

앞 장에서 살펴본 엔트로피의 개념과 관점에 따른 이론적 배경과 엔트로피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엔트로피의 측면을 예술의 장르, 재료, 주제 등의 다양성과 해석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예술적 측면, 작품이 전달하는 정보의 유용함과 복잡성의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정보적 측면, 그리고 질서와 무질서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의 필요성과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작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점에서 비평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본 장에서는 엔트로피 원리가 실제로 현대예술의 대표적인 분야인 회화, 조각, 건축의 다양한 작품에 적용되어 연구된 선행 사례들을 바탕으로 엔트로피와 연계하였을 때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분류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본 연구자가 앞서 분류한 생산자 및 수용자 관점과 연결하여, 예술적 측면의 엔트로피 과정에서 나타난 예술적 다양화인 다양성과 작품의 해석적 의미의 다양화로서의 다의성, 정보적 측면에서는 복잡한 정보가 가지는 엔트로피적 의미를 복잡성, 엔트로피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유용성으로, 비평적 측면인 비정형의 방식을 활용한 비평적 접근을 비정형과 질서와 무질서의 상호 공존과 균형 관점의 필요성에서 질서와 무질서로 도출하였고 이를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예술적 측면

본 연구자는 예술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현대예술의 세 분야 회화, 조각, 건축 작품에 나타난 엔트로피 특성을 도출하고, 도출한 엔트로피 특성을 생산자의 관점으로서는 형태에 의한 다양성, 와해에 의한 다양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수용자의 관점으로서는 자율성에 의한 다의성, 상대성에 의한 다의성으로 분류하였다.

1) 다양성

현대예술 현상 전반은 다양성을 주제로 내세워 여러 예술 현상에서 표출되며 모든 것을 허용하는 임의성이나, 무조건적인 획일성을 부정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¹¹⁰⁾ 이에 작가는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를 외부환경과 수용자들에 의해 이동 및 확장시키고, 이와 같은 현상은 현대 예술에서 흔히 일어나는 의사소통 방법의 한 가지일 수 있으며 생산자의 관점에서 엔트로피를 극대화된다.

‘계단을 내려가는 누드 no.2(nu descendant un escalier n°2)’(그림 15)는 움직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기존의 작품 체계를 뛰어넘어 형태를 확장하여 다양성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¹¹¹⁾ 이는 뒤샹의 자유로운 창조 철학과 기존의 체계에 대한 지양을 읽어낼 수 있다. 모더니즘 미술의 상징적 작품이 된 이 작품은 그 당시 충격적인 형태와 묘사로 인해 미술사에도 개혁을 일으킬만한 작품으로써 확장적 역할을 하였다.

<그림 16>의 ‘벨베데르 토르소의 주조(Moulage du Torse du Belvedere)’

110) 권태일(2006). “뒤샹의 “재현:과” 표현“개념으로 본 현대예술의 다양성 문제 - 현대회화와 건축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 *한국동서철학회*, 40, pp.283-307.

111) 캐롤 스트릭랜드 저, 김호경 역(2013). op. cit., p.266.

는 팔과 다리가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토르소’가 하나의 미술 명칭으로 자리 잡게 만든 작품으로 미술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형태뿐만 아니라 조각의 표면을 활용한 방식에도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의 유연한 피부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 고대의 조각가들은 미세하고 인공적인 광택을 대리석에 표현해낸 것이 아니라 내추럴리즘(Naturalism)을 바탕으로 조각에 인간의 피부를 현실감 있게 나타내었다.¹¹²⁾ 이를 통해 엔트로피 현상은 형태와 표면 질감의 확장성에서 관찰될 수 있고, 이러한 확장성은 현대예술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특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건축가 찰스 무어(Charles Moor, 1925 - 1993)의 ‘이탈리아 광장(piazza d’italia)’은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장소로 전통적인 고전건축의 구성 요소들을 모방하여 요란하게 치장하는 재현적인 방식을 통해, 잠재된 이탈리아 전통의 다양한 의미를 불러일으켰다(그림 17).¹¹³⁾ 전체적으로 부조화를 이루는 이 건축물은 형태적 모순과 역설로 교란되고 깨지고, 조각난 단위들이 합쳐져서 혼성구조물을 이룬다.¹¹⁴⁾ 이처럼 수용자에게 형태적, 예술적 ‘다양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예술의 창조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다양성의 특성을 엔트로피 현상과 접목할 수 있고, 이는 수용자에게 순기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인물을 똑같이 재현해야 하는 것이 과거의 전통적인 회화 장르였다면 <그림 18>의 ‘우는 여인(Weeping Woman)’ 그림에서 표현된 눈은 우리가 현실에서 지각하는 것과는 다른 각도의 눈을 보여줌으로써 단일한 고정적 시점이 유지해 온 재현적 질서를 와해시켜 무질서를 생기게 한 것이다.¹¹⁵⁾

112) Steven J. Cody(2013). Rubens and the “Smell Of Stone”: The Translation of the Antique and the Emulation of Michelangelo, *Arion: A Journal of Humanities and the Classics*, 20(3), pp. 39-55.

113) 쿤테일(2006). op. cit., pp.283-307.

114) 프랑크 솔츠, 쿤터 레겔, 요하네스 키르헨만, 하랄트 쿤테 저, 황종민 역(2011). 「현대미술 보이지않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 미술과문화. p.187.

115) Rudolf Arnheim(1996). “From Chaos to Wholenes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4(2), pp.117-120.

작가는 추상적 형태를 강조하기 위하여 기하학적 모양을 재창조하였고, 생산자 관점에서 다시점을 통해 현실과 예술의 경계를 와해하였다. 이처럼 와해를 통한 다양성 시도는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의미를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엔트로피 현상은 예술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스미스슨은 1m 높이의 사각 철제 상자 속에 조각난 경사진 거울 면들의 조합으로 역-피라미드를 형성하는 조각품이다(그림 19). 반복되는 거울 반사와 그로 인한 소실점의 해체를 통해 환영을 순환시키며, 이는 마치 투사된 필름처럼 비-물질적으로 보이고 거울에 비친 미로의 체계로¹¹⁶⁾ 완성된 조각품이 아닌 소실점의 해체를 와해하여 예술에는 언제나 변할 수 있고 와해될 수 있는 역동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적 측면에서 엔트로피는 자연스럽게 출현하는 하나의 에너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스미스슨의 건축물 인<그림 20>의 ‘나선형 방파제(Spiral Jetty)’는 그가 엔트로피에 매료되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증거였다.¹¹⁷⁾ 특정 장소를 대지미술(Earthwork)로 포섭하며 자신의 예술 영역을 확장 시킨 작품 중 하나이다. 아이디어도 없고, 개념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구조도 없고, 추상도 없는 그곳은 증거의 현실성 속에 통합될 수 있었다. 또한, 작품 그 자체가 나타내는 ‘순수한 다양성(sheer multiplicity)’으로 인해 엔트로피의 불가피함을 나타낸 작품이다.¹¹⁸⁾ 이는 생산자 관점에서 작가의 사상이나 표현 방식은 끊임없는 와해와 융합을 거쳐서 새로운 창작 형태의 작품들이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엔트로피적 무질서가 극대화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116) 김정현(2015). 로버트 스미스슨의 울트라모던 시공간 개념과 동시대적 의의, *현대미술사연구*, 38, pp.7-32.

117) Robert Smithson, <https://holtsmithsonfoundation.org/spiral-jetty> (검색일자: 2019.12.22.).

118) K Ziarek (2007). Review of Gary Shapiro, *Archaeologies of Vision: Foucault and Nietzsche on Seeing and Saying*, *Bryn Mawr Review of Comparative Literature*, 6(1), pp.1-14.



<그림 15> Marcel Duchamp <nu descendant un escalier n°2> 1912
출처:김영은(2013). p.631.



<그림 16> Unknown
<Moulage du Torse du Belvedere>
출처: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491612&cid=46704&categoryId=46704
(2019.12.27)



<그림 17> Charles Moor
<piazza d'italia>, 1978
출처:프랑크슬츠(외3명). 황종민역(2011). p.187.



<그림 18> Pablo Picasso
<Weeping Woman>, 1937
출처:http://theartin.net/product/%EC%9A%B0%EB%8A%94-%EC%97%AC%EC%9D%B8/2687/
(2020.01.07.)



<그림 19> Robert Smithson
<four sided vortex>, 1965
출처:https://www.artbase.com/catalog/artwork/39235/
Robert-Smithson-Four-Sided-Vortex
(2019.12.22.)



<그림 20> Robert Smithson
<Spiral Jetty>, 1970
출처:장 루이 프라델, 김소라(2004). p.139.

2) 다의성

다의성(多意性)은 다양한 방식에 의한 구조로부터 이탈, 의미 대칭 등 획일적이고 단일적 의미에서 다의적으로 여러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며¹¹⁹⁾ 과거의 전통적 예술작품들이 수용자의 측면에서 완결된 구조¹²⁰⁾를 특징으로 한다면, 현대예술은 열린 구조¹²¹⁾를 가지며 수용자가 자유롭게 개입이 되어 하나의 작품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도록 변화 되었다.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 - 2008)의 ‘드 쿠닝의 지워진 드로잉(Erased de Kooning Drawing)’으로 드쿠닝의 드로잉을 지우개로 지워서 새로운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냈다(그림 21).¹²²⁾ 라우센버그는 형태, 인물, 공간적 환영 뿐만 아니라 드 쿠닝의 의도, 표현 그리고 이미지를 지우개로 지웠으며, 이렇게 지워진 흔적은 작품의 미적 구성에 반하며 추하고 무질서해 보인다.¹²³⁾ 하지만 다의성 측면에서 작가는 ‘그리다’라는 행위가 아닌 ‘지우다’라는 행위 즉 생소화 수법을 활용하여 수용자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관심을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수용자에게 해석의 자율적 주도권을 전가하였다는 점에서 다의성의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조각가 안토리 고펠리(Antony Gormley, 1950 - 현재)가 언급한 “사람들은 감각적 미술에 질려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표피적인 자극이 아

119) 박이문(2016). 「예술철학」. 서울: 미다스북스. p.425.

120) 아른하임은 그의 저서 「엔트로피와 예술」에서 예술품의 경우 구조 골격의 가치 및 주된 자극은 본디 인간적 조건에서 생겨나는데, 이 인간성의 질서 유형들을 구체화한 것이 예술품이라고 언급하였다.

121) 하지만, 위와 같은 높은 질서 수준은 좋은 예술작품의 필요조건일지는 몰라도 아직 충분조건은 아닌 그의 주장을 통해 예술을 구조적으로 한정시키기보다는 자유로운 변화가 결국 그 예술에 의미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122) 데브라J.드위트, 랠프M.라만, M.캐스린 실즈 저, 조주연, 남선우, 성지은, 김영범 역(2014). 「게이트웨이 미술」, 경기도:(주)이봄. p.174.

123) 진휘연(2010). “바타이유의 비정형(formless): 비형상에 대한 현대미술이론의 고찰과 한계”, *미술사학연구회*, 34, pp.103-123.

니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관람자가 내면적으로 충격을 받고 자기 성찰과 신체 체험 의식을 부각시키는 점이 특징이다.¹²⁴⁾ 설치작업 ‘아시안 필드(Asian Field)’ <그림 22>에서는 사람의 형상을 다루며 세상에서 정지한 오브제를 표현하였다. 작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람자의 내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¹²⁵⁾ 이러한 조각 작품들은 관람자의 반응에 의해 완성되며 관람자 스스로 자신의 반응에 대해 자율적으로 의문을 던지도록 요구하는 것이다.¹²⁶⁾ 이는 작가의 개방적 열린 구조로 인한 작품 실현을 통해 수용자에게 자율적 해석적 개입을 허용하며 고정된 메시지가 아닌 엔트로피를 나타내는 시각적 충격을 통해 수용자에게 심도 있는 인간 감성에 대한 의미의 확장을 가져온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베르나르 추미(Bernard Tschumi, 1944 - 현재)의 ‘라 발레트 공원(La Parc de la Villette)’(그림 23)이라는 현대건축물이다. ‘건축과 이벤트’라는 추미의 철학 이론은 건축가가 설계하는 대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나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용도 및 사용법의 정의를 내리고, 확립하는 방식이다.¹²⁷⁾ 즉, 건축가가 만드는 공간 자체는 의미가 없고, 대신 생산자가 창조한 그 공간 안에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용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건축가의 의도를 최대한 배제하고 우연한 현상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건축물들은 수용자에 의해 용도별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사용되는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다의성의 특징 또한 내포한다.

러시아의 추상화가 카지미르 말레비치(Kazimir Malevich, 1878 - 1935)는 미술가들에게 사물을 묘사하는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였고, 이에

124) 전영백(2016). 「코끼리의 방」, 경기도: 두성북스, p.235.

125) 데브라J.드위트, 랄프M.라만, M.케스린 실즈 저, 조주연, 남선우, 성지은, 김영범 역(2014). op. cit., p.272.

126) 샬럿 본햄 카너, 데이비드 하지 저, 김광우, 심희섭, 김호정 역(2014). 「컨템퍼러리 아트 북」, 서울 : 미술문화. p.16.

127) 심길재, 이동연(2007). “물려받는 것 (傳承)’에 바탕을 둔 현대건축에 관한 연구: 지엔니 바티모 (Gianni Vattimo) 의 해석학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23(7), pp.137-144.

따라 형태와 색채들을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추상으로 만들었다.¹²⁸⁾ <그림 24>의 ‘검은 사각형(Black Square)’은 흰 바탕 위의 검은 정사각형과 같은 극단적 단순화 성향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갖가지 초기 장식물들과 대중적인 공예품, 가구와 일용품에 적용되어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¹²⁹⁾ 건축가 루드비히 미스 반 데에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 1886 - 1969)가 말한 것처럼 “적은 것이 많은 것(Less is more)”¹³⁰⁾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 작품을 통해 단순한 작품일 지라도 해석이 시대와 환경의 수용자들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다의적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의미의 생성 차원에서 엔트로피 현상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관람자의 시각과 입장을 강조한 미국의 조각가인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 1931 - 2018)는 자신의 작품을 관람자의 관점에 위치시켰다. 작품을 작가의 의도에서 관람자 인식의 장(site)으로 옮겨놓음으로써 수용자는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하면서 똑같은 작품의 구조가 그 배치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지각을 체험할 수 있다. 그는 ‘무제: 세 개의 L자 빔(Untitled: Three L-Beams)’(그림 25) 작품을 통해 기둥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이의 공간 설정에 따라 전혀 다르게 만들었다. 형태란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의미가 발견되는 것이며, 특정한 장소와 방향에서 다른 장소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달리 지각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³¹⁾ 이를 통해 장소와 방향에 따른 상대적 수용해석이 가능한 다의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현대예술 조각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대예술의 한 분야인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에서 역사·문화적 맥락의

128) 캐롤 스트릭랜드 저, 김호경 역(2013). op. cit., p.254.

129) 루돌프 아른하임 저, 오용록 역(2017). op. cit., p.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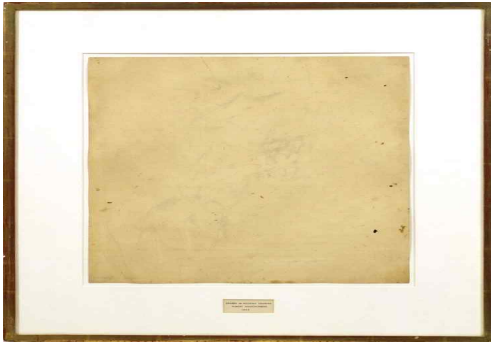
130) 신석규(2009). “아이코노그래피 차원의 미니멀리즘 경향과 해체적 실험성 표현 유형 연구”,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5, pp.33-50.

131) 진영백(2019). 「현대미술의 결정적 순간들: 전시가 이즘ism을 만든다」, 경기: 한길사, p.382.

중요성과 생태 환경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고, 창조는 환경적 맥락 속에서 진행될 수 있다.¹³²⁾ 현대 건축에서 환경에 따른 상대적 다의성을 엿볼 수 있는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 - 1965)의 ‘유니테 다비타시옹(Unité d’Habitation)’<그림 26>은 집합 주거의 이론적 원형인 건축물로써 세계 최초의 아파트이자 오늘날 현대식 아파트의 모태가 된 건물이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그 당시의 건축계는 종래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작품은 건축하는 과정에서 ‘정신병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였다. 동일한 작품에 대해 시대에 따른 수용해석의 변화는 추상적이지만 분명한 엔트로피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예술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다양화와 상호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4>는 엔트로피의 예술적 측면에 표현된 현대예술 사례를 분류한 것이다.

132) 최인규(2014). “도시디자인에서 역사·문화 생태적 맥락의 수용체계 및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55.



<그림 21> Robert Rauschenberg
 <Erased de Kooning Drawing>, 1953
 출처: 휘트니미술관·리사 필립스 외 저, 송미숙 역(2019). p.132.



<그림 22> Antony Gormley
 <Asian Field>, 2003
 출처 : 테브라J.드위트, 랠프M.라만, M.캐스린 실즈 저, 조주연, 남선우, 성지은, 김영범 역(2014). p272.



<그림 23> Bernard Tschumi
 <La Parc de la Villette>, 1982-1998
 출처:길성호(2003). p.78.



<그림 24> Kazimir Malevich,
 <Black Square>, 1915
 출처:https://blog.naver.com/ash6379?Redirect=Log&logNo=221755714148
 (2019.12.28.)





<그림 25> Robert Morris,
 <Untitled: Three L-Beams>, 1965
 출처: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oeuning&logNo=221700893922&referrerCode=0&searchKeyword=%EC%A1%B0%EA%B0%81%EA%B0%80
 (2019.12.30.)



<그림 26> Le Corbusier
 <Unité d'Habitation>, 1952
 출처:http://blog.hwenc.co.kr/172
 (2019.12.05.)

<표 4> 엔트로피의 예술적 측면에 표현된 현대예술 사례

구분	현대예술	의도	이미지 표현	작품의 특징		작품 분석		엔트로피 특성	
예술적 측면	다양성		움직임에 대한 고정관념 타파	중첩	신체의 도구화	⇒	종래의 일반적인 작품 체계를 뛰어넘어 형태의 확장성을 표현	⇒	형태에 의한 다양성
			형태화 질감의 확장	변형	신체변형 및 확장				
			정체성을 형태적 모순과 역설로 나타냄	모방 및 재현	부조화				
			재현적 질서 와해	다시점 및 착시	기하학적	⇒	예술의 형식, 위치, 경계의 와해를 표현	⇒	와해에 의한 다양성
			비-물질적으로서 환영을 순환시킴	와해	소실점의 해체				
			갤러리 체제를 벗어나려는 시도	작품 자체가 가지는 순수한 다양성을 내포	개방성 자유성				
	다의성		미술가의 표현 의도, 이미지 등을 고의로 삭제	생소화 수법	내면세계 표현	⇒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표현	⇒	자율성에 의한 다의성
			내면적 충격 추구	정지한 오브제 표현	수용자의 자율적 해석				
			수용자의 자율적 공간 활용	효율적 배치	의미 창조 및 배제				
			사물 묘사에 대한 해방 추구	단순성	단순성 추상성	⇒	환경에 따른 작품수용의 의미 차이 표현	⇒	상대성에 의한 다의성
			수용자의 관점에 위치	지각 체험	장소와 방향에 따른 상대적 수용해석				
			관습 타파	최조의 건축 기능을 확장	환경에 따른 상대적 다의성				

2. 정보적 측면

본 연구자는 회화, 조각, 건축 작품을 정보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엔트로피 특성을 도출하고, 도출한 엔트로피 특성을 생산자의 관점으로서는 노이즈에 의한 복잡성, 능동성에 의한 복잡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수용자의 관점으로서는 리던던시에 의한 유용성, 효율성에 의한 유용성으로 분류하였다.

1) 복잡성

복잡성은 분리될 수 없도록 연결된 이질적인 요소로 짜인 복합체로 실제로 우리의 현상 세계를 구성하는 사건, 행동, 상호작용, 반작용, 결정, 우연한 현상까지 포함한다.¹³³⁾ 형식의 가치는 복잡성의 정도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¹³⁴⁾

시각주의 예술의 선구자인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 - 1987)의 ‘메릴린 먼로 이면화(Marilyn Diptych)’(그림 27)로 상업용 인쇄기술인 실크스크린을 이용하여 순수 미술에 처음 도입하였고 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간섭을 없애 ‘조립 공정’처럼 보이는 효과를 더하고 이에 이미지, 생산품, 모방작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었다. 이때 사용한 강력하고 인공적인 색채는 대중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색상을 흉내 내기를 위한 방편이었다.¹³⁵⁾ 이는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요소들에 의한 엔트로피 현상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시각화하여 복잡성을 제시하였고, 시각적 노이즈를 주요 기제로 사용하여 상업예술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작

133) 김무경(2013). “복잡성 패러다임’으로의 :초대 에드가 모랭, 「복잡성 사고입문」(1990)”, *한국문화사학회*, 14. pp.263-281.

134) 허버트 리드 저, 입산 역(2006). 「예술의 의미」, 서울: 에코리브르. p.32.

135) 월 콤포츠 저, 김세진 역 (2014). 「발칙한 현대미술사」, 서울:(주)알에이치코리아. p.422

품의 고유한 작업 방법으로 인해 수용자에게 작가의 의도 즉 일종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카오스적인 시각적 노이즈는 엔트로피를 잘 나타내는 역할을 하였다.

일본의 설치미술가 쿠사마 야요이(くさまやよい, Kusama Yayoi, 1929 - 현재)의 작품은 미니멀리즘적 측면에서 작은 점을 섬세하게 나타내어 압도적인 우주의 무한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¹³⁶⁾ <그림 28>의 작품을 통해 관람자들을 환각으로 끌려들어 갈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며 이는 체험의 기록에서 경험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¹³⁷⁾ 복잡하고 예상 불가능한 구조가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며, 생산자에 의해 창조된 예측 불가능함으로 인해 관객들에게 주체적인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엔트로피의 예측 불가능하고, 불규칙적인 노이즈 요소들이 오히려 정보 전달에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장 누벨(Jean Nouvel, 1945 - 현재)의 건축물 ‘파리의 까르띠에 재단 현대 미술관(Fondation Cartier pour l’art contemporain)’으로 건축의 비-물질화를 투명성을 가진 유리나 금속물 반사 재질을 주로 건물 외피에 적용하여 공간의 내·외부 경계의 구분을 없애 내부로 유입시키고 가상적 공간을 구현하였다(그림 29).¹³⁸⁾ 여러 겹의 울타리가 그 투명성의 질적인 부분보다 희뿌연고 텅텅이 지나치는 듯한 효과로 인해¹³⁹⁾ 건축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시각적 복잡성을 생산하였고, 자신만의 건축양식으로 의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카오스적 엔트로피는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136) 크리스토퍼 마스터스 저, 유안나 역(2015). 「위대한 현대미술가들 A to Z」, 서울:시그마북스. p.106.

137) 샬럿 본햄 카너, 데이비드 하지 저, 김광우, 심희섭, 김호정 역(2014). op. cit., p.197.

138) 윤득근, 김개천(2015). “현대 건축 공간에서 날난 미장아범적 표현 특성 - 장누벨의 건축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 pp.315-325.

139) 헬 포스터 저, 김정혜 역(2014). 「콤플렉스: 미술을 소비하는 현대 건축의 스펙터클」, 서울: 현실문화, p.97.

미국의 극사실주의 화가 척 클로스(Chuck Close, 1940 - 현재)는 전통 회화의 방식에 개념적 시스템을 적용했다.¹⁴⁰⁾ 패턴에서 단위로 반복되는 것을 모티프라고 하는데 이는 작품을 통일시키고 생산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색채, 질감, 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동적 복잡성을 준다. 작품 ‘자화상(Self-Portrait)’(그림 30)에서 표현된 개개의 셀은 전체 이미지를 세분하는 격자를 통해 배치되며 뒤로 물러서서 거대한 캔버스를 볼 때와 가까이서 볼 때는 매우 다르다.¹⁴¹⁾ 이는 종래의 고정관념을 타파하며 생산자에 의해 능동적으로 통제되어 표현된 방식으로 작품에서 엔트로피적 무질서를 극대화시키며, 이를 통해 거리상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이미지를 창조하여 생산자의 의도 및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능동성을 가진 복잡성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림 31>은 ‘5개의 흰색 형태와 2개의 검은 변형 III의 별자리(Constellation with Five White Forms and Two Black, Variation III)’라는 작품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시각 형태들이 놓여있다. 이는 단순한 구성을 하고 있지 않지만, 화면 안에서 몇 개의 형태들이 상호 간의 시각적 무게와 거리의 관계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즉 명확히 설명할 수 없고 인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지만¹⁴²⁾ 이는 미 확정적이며, 우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보적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고-엔트로피로 향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지점(Optimal Complexity)’¹⁴³⁾을 찾아가고, 생산자는 관객

140) 뉴욕현대미술관, 열화당 공동발행(2004). 「모마 하이라이트 350점의 뉴욕 현대미술관 컬렉션」, 경기도:열화당. p.274.

141) 데브라J.드위트, 랠프M.라만, M.캐스린 실즈 저, 조주연, 남선우, 성지은, 김영범 역(2014). op. cit., pp.143-145.

142) 허나영(2008). op. cit., pp.103-122.

143) 캐나다의 심리학자 다니엘 벨라인(Daniel Ellis Berlyne, 1924 - 1976)으로부터 복잡성과 시각적 선호도와 관계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작품이 나타내는 복잡성으로 인해 벨라인이 논한 선호도, 즉 매력은 관객이 만끽할 수 있는 풍부한 정보인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성의 증가는 고-엔트로피로 향하게 되고 결국 관객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벨라인이 언급한 ‘최적의 지점(optimal complexity)’은 엔트로피 측면에서 관객의 향유가 피로감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시점이라 봐도 무방하다.

에게 피로감이 아닌 긴장감과 매력을 전달하면서 능동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정보에 미적 가치를 더한 현대예술 조각작품으로 볼 수 있다.

모리스의 작품 중 하나인 ‘정육면체 거울(Mirror cubes)’로 시각적으로 잔디와 나무들을 반영하여, 풍경의 연속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반영된 이미지들은 풍경의 실재가 아니므로 환경으로부터 구분되며, 환경이 조각을 둘러싸는 테두리 또는 배경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과 풍경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긍정적인 실재성을 잃게 되었으며 비-풍경에 비-건축적인 현상을 지니게 되었다(그림 32).¹⁴⁴⁾ 즉, 생산자는 임의성과 우연성을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자연에 배치한 작품이다. ‘임의성’에서¹⁴⁵⁾ 알 수 있듯이, 정보란 메시지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누군가의 선택의 자유를 측정하는 것으로 선택의 자유가 커질수록, 정보도 많아지고, 불확실성도 커진다. 고-엔트로피의 흐름 속에서 복잡성은 비례하여 커지고, 더 많은 정보를 내포할 수 있다.¹⁴⁶⁾ 결국에는 생산자에 의해 능동적으로 창조된 임의성으로 인해 복잡성과 엔트로피 그리고 정보는 모두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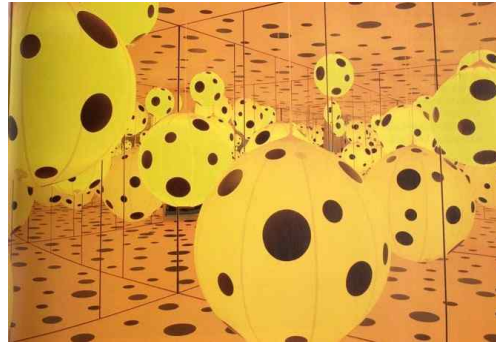
144) 이봉순(2008). “포스트모던시대 조형예술의 장소성과 환경”, *한국조형예술학회*, 13, pp.30-47.

145) Warren Weaver(1953). “Recent contributions to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ETC: A Review of General Semantics”, *Institute of General Semantics*, 10(4), pp.8.

146) 안신영(2019). op. cit., p.49.



<그림 27> Andy Warhol
 <메릴린 먼로 이면화>, 1962
 출처:<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912261166013521>
 (2019.11.24.)



<그림 28> くさまやよい, Kusama Yayoi
 <Dots Obsession - Infinty Mirrored Room>, 2008
 출처:살럿 본햄 카너, 데이비드 하지, 김광우, 심희섭, 김호정역(2014). p.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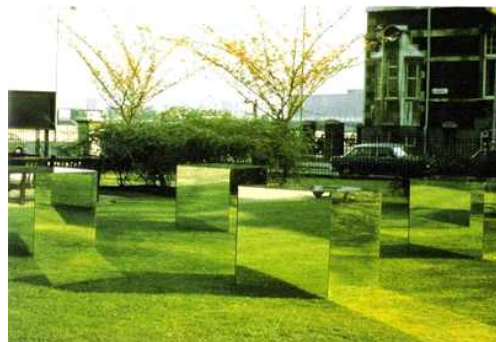
<그림 29> Jean Nouvel
 <Fondation Cartier pour l'art contemporain>, 2007
 출처:<https://dominick.co.kr/contentsDetail/detail/125architecture>
 (2019.11.28.)



<그림 30> Chuck Close
 <Self-Portrait>, 1997
 출처:켈리 그로비에, 윤승희 역(2017). p.89.



<그림 31> Hans Arp
 <Constellation with Five White Forms and Two Black, Variation III>, 1932
 출처:<https://www.guggenheim.org/artwork/258>
 (2020.02.07.)



<그림 32> robert morris
 <Mirror Cubes>, 1965
 출처:<https://www.pinterest.co.kr/pin/454933999854036874/>
 (2019.11.28.)

2) 유용성

정보 측면의 유용성은 수용자가 실용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가 아닌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전제된, 어떤 가치 실현의 도구가 아닌 작품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¹⁴⁷⁾ 즉 정보의 유용성은 수용자의 필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스위스의 미술가 소피 토이버 아프르(Sophie Taeuber-Arp, 1889 - 1943)는 매우 단순한 형태들이 수용자의 마음에 동화적 상태로 매우 강하고 복잡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며,¹⁴⁸⁾ 이에 <그림 33>은 혼란스러운 색감과 무의미한 선들의 배치로 인한 무질서의 상태로 질서보다 잠재적이고, 불확실한 무질서의 상태가 작가의 의도를 수용자에게 더 유용하게 전달한다. 엔트로피 현상과 정보는 비례 관계적이기 때문에 혼란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무질서적 작품 구성 요소들에 의해 엔트로피 현상이 증가하면서 정보적 측면에서 리턴던시에 의한 유용성의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현대예술 조각품 중 하나인 ‘가장자리(Edge)’(그림 34)는 지극히 사적이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아의 상태를 다룬다. 고흐의 인체 조각은 몸 틀, 즉 ‘바디 케이스(body case)’라고도 불리는데, 그는 작품에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자 “몸은 특정한 사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삶이 머무를 수 있는 잠재적 장소”라고 보았다.¹⁴⁹⁾ 작가는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정보를 무질서하고 리턴던시적 혼란으로 이미지로 나타내었고, 작품 해석에 대한 임무는 수용자에게 전달시킴으로써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의미는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낸시 홀트(Nancy Holt, 1938 - 2014)가 만들어낸 ‘태양 터널(Sun Tunnels)’

147) 박이문(2010). 「예술과 생태」. 서울: 미다스북스. p.44.

148) 루돌프 아른하임 저, 오용록 역(2017). op. cit., pp.97-99.

149) 전영백(2016). op. cit., p.243.

(그림 35) 건축물이다. 4개의 원통 파이프가 X자 형태로 배열되어 있으며 작품의 가운데 서 있으면 터널을 포함한 환경 전체를 볼 수 있고,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수용자를 둘러싸며 터널 양 끝과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한정된 환경을 볼 수 있다.¹⁵⁰⁾ 장소 특정성을 가진 그녀의 작품에서는 단어와 사진은 예술이 아니라 기억의 흔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수용자들이 직접 가서 실제 작업을 보도록 유도하였다.¹⁵¹⁾ 추상적 시간 개념을 건축물에 적용하여 무의미하고, 잠재적으로 보이는 구멍들을 보는 수용자들에 의해 작품에 의미가 부여된다. 수용자들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 햇빛은 무질서를 생산하지만, 작가의 의도를 깨닫게 됨으로써 정보의 유용성을 수용 과정에서 관찰할 수 있다.

프랑스의 화가 및 조각가인 한스 아르프(Hans Arp, 1886 - 1966)의 <그림 36>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구성된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그는 손으로 찢은 종잇조각을 바닥에 떨어트린 후 떨어진 그대로 종이에 배열하는 콜라주 방식을 개발했다. 이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자연에 가까운 작품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작품에서 작가의 의지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¹⁵²⁾ 이는 우연에 의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작품제작의 인식을 제거함으로써 수용자들에게 경험과 정체성에 의한 새로운 가치를 변환하여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정보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에 의한 유용성의 특징을 보여주는 현대예술 작품이다.

<그림 37>은 아주 흔한 재료를 사용하여 지적 논쟁을 위한 장소들을 만드는 토마스 허쉬호른(Thomas Hirschhorn, 1957 - 현재)의 작품으로 상업성을 위한 질 좋은 작품에 반대하며 에너지의 형성에 찬성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조각들에서 기술이나 가치에 대한 잠재

150) 홍임실(2010). “20세기 후반 미국미술에 나타난 건축적 조각 연구: 로버트 스미슨과 낸시 홀트를 중심으로”, *미술사문화비평학회*, 1, pp.121-141.

151) Holt, Nancy(1977). “Sun Tunnels.”. *Artforum*, 15(8), pp. 32-37.

152) 뉴욕현대미술관,열화당 공동발행(2004). op. cit., p.90

적으로 위험한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접근 용이성을 보장하는 전문가적 기법과 권위를 피하며 많다(Much)는 식의 접근법을 취하였다.¹⁵³⁾ 이에 값싼 물건들을 폭력적이고 무질서하게 배치하여, 강박적으로 공간을 가득 메운 콜라주 형식의 현대예술 작품은 사회가 발전함에 생산자가 아닌 수용자의 시선에 따라 작품을 규정하며 기존의 관념들이 무너지는 과정들을 정보로써 내포하고 있고, 이를 역설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수용자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정보가 전달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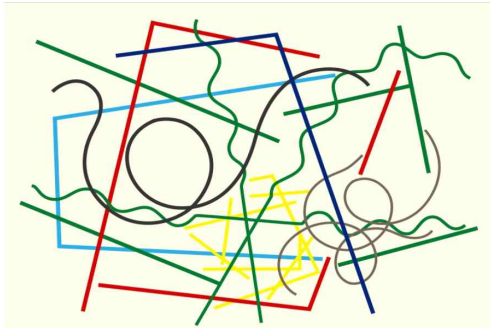
‘리바이어던(Leviathan)’(그림 38)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크기로 수용자를 압도하며 미적, 물리적 충격을 안겨준 현대건축물이다. 건물 내부의 빈 공간을 그대로 작품화하였으며 관람자는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내부를 탐색할 수밖에 없었다.¹⁵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곡 되어 있으며¹⁵⁵⁾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관람자의 몸과 이를 압도하는 공간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생산자가 만든 의미나 정보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지만, 수용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생각하게끔 하여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유용한 의미를 발견하도록 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충격적인 모습은 엔트로피를 나타내며, 오히려 이러한 표현은 수용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어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측면에서 정보의 유용성은 엔트로피의 특성이 될 수 있다.

<표 5>는 엔트로피의 정보적 측면에 표현된 현대예술 사례를 분류한 것이다.

153) 마이클윌슨 저, 임산, 조주현 역(2003). 「한 권으로 읽는 현대미술」. 서울:마로니에북스. p.190.

154) 전영백(2016). op. cit., pp.220-223.

155) 켈리 그로비에 저, 윤승희 역(2017). 「세계 100대 작품으로 만나는 현대미술강의」, 경기도: (주)도서출판 아름다운사람들. p.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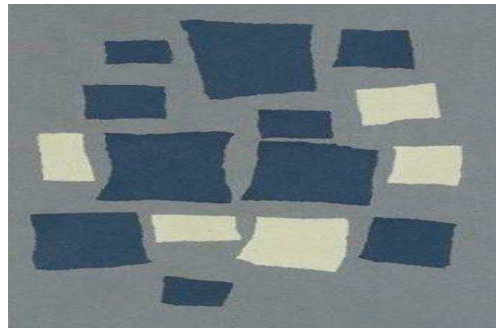
<그림 33> Sophie Taeuber-Arp
 <Grasse - Linien geometrisch und gewellt>, 1940
 출처: <https://ko.m.wikipedia.org/wiki/파일:Taeuberar-p-linien-peitschen-1940.svg>
 (2020.01.08.)



<그림 34> Antony Gormley
 <Edge>, 1985
 출처: 전영백(2016). p.242.



<그림 35> Nanci Holt
 <Sun Tunnels>, 1973-1976
 출처: 휘트니미술관·리사 필립스 외, 송미숙 역(2019). p.309.



<그림 36> Hans Arp
 <Torn-and-pasted paper and colored paper on colored paper>, 1916-1917
 출처: 뉴욕 현대미술관·열화당 공동발행(2004). p.194.



<그림 37> Thomas Hirschhorn
 <Too Too Much Much>, 2010
 출처: <https://publicdelivery.org/thomas-hirschhorn-to-too-much-much/>
 (2019.12.21.)



<그림 38> Anish Kapoor
 <Leviathan>, 2011
 출처: <https://m.blog.naver.com/joeuning/22167974816>
 7
 (2020.01.10.)

<표 5> 엔트로피의 정보적 측면에 표현된 현대예술 사례

구분	현대예술	의도	이미지 표현	작품의 특징		작품 분석		엔트로피 특성	
정보적 측면	복잡성		작가의 간섭을 배제하여 간극을 좁힘	반복, 인공적 색채	노이즈의 시각화	⇒	색채의 혼합 조형요소의 혼합 이질적 소재의 혼합	⇒	노이즈에 의한 복잡성
			체험에서 경험 실현	복잡하고 예상 불가능한 구조	예측 불가능함				
			가상적 공간 구현	경계를 모호하게 표현	시각적 복잡성				
			생산자의 의도에 의해 고정관념 타파	모티프	작가의 의도 표현	⇒	통제성 흥미·궁금증 유발 착시 임의성	⇒	능동성에 의한 복잡성
			규정할 수 없는 시각형태로 인한 고 엔트로피	임의적 형태	미-확정성				
		능동적 배치를 통한 관계성	관계 설정에 따른 실재성 상실	임의성 우연성					
	유용성		단순한 형태를 통한 복잡성의 반응	작가의 의도를 통해 유용함을 표현	잠재적 정보를 통하여 새로운 정보 표현	⇒	무(無)의미 혼란성 인덱스(indexical)적	⇒	리턴던시에 의한 유용성
			잠재적 정보 내포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정보를 혼란적으로 나타냄	수용자를 통한 의미 해석				
			정보의 유용성을 수용 과정에서 관찰	장소 특정성	수용자의 참여				
			작품제작 인식을 배제한 작품 구성	우연에 의한 구성	불확실한 상태가 더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현	⇒	우연의 효과 수용자의 필요 요소의 관계성 다양한 재료와 기법 충격 / 폭력 / 무질서/ 강박적	⇒	효율성에 의한 유용성
		기존 관념의 붕괴	콜라주	역설로 인한 유용함					
	수용자 스스로 의미발견	거대한 공간	요소의 관계						

3. 비평적 측면

본 연구자는 회화, 조각, 건축 작품으로부터 도출한 엔트로피 특성은 정보적 측면으로 접근하였으며, 도출한 엔트로피 특성을 생산자의 관점으로서는 이질성에 의한 비정형, 표현에 의한 비정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수용자의 관점으로서는 구조에 의한 질서와 무질서, 역설에 의한 질서와 무질서로 분류하였다.

1) 비정형

‘정형(定形)’에 대한 반대 의미인 비정형(非定形)은 형식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변이하여 예측 불가능한 유동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왜곡이나 변형으로 인해 형태와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¹⁵⁶⁾ 인간이 지닌 광기 중 금기와 위반이 조형적으로 표현될 때, 형태의 왜곡, 이질성, 불균형 등에 의하여 비정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¹⁵⁷⁾

<그림 39>의 ‘소변 산화 그림(Oxidation Painting)’은 구리성분의 물감으로 가득 칠한 캔버스 위에 오줌을 누고 시간이 흘러 산화하면서 추상적인 패턴이 생기도록 했다. 이는 미술제작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에 대항하는 의미였다.¹⁵⁸⁾ 작품은 기존의 체계에 대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무질서의 혼란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작가의 의도와 일치하게 되고, 관객들에게는 추상적으로 보일지라도, 결국은 생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심리에 다가가게 된다. 이 작품은 엔트로피의 근간인 변화를 바탕으로

156) 강덕봉(2018). op. cit., pp.1-16.

157) 정숙영(2007). “현대회화의 비정형이론과 형상전이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42-43.

158) 크리스토퍼 마스터스 저, 유안나 역(2015). op. cit., p.200.

이질적인 재료를 함께 표현함으로써, 생산자에 의한 비정형을 나타낸다. 작품을 통해 엔트로피의 전형적인 특성인 비정형을 관찰할 수 있고, 엔트로피 극대화에 따른 비평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두 팔이 없고 다리가 짧은 임신한 장애 여성의 사실적인 모습을 공공장소에 전시한 것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기존의 개념에 대항하는 ‘임신한 앨리스 래퍼(Alicon Lopper pergnant)’(그림 40)¹⁵⁹⁾ 창작의 주체로서 극사실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동질적이고, 완전한 신체 이미지를 드러내거나 유동적인 비정형의 전략을 토대로 해체하고 과편화하여 불완전하고, 이질적인 신체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¹⁶⁰⁾ 복합적인 접합과 비정형적인 동작과 신체 이미지를 통해 생산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변이시키기도 한다. 엔트로피 측면에서 작품 구성 요소들의 이질적 특성으로 인해 관객들에게 신선한 시각 경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새로움은 무질서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엔트로피는 가속화될 수 있다

홀트가 생산한 ‘히드라의 머리(Hydra's Head)’에서는 콘크리트로 테두리 처리된 6개의 물웅덩이를 나이아가라 강가에 설치한 작품으로 각 물웅덩이는 하늘과 빛, 세계의 색감을 반사하여 표현하는 재료로써 사용되었다(그림 41).¹⁶¹⁾ 비정형 건축에서 의미하는 ‘비정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정형성에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생산자의 조형의지를 극대화한 형태라고 정의한다.¹⁶²⁾ 평범할 수도 있는 소재인 물과 장소인 강가는 생산자에 의해 직접 이질적인 재료로 표현되었다. 자연에 콘크리트를 인위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엔트로피를 증가시켰고, 흐르는 물이 아닌 웅덩이에 고정하여 지구의 눈으로서 물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동질성과 기존의 정

159) 샬럿 본햄 카너, 데이비드 하지 저, 김광우, 심희섭, 김호정 역(2014). op. cit., p.162.

160) 강덕봉(2018). op. cit., pp.1-16.

161) Nancy Holt, <https://holtsmithsonfoundation.org/hydras-head> (검색일자: 2020.02.25.)

162) 배경진, 이상현, 진한중(2004). “비정형건축물 구현을 위한 디지털 디자인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9(1), pp.221-224.

형을 거부한 그녀는 생산자의 위치에서 인위적 엔트로피 증가를 통해 수용자들에게 새로운 지각과 경험을 하게끔 하였다.

미국의 팝 아티스트인 에드워드 루샤(Edward Ruscha, 1937 - 현재)의 회화 ‘눈(eyes)’(그림 42)에서는 형태적 눈속임을 통해 가상의 반대과정을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 즉, 방금 쓴 단어들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문자들이 녹여지게 표현한 것이다.¹⁶³⁾ 종래에 다루어 왔던 언어적 접근보다 평면적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인간의 감정에 관심을 두게 되었으며, 일반적인 표현 형태를 변형시킴으로써 비정형을 표현하였다. 이는 종래의 차원과는 다른 접근으로써 결국 엔트로피를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었고, 이러한 현대예술 흐름에 따른 수용자들의 비평적 측면은 수반되어야 한다.

영국 시각 예술가인 제이크 채프먼(Jake Chapman, 1966 - 현재)과 다이노스 채프먼(Dinos Chapman, 1962 - 현재) 형제의 작품 <그림 43>은 경계를 흐리는 신체변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체와 정체성의 변화 문제를 표면화해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¹⁶⁴⁾ 과편화된 신체는 인간의 양면적인 욕망과 폭력성을 암시하여 수용자에게 시각적 충격을 주며, 이로 인해 변형된 신체는 비정형의 엔트로피 전략으로 인해 기존의 표현을 와해시키고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⁵⁾ 종래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사고질서 체계를 와해하였다는 점에서 변화를 근간으로 한 작품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무질서와 혼란을 수용자들에게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엔트로피의 증가로 인해 수반되는 잉여적 에너지 소비와 피로감에 대해 수용자들의 비평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비정형 건축형태의 조형적 특징은 표현주의적 자유 형태를 추구하는 것으로

163) Yve-Alain Bois, Rosalind E.Krauss 저, 정연신, 김정현, 안구 역(2013). op. cit., p.149.

164) 전해숙(2016). op. cit., p.106.

165) 강덕봉(2018). op. cit., pp.1-16.

로 왜곡된 원, 다양한 곡률을 가지고 있는 곡선들, 평행하지 않은 선 등이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며 중첩되거나 우연적으로 통합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¹⁶⁶⁾ <그림 44>에서 나타난 스페인의 건축물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The Solomon R. Guggenheim Museum)’은 주변의 도시풍경과 철저히 대조되며¹⁶⁷⁾ 기하학적 형태와 유기적 형태를 사용하여 미술관 벽의 대부분을 불규칙하고 곡선적인 유기적 형태들로 이루어져서 종잡을 수 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구조에 움직임과 생동감을 부여한다. 이는 종래의 건축계에 대한 기존 사고의 질서체계뿐만 아니라 형태와 의미의 형식적 범주를 와해시키는 전형적인 비정형의 특징이 존재한다. 이에 따른 잉여적 에너지의 소모는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무분별한 현대예술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수용자들은 비판적 자세를 가지고 균형적 감각을 키워 접근 및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66) 배경진, 이상현, 전한중(2004). op. cit., pp.221-224.

167) 데브라J.드위트, 랠프M.라만, M.캐스린 실즈 저, 조주연, 남선우, 성지은, 김영범 역(2014). op. cit., p.74.



<그림 39> Andy Warhol
 <Oxidation Painting>, 1978
 출처: <https://www.moma.org/artists/3315>
 (2020.02.18.)



<그림 40> Marc Quinn
 <Alison Lapper Pregnant>, 2005
 출처: 크리스토퍼 마스터스, 유안나역(2015). p.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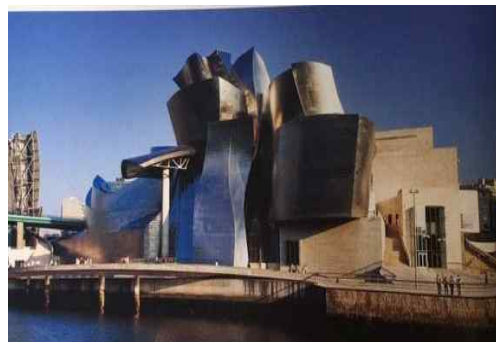
<그림 41> Nancy Holt
 <Holt Hydra's Head>, 1974
 출처: <https://www.moma.org/calendar/exhibitions/3658?slideshow=232&slide=1>
 (2020.02.25.)



<그림 42> Edward Ruscha
 <eye>, 1969
 출처: <https://www.moma.org/collection/works/73336>
 (2020.02.28.)



<그림 43> Jake and Dinos Chapman
 <ZYGOTIC ACCELERATION, BIOGENETIC DE-SUBLIMATED LIBIDINAL MODEL>, 1995
 출처: <https://www.indiepost.co.kr/post/10980>
 (2020.02.25.)



<그림 44> Frank Gehry
 <The Solomon R. Guggenheim Museum>, 1997
 출처: 테브라, J. 드위트, 랠프 M. 라만, M. 케스린 실즈, 조주연, 남선우, 성지은, 김영범 역(2014). p74.

2) 질서와 무질서

인간에게는 엔트로피 속성인 전체와 부분뿐 아니라 낱알 부분들도 서로 갈라져 합쳐야 하는¹⁶⁸⁾ 분화를 시키는 이화작용과 질서를 추구하는 동화작용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또한, 우연히든 의도적이든 현대예술작품에서 생성된 무질서는 질서가 없다는 의미이기보다는 관련 없는 개별 질서들의 구조적 충돌로 볼 수 있다.¹⁶⁹⁾

“자연적 외관은 변하지만, 진리는 불변하며 순수한 조형적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형태들을 불변의 형태 요소와 근본적 색채들로 환원시켜야 한다.”^{고170)} 말한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 - 1944)(그림 45)은 역동적이고 비대칭적인 구성을 통해 긴장감과 규칙이 발생하도록 하였으며, 선과 형태를 엄격하게 사용하여 회화를 최소한의 요소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해 캔버스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¹⁷¹⁾ 이는 엔트로피가 지극히 낮은 상태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조각으로 객체화되고 흩어지는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증가 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¹⁷²⁾ 이는 새로운 의미의 질서가 될 수 있으며, 예술가의 충동적 무질서 속에서 창조적 질서가 존재할 때 예술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으며, 올바른 추구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6>은 스웨덴 출신의 미술가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 1929 - 현재)의 조각품으로 대중문화의 요소들이 무척이나 시시해 보여도, 현대 생활의 진실을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작고, 대개 간과되는 대

168) 김상철(2019). op. cit., p.70.

169) 루돌프 아르하임 저, 오용록 역(2017). op. cit., p.26.

170) 프랑크 솔츠, 쿤터 레겔, 요하네스 키르웬만, 하랄트 쿤데 저. 황중민 역(2011). op. cit., pp.120-121.

171) 크리스토퍼 마스터스 저, 유안나 역(2015). op. cit., p.136.

172) 채정우(2004).op. cit., pp.35-45.

상들을 기념비적 규모로 다시 만드는데 이는 일상의 사물들을 조각적 형태로 확대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물의 본질을 변형시킨다.¹⁷³⁾ 그때 그 주제는 상대적으로 무가치한 속성을 드러낸다.¹⁷⁴⁾ 즉, 오브제의 장악력에 시선을 두게 함으로써 오브제 자체의 기반은 약화되는 것이다.¹⁷⁵⁾ 이는 엔트로피의 질서와 무질서가 작품 속에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표현되었고, 비평적으로 이분법적인 사고와 상대성을 고려하지 않은 고정관념을 깨트림으로써, 현대 조각 작품에서 질서와 무질서가 공존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새로운 균형인 구조를 창조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하 하디드(Zaha Hadid, 1950 - 2016)가 건축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그림 47)는 선형적이고 연속적인 시공간 개념을 인간중심주의 적인 사고로 비판하며 위상학적인 공간을 제시하며, 기존의 형태적 범주에서 탈피된 기하학적인 구도를 통해 본질을 찾으려 하였다.¹⁷⁶⁾ 이에 곡선을 사용하여 일상 지형들과의 이분법적인 경계를 건축함으로써 무질서함을 엿볼 수 있다. 즉, 건축만 놓고 보았을 때는 특이한 구조로 인한 고-엔트로피를 나타내고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으로 주변부와 함께 고려하였을 때는 저-엔트로피를 추구하는 것이다. 엔트로피 현상이 발생하는 작품에서 유기적이고 상호적 관계인 질서와 무질서를 균형적으로 보는 비평적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8>은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 - 1956)의 작품으로 드리핑(dripping) 기법을 활용하여 무질서하게 보이는 것 위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고 볼 수 있다.¹⁷⁷⁾ 캔버스 위에 떨어진 물감 자국들은 그 자체로서

173) 데브라J.드위트, 랠프M.라만, M.캐스린 실즈 저, 조주연, 남선우, 성지은, 김영범 역(2014). op. cit., pp.128-129.

174) 노버트 린튼 저, 윤난지 역(2011). 「20세기 미술」, 서울 : 도서출판 애경. p.294.

175) 샬럿 본햄 카너, 데이비드 하지 저, 김광우, 심희섭, 김호정 역(2014). op. cit., p.156.

176) 공현진, 양태근(2019). “헤테로피아적 장소연구 -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중심으로-”, *한국 기초조형학회*, 20(2). pp.1-12.

177) 김승휘(2019). op. cit., p.4.

속도와 힘을 암시하고 전체 이미지는 밀도 높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¹⁷⁸⁾ 이는 어떤 시간 동안 그 영역에서 행하여진 행위 전체를 농축한 동시적인 정지 화면(still)인 것이다.¹⁷⁹⁾ 이에 설명 불가능한 고의적 무질서의 요소로 인해 엔트로피가 극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액션페인팅을 진행함으로써 인해 상대적으로 더욱더 무질서 상태가 되고, 그 전의 상태는 질서의 상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비가역적 특성을 가진 엔트로피 현상 속에서 질서와 무질서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이동 간에 예술적 의미가 창조된다.

액체 상태의 아스팔트를 부어 아래로 흐르면서 고체로 고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스팔트 런다운(Asphalt Rundown)’(그림 49)은¹⁸⁰⁾ 장소 특정성 작품으로 그동안 물리법칙에 얽매어 바닥 위에 놓여있는 것들을 의미해 왔다. 주로 중력의 작용을 활용하는 장소 특정적 작업은 한시적인 재료를 사용할지라도 ‘현전(Presence)을 고집했으며, 파괴 혹은 소멸을 목전에 두고도 부동성에 집착했다.¹⁸¹⁾ 조각 이벤트의 과정에서 중력에 의해 흐르는 아스팔트는 무질서를 나타내지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의 특성도 가지고 있으며,¹⁸²⁾ 작품에서 생산자는 극단적이고 역설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였다. 작품 속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무질서적이고 불확정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지만, 이는 예술작품 노동의 질서를 그대로 수행해냈다는 점에서 질서와 무질서가 상호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0>은 현대 조형예술의 거장인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1954 - 현재)의 작품 ‘마르시아스(Marsyas)’는 초대형 규모로써 너무 커서 내부

178) 뉴욕현대미술관, 열화당 공동발행(2004).op. cit., p.194.

179) 노버트 린튼 저, 윤난지 역(2011). op. cit., p.205.

180) 이재은(2009). “엔트로피와 변증법의 관계 나선형 방과제를 중심으로”, *현대미술사연구*, 26, pp.81-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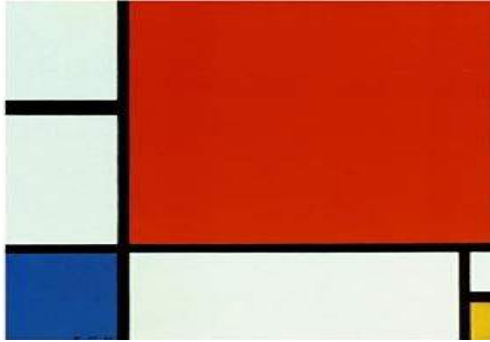
181) 권미원(2013). 「장소 특정적 미술」, 서울:현실문화연구. p.25

182) Robert Smithson, <https://holtsmithsonfoundation.org/asphalt-rundown> (검색일자: 2020.02.12.)

를 알 수 없다. 이런 심연은 공포감과 사색을 동시에 유발하며 실재와 상상의 관계로 양의 공간과 음의 공간, 빛을 흡수하는 재료와 반사하는 재료, 균형 구도와 불안정 구도 등 양극단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여 보여준다.¹⁸³⁾ 이는 혼란스럽고 거대한 건축물로 질서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작품은 현대에서 비주류의 예술을 나타내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술의 형태적 차원으로 접근하였을 때 이 작품은 매우 무질서적이고 혼란스럽다. 하지만 작품이 표현하고자 한 의미는 예술의 흐름에서 주류적이고, 관람자에 의해 쉽게 수용될 수 있는 점에서 질서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현대예술 작품이 가질 수 있는 의의를 비평적이고 균형감 있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표 6>은 엔트로피의 비평적 측면에 표현된 현대예술 사례를 분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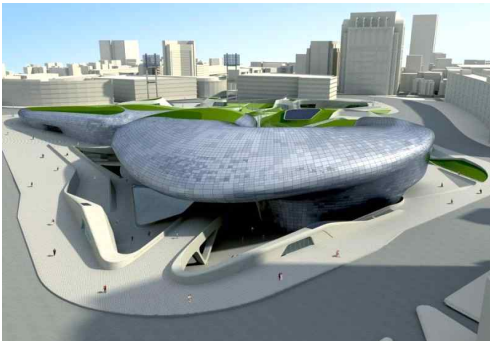
183) 샬럿 본햄 카너, 데이비드 하지 저, 김광우, 심희섭, 김호정 역(2014). op. cit., p.187.



<그림 45> Piet Mondrian
 <Composition With Red, Blue and Yellow>, 1930
 출처:크리스토퍼 마스터스, 유안나역(2015). p.187.



<그림 46> Claes Thure Oldenburg
 <Mistos> 1992
 출처:<http://www.xtec.cat/~jarrimad/contemp/mistos.html>
 (2019.1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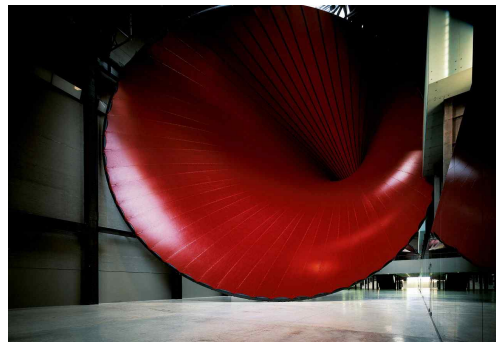
<그림 47> Zaha Hadid
 <DDP>, 2014
 출처:<https://www.artinsight.co.kr/news/view.php?no=22851>
 (2020.02.10.)



<그림 48> Jackson Pollock
 <no.31>, 1950
 출처:뉴욕 현대미술관·열화당 공동발행(2004). p.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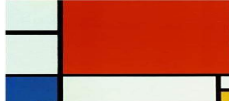


<그림 49> Robert Smithson
 <Asphalt Rundown>, 1969
 출처:<https://blog.naver.com/nyast/221334788425htm>
 (2020.02.12.)



<그림 50> Anish Kapoor
 <Marsyas>, 2002
 출처:크리스토퍼 마스터스, 유안나역(2015). p.187.

<표 6> 엔트로피의 비평적 측면에 표현된 현대예술 사례

구분	현대예술	의도	이미지 표현	작품의 특징		작품 분석		엔트로피 특성	
비평적 측면	비정형		기존의 전통적인 개념에 대한	추상적인 패턴	예측 불가능한 형태	⇒	예측 불가능한 형태 형식의 유동성 인위성(고의성)	⇒	이질성에 의한 비정형
			불완전하고 이질적인 신체 이미지 표현	해체, 파편화	인위적인 의미 변이				
			동질성과 기존의 정형을 거부	생산자의 조형 의지를 극대화	새로운 지각 경험의 가능성을 표현				
			종래의 규범과 다른 접근	형태적 눈속임	사물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을 무너트려 표현	⇒	눈속임 왜곡 변형 형태의 비정형 모호함 경계흐림 파편화 불규칙	⇒	표현에 의한 비정형
			주체와 정체성의 변화	신체 변형, 파편화된 신체	사고질서 체계 와해				
			질서체계와 형식적 범주 와해	주변의 풍경과 대조	유기적				
	질서와 무질서		완벽한 균형	비대칭적 구성	부분·요소와 전체의 상관관계를 표현	⇒	긴장감 교차성 단순화 균형성/평형 기하학적 탈중심화	⇒	구조에 의한 질서와 무질서
			사물의 본질을 변형	확대	고정관념 타파				
			주변을 고려한 고-저 엔트로피의 균형추구	기존의 형태적 범주에서 탈피	기하학적 탈중심화				
			고의적인 무질서 안의 질서	드리핑	고의적 무질서를 통해 질서와 무질서의 균형성	⇒	충동성 액션페인팅 비가역성 무질서의 극대화 질서의 분능 모순성	⇒	역설에 의한 질서와 무질서
			역설적 방법으로 강조	파괴 및 소멸, 부동성	비가역성				
			양극단의 균형을 강조	역설적 균형	혼란, 무질서				

IV. 엔트로피 특성을 응용한 바디아트 작품제작

1. 제작 의도

예술을 바라보았을 때 매체나 주제의 한계가 없고 작가의 범주도 규정되지 않는 흐름 속에서 무질서와 다원화는 현대예술의 주요한 동력으로 위치하게 되었다. 가속화된 현대예술의 특이성에 대한 엔트로피의 적용은 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다.

현대예술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생산자 측면과 수용자 측면에서 엔트로피의 관점을 분류하여 현대예술의 한 부분인 바디아트를 시도하였다. 다른 예술 분야나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과 마찬가지로 바디아트도 생산과 수용 과정에서 엔트로피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는 작가나 관람자들에게 능동적인 체험과 비판적 자세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고-저 엔트로피를 왕래하며 균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무의식적으로 추구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작품에 표현되거나 해석되며 더 나아가서 시대적 분위기에 걸맞게 예술작품의 가치가 생성되는 재현성을 경험할 수 있다.

엔트로피는 에너지 소비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앞의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반적 엔트로피 현상 및 특성을 도출하여 본 연구자의 관점으로 분류하고 추상적인 에너지를 인간의 몸에 직접 표현하고자 하였다. 생산과 수용의 관점에서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방식에 의해 예술의 향방은 결정하며, 본 연구의 제작과정에서 엔트로피의 예술적 측면, 정보적 측면, 비평적 측면을 유용한 도구이자 원동력으로 사용하였다.

각 작품의 디자인은 모델의 전신에 적용하였고, 인체의 굴곡과 입체적 형태를 활용하였으며, 각각의 측면에 나타난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엔트로피의 특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엔트로피의 특성은 앞에서 분류한 엔트로피 측면을 다양성과 다의성, 복잡성과 유용성, 비정형과 질서와 무질서로 도출하여 각 2점씩 총 12점의 작품을 디자인 계획하여 미디어아트에 응용 및 적용하여 작품을 계획하였다.

미디어아트 작품에 사용된 재료는 메이크업 재료, 아쿠아 컬러, 형광 아쿠아 컬러, 라이닝 컬러 등을 기본으로 사용하였으며, 엔트로피 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압축 스트리폼 판넬, 거울, 마네킹, 재활용품, 콜라주, 진공 압축팩, 타이포그래피, 물 등의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였다. 제작된 작품은 작품의 표현 특성에 따라 포토샵을 통해 시각적 재구성을 하였으며 생산자의 관점과는 다른 수용자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였다.

<표 7>은 엔트로피 특성을 응용한 미디어아트 작품 12점의 디자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7> 엔트로피 특성을 응용한 바디아트 디자인 계획

작품명	작품 I	작품 II	작품 III	작품 IV	작품 V	작품 VI	작품 VII	작품 VIII	작품 IX	작품 X	작품 XI	작품 XII
구분	예술적 측면				정보적 측면				비평적 측면			
	다양성	다양성	다의성	다의성	복잡성	복잡성	유용성	유용성	비정형	비정형	질서와 무질서	질서와 무질서
	형태에 의한 다양성	와해에 의한 다양성	자율성에 의한 다의성	상대에 의한 다의성	노이즈에 의한 복잡성	능동성에 의한 복잡성	리던던시에 의한 유용성	효율성에 의한 유용성	이질성에 의한 비정형	표현에 의한 비정형	구조에 의한 질서와 무질서	역설에 의한 질서와 무질서
재료	압축 스티로폼, 아쿠아 컬러	거울, 아쿠아 컬러	마네킹 아쿠아 컬러	과자봉지, 재활용품, 양면테이프 아쿠아 컬러	아쿠아 컬러	컬러 램프, 아쿠아 컬러	진공 압축팩, 아쿠아 컬러	빔 프로젝터, 아쿠아 컬러	물 스프레이, 아쿠아 컬러	아쿠아 컬러	물, 아쿠아 컬러	아쿠아컬러
컬러												
디자인 특징	이질적 표현을 통한 예술의 확장 가능성과 다양성을 의미	문양과 반사를 활용하여 경계의 와해를 통해 다양성 표현	마네킹과의 포지셔닝으로 통일감 와해를 표현하여 다의성 생성	정크아트를 활용하여 수용자의 환경에 따른 다의성 표현	전형적인 시각적 복잡성이 가진 효율성	데페이즈망을 기법을 사용해 작가의 의도를 능동적으로 표현하여 복잡성 생성	휴머노이드에 외부적 노이즈를 적용하여 잠재적 정보적 가치 생성	기호, 글자, 신체의 굴곡을 활용하여 노이즈를 통한 유용성 표현	정형화된 그림을 의도적으로 비정형 모습을 표현	형식적 와해와 해체를 통하여 비정형 이미지 표현	물에서 와해하면서 나타나는 우연으로 질서와 무질서 상호공존 표현	빛 반사와 그림자의 환영으로 무질서를 극대화 시켜서 표현
디자인												

2. 작품제작

1) 작품 I

표현 특성: 형태에 의한 다양성

(1) 작품설명

<그림 51>의 작품 I은 엔트로피의 예술적 측면의 특징인 형태에 의한 다양성으로 팝아트의 양식은 전통적 미술에서 배제되었던 일상과 사물을 예술로 끌어들이 미적 경험의 차원을 확대하였다.¹⁸⁴⁾ 한정된 예술 운동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대상물과 작품 형태의 다양성에 적용되어 일종의 속어처럼 사용되었으며, 팝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1923 - 1997)의 작품을 통해 그림이 꼭 캔버스의 표현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사람의 신체에서도 행해지면서 작품 확장성을 나타낼 수 있고, 이는 예술적 측면의 형태에 의한 다양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공간의 한계 초월과 예술 표현수단의 확장 차원에서의 다양성을 나타내며, 확장뿐만 아니라 신체와의 융합으로 인해 작품에서 전형적 엔트로피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친숙한 주제인 팝아트의 작가 중 한 명인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을 선정하여 만화형식으로 담아냄으로써 수용자와 거리감을 줄이고, 신체를 관통한 캔버스와 신체가 일체가 되어 하나의 작품이 되어 독특한 형태로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예술의 확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또한, 현대예술을 발전시키고 급속한 다원화와 복잡화를 통해 합성 장르

184) 유현주(2011). op. cit., pp.175-210.

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다양성의 특징은 예술작품에서 필요한 특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 작품 I의 제작과정

① 압축 스티로폼 가로 80cm, 세로 180cm 2개를 연결하여 스티로폼 가벽을 만든다.

② 압축 스티로폼 가벽에 맞추어 전지 3장을 사용하여 가로 120cm, 세로 180cm의 배경 그림을 제작한다.

③ 그림은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으로 한정하며 스케치한다.

④ 12색 포스터컬러 중 화이트, 옐로우, 레드, 블루 계열을 주요 색으로 사용하여 채색한다.

⑤ 모델의 몸에 맞추어 압축 스티로폼 가벽에 구멍을 뚫는다

⑥ 구멍을 뚫은 압축 스티로폼 가벽에 제작한 그림을 붙이고 구멍에 맞춰 그림을 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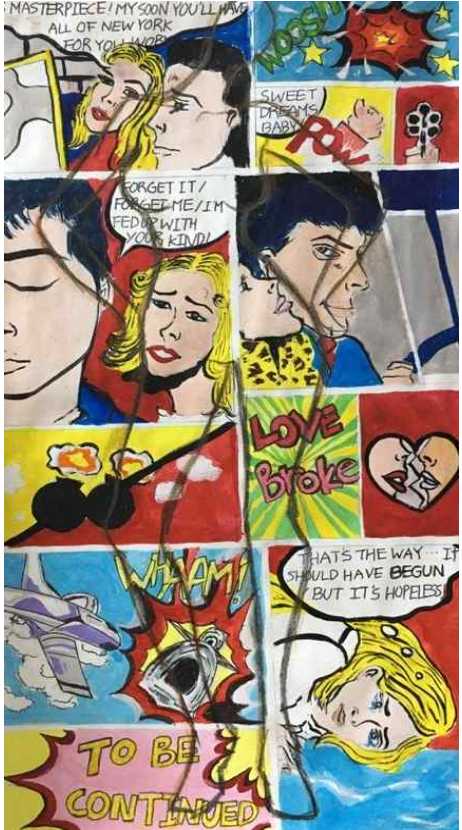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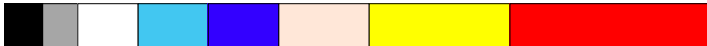
⑦ 압축 스티로폼 가벽의 구멍에 맞춰 모델은 포즈를 잡고 배경에 맞춰 화이트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스케치를 뜬다.

⑧ 화이트, 옐로우, 레드, 블루, 블랙의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만들어놓은 압축 스티로폼 가벽의 그림과 비슷하도록 채색한다.

⑨ 촬영할 때 배경의 그림과 모델의 그림이 일치하도록 포즈를 취한다.

작품 I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작품 I의 디자인 이미지와 디자인 계획서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엔트로피 표현양식	형태에 의한 다양성
디자인	리히텐슈타인의 작품들을 모티브로 하여 만화책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디자인한다.
표현계획	평면적인 종이에 3차원적인 형태가 생성되도록 하여 작품의 확장성을 표현한다.
재료	압축 스트리프, 전지, 포스터컬러, 아쿠아 컬러
컬러	



<그림 51> 작품 I

2) 작품 II

표현 특성: 와해에 의한 다양성

(1) 작품설명

<그림 52>의 작품 II는 엔트로피의 예술적 측면의 특성인 와해에 의한 다양성을 표현하고자 아르누보의 문양을 모티브로 하여 바디페인팅 된 신체를 거울과 자연스럽게 융화시켜 현실과 반사된 모습의 경계선을 와해시키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아르누보의 형성배경에는 다양한 요소가 도입되어 융합되어있고,¹⁸⁵⁾ 현대의 예술 흐름에 있어 한 개인의 독특성과 각각의 것들이 만들어내는 다양성의 가치는 어떻게 독자 주체의 기반을 침해하며 궁극적으로 예술의 기반을 허무는지를 규명하는데있다.¹⁸⁶⁾

또한, 작품의 창조 과정에서 활용된 거울에 나타난 무늬와 반사된 바디페인팅으로 인해 예술형식의 와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거시적으로 본다면 신체 자체가 하나의 작품으로써 거울에 의해 의미와 형태의 확장 가능성을 가지므로 예술의 개방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무엇이 실체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수용자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며, 다양한 시각적 해석뿐만 아니라 경계의 와해 차원에서 다양성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전달하며 예술의 경계를 넓힌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예술적 측면에서의 다양성은 수용자의 혼란으로 인해 작품에서 관람자의 예측이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으며, 생산자의 감정 또는 의도를 녹여내고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써 신체와 페인팅으로 표현되고 거울을 사용

185) 이정원, 조규화(2008). 아르누보 이미지의 드레스 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12(2). pp.42-58.

186) 심상용(2007). 현대미술에 있어 트렌드화 현상과 다양성의 위기에 관하여, *현대미술사학회*, 21(1). pp.181-223.



해 반사되고 와해에 의한 형식으로 예술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정된 정의를 거부하고, 개방적인 예술의 모습을 통해 각각의 요소들이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2) 작품 II의 제작과정

- ① 모델의 몸 전신에 옐로우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스케치를 뜬다.
- ② 스케치를 뜬 부분에 옐로우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두껍게 면을 칠한다.
- ③ 골드, 브라운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음영을 표현한다.
- ④ 화이트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하이라이트를 준다.
- ⑤ 문양이 없는 나머지 배경은 블랙 아쿠아 컬러로 채색한다.
- ⑥ 스튜디오 호리존의 바닥과 배경에 큰 블랙 천을 깔아준다.
- ⑦ 가로 70cm, 세로 170cm의 대형거울은 바닥에 세팅한다.
- ⑧ 모델은 거울 위에 올라가서 포즈를 취하며 촬영한다.
- ⑨ 포토샵으로 배경과 인물의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톤을 조절한다.
- ⑩ 정리된 작품을 와해의 의한 다양성의 특성에 따라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배치하여 재구성한다.

작품 II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 작품 II의 디자인 이미지와 디자인 계획서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엔트로피 표현양식	와해에 의한 다양성
디자인	아르누보의 문양을 모티브로하여 인체가 하나의 조각품처럼 보이도록 바디페인팅을 디자인한다.
표현계획	거울을 활용하여 시각의 확장성과 기존의 획일화된 형식의 와해를 표현하여 예술의 개방성을 표현한다.
재료	거울, 아쿠아 컬러
컬러	



<그림 52> 작품 II

3) 작품 III

표현 특성: 자율성에 의한 다의성

(1) 작품설명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1904 - 1989)의 회화는 사랑과 종교, 여성 등의 주제를 다루면서 현실과 무의식 사이의 환상 관계의 이중성을 다루는데 특히나 심리적인 차원에서 이중적이고 은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¹⁸⁷⁾ 작품 III(그림 53)은 이를 통해 예술적 측면의 엔트로피의 특징인 자율성에 의한 다의성을 나타내기 위해 (바르셀로나의 마네킹, Barcelona Mannequin)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한 작품이며, 마네킹과 신체를 특정한 포즈로 정지시켜 놓고, 같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전신 바디페인팅을 활용해 표현하였다.

이는 여성을 의미하는 것과 여성의 인체 곡선을 활용됨으로써 여성의 몸체에 대해 다양한 의미와 관점을 투여해 창조해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모델과 마네킹의 포지셔닝(Positioning)과 다른 색감으로 인하여 작품의 외형뿐만 아니라 해석적 의미의 다양화에 일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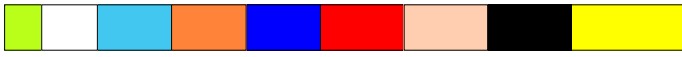
본 작품에는 타인의 시선들에 의해 만들어져 가는 여성들의 취향과 정체성 등을 표현하는 상징들이 내재하고 있고, 손의 위치, 모델의 포즈, 실루엣처럼 표현된 색감 배경의 오브제로 사용된 손과 토르소 등 각 요소로부터 수용자에게 다양하고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 예술적 가치가 생산될 수 있다. 작품은 감상자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해석되고, 그 결과 서로 다른 의미로도 출되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는 움베르토 에코가 제시한 열린 구조 속에서 수용자의 주도적 역할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다.

187) 조성숙(2015). 초현실주의 회화에 나타난 은유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96.

(2) 작품 Ⅲ의 제작과정

- ① 디자인 이미지에 맞춰 마네킹에 스케치한다.
 - ② 12색 포스터컬러를 사용하여 마네킹을 채색한다.
 - ③ 모델의 몸 전신에 화이트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스케치를 뜬다.
 - ④ 마네킹의 색상과 어우러지도록 화이트, 옐로우, 오렌지, 핑크, 레드, 블루, 블랙의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밝은 컬러에서 어두운 컬러로 바디페인팅을 한다.
 - ⑤ 블랙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라인을 잡는다.
 - ⑥ 마네킹과 모델의 배치를 생각하여 구도를 잡고 촬영한다.
 - ⑦ 작품에 쓸 사진을 한 장 선택하여 포토샵으로 마스킹하여 옮긴다.
 - ⑧ 작품의 의도에 맞게 배경에 들어갈 마네킹 이미지를 셔터스톡에서 구매한다.
 - ⑨ 마네킹 이미지와 바디페인팅 작품을 포토샵을 활용하여 합성한다.
- 작품 Ⅲ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작품 Ⅲ의 디자인 이미지와 디자인 계획서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엔트로피 표현양식	자율성에 의한 다의성
디자인	살바도르 달리의 'Barcelona Mannequin'을 모티브로 하여 여성의 인체 곡선을 활용하여 바디페인팅을 디자인한다.
표현계획	마네킹과 모델에 바디페인팅을 적용하고 다양한 마네킹들을 합성하여 결합함으로써 유기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표현한다.
재료	마네킹, 아쿠아 컬러
컬러	



<그림 53> 작품 III

4) 작품 IV

표현 특성: 상대성에 의한 다의성

(1) 작품설명

작품 IV(그림 54)는 엔트로피의 예술적 측면의 특성인 상대성에 의한 다의성을 나타내기 위해 정크아트(junk Art)를 모티브로 하여 표현하였다. 정크아트는 인간에 의해 사용되고 버려진 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다른 목적에 적응함으로 목적이 변형된 품목들을 의미하며,¹⁸⁸⁾ 산업폐기물과 더불어 현대예술의 ‘확장성’에서¹⁸⁹⁾ 탄생한 정크아트는 상대성 관점으로 수용자의 환경에 따른 작품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미와 관점을 투여한 창조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예술작품을 받아들이는 열림의 개념을 통해 수용자의 시대별, 환경별, 계층별로 느껴지는 해석의 의미가 다양하게 표현되며 이에 생산자와 수용자의 자율적 해석을 허용한다.

현대 소비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산해내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소비물자를 소모적인 엔트로피의 흐름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버려지는 소재들을 모아 바디아트에 표현함으로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비사회의 욕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바디아트는 오브제 기법을 중심으로 재활용품들을 이용해 일정한 형식이 아닌 추상적으로 몸에 부착하며 무작위성을 주게 되고, 나머지 부분을 단일한 색상으로 칠하면서 상반된 대비 효과를 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188) Henry Rasmusen and Art Grant(1967). 「Sculpture from Junk」, New York: Reinhold Publishing Corporation, p.7.

189) 오광수(1975). 「전환기 미술」, 서울: 열화당, p.116.

행위로 인하여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었다.

수용자는 이러한 작품을 보고 본인들의 감정과 문화적 특징을 배경으로 수용할 것이고, 이러한 현상에 의해 쌍방향적인 다의성이 발견되며 통제되고 조절될 수 있다.

(2) 작품 IV의 제작과정

① 모델의 몸 전신에 화이트 아쿠아 컬러로 채색한다.

② 디자인 이미지를 보면서 오브제인 과자봉지, 병뚜껑, 빨대, 플라스틱 숟가락, 플라스틱 포크, 신문지, 블랙 종이, 그물망, 노끈 등을 활용하여 구도에 맞게 종이 양면테이프를 사용해서 모델의 몸에 부착한다.

③ 부착한 오브제와 비슷한 색상인 옐로우, 오렌지, 블루, 그린의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드리핑 기법으로 표현한다.



④ 헤어라인이 너무 동떨어져 보이지 않도록 오브제의 색상과 비슷한 화이트, 옐로우, 오렌지, 그린, 블루의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⑤ 종이상자를 분해하여 가로세로 중첩하여 벽과 바닥을 만든다.

⑥ 마네킹과 모델의 배치를 생각하여 구도를 잡고 촬영한다.

작품 IV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작품 IV의 디자인 이미지와 디자인 계획서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엔트로피 표현양식	상대성에 의한 다의성
디자인	정크아트를 모티브로 인간이 생산하는 소모품을 사용하여 바디페인팅을 디자인한다.
표현계획	모델에 바디페인팅을 적용한 후 정크아트를 표현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상대에 의한 다의성을 표현한다.
재료	과자봉지, 병뚜껑, 빨대, 플라스틱 숟가락, 플라스틱 포크, 신문지, 블랙 종이, 그물망, 노끈, 아쿠아 컬러
컬러	



<그림 54> 작품 IV

5) 작품 V

표현 특성: 노이즈에 의한 복잡성

(1) 작품설명

<그림 55>의 작품 V은 엔트로피의 정보적 측면의 특성인 노이즈에 의한 복잡성을 중심으로 엔트로피의 정보적 측면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 - 1944)는 추상미술의 창시자로서 순수하게 색과 형태를 통해서만 작용하려는 예술로서 주변을 재현하는 것을 포기한다. 이러한 예술 개념으로는 의식적인 의도가 있어야 예술이지만 예술 개념의 폭이 끝없이 넓어지는 현대에서는 무의식의 표출도¹⁹⁰⁾ 복잡하게 예술로 표현된다. 이에 칸딘스키의 작품인 (구성Ⅶ, Composition Ⅶ)을 모티브로 ‘복잡하다’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복잡성을 신체에 표현하였다.

각각의 색채들이 신체 위에서 복잡하게 혼합되어 배치됨으로써 엔트로피 현상이 극대화되어 표현된다. 전체 구조의 시각과 순간적인 직감, 전체를 지배하는 법칙, 자유로움 등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지게 하여 매우 복잡하고, 강렬한 인상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신체를 통해 나타내어 복잡성 느낌의 공유가 쉬울 것이라 예상하였고, 작품이 나타내는 시각적 복잡성 즉, 노이즈로 인한 특성으로 인해 수용자에게 역설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복잡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히 많은 양의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단순한 복잡함이 아닌 다채로운 요소들의 유기적 연결로 인해 정보 전달을 생성해낸다고 볼 수 있다.

190) 조정옥(2013).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의 회화에서 감정과 이성, *한국예술연구*, 8, pp.183-220.

(2) 작품 V의 제작과정

- ① 모델의 몸 전신에 흰색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스케치를 뜬다.
 - ② 옐로우, 핑크, 레드, 블루 등의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채색한다.
 - ③ 페인팅이 마르면 그 위에 화이트, 레드, 블루, 블랙 등의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문양이나 점을 그려 넣는다.
 - ④ 형광 옐로우, 마젠타 아쿠아 컬러를 문힌 후 드리핑 기법으로 점을 표현한다.
 - ⑤ 스튜디오 호리존에 조명 3개를 준비하고, 조명마다 블루, 레드, 그린 컬러 젤을 조명 앞에 덧대어 놓는다.
 - ⑥ 다양한 포즈로 촬영한다.
 - ⑦ 포토샵을 활용하여 모델과 그림자까지 마스킹을 한다.
 - ⑧ 마스킹을 한 레이어를 겹쳐서 노이즈에 의한 복잡성의 특성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재구성한다.
- 작품 V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은 <표 12>와 같다.

<표 12> 작품 V의 디자인 이미지와 디자인 계획서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엔트로피 표현양식	노이즈에 의한 복잡성
디자인	칸딘스키의 작품 'Composition VIII'을 모티브로 색채의 혼합을 노이즈로 콤포지션하여 디자인한다.
표현계획	바디페인팅 표현 후 촬영 시에 컬러 젤을 사용하여 색채에 의한 시각적 복잡성을 더 강조하여 표현한다.
재료	컬러 젤, 아쿠아컬러
컬러	



<그림 55> 작품 V

6) 작품 VI

표현 특성: 능동성에 의한 복잡성

(1) 작품설명

작품 VI(그림 56)는 엔트로피의 정보적 측면의 특성인 능동성에 의한 복잡성으로 일상적 사물과 이미지의 비논리적인 병치를 보이는 초현실주의 회화를 통해 외부적 리얼리티의 세계를 넘어 절대적인 초현실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¹⁹¹⁾ 초현실주의 작가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1898 - 1967)의 그림을 모티브로 하여 바디페인팅을 진행하면서 생산자의 의도가 생성되도록 하였다.

초현실주의는 일상의 사물들을 부조리하게 구성하여 배치하고 논리를 뛰어넘는 현실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흥미와 궁금증을 유발하고 우리의 내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욱 현실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차용하여 신체에 페인팅하는 과정에서 초현실주의 표현 유형 중 하나인 사물을 추방하여 이상한 관계에 두는 것을 뜻하는 데페이즈망 기법을 사용하여 예측할 수 없게 배치함으로써 임의성을 작품 안에서 표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생산자의 관점에서 작품을 제작할 때 능동성에 의한 복잡성의 의미를 생성해내고자 하였다.

이처럼 작품에 내포된 작가의 의도 표현이 자연스럽게 수용자에게 연결되어 결국 수용자는 작가의 의도를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개연적 과정에서 엔트로피 현상의 무질서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른 예

191) 최정화(2007). 르네 마그리트 회화의 영향을 받은 포스터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16, pp.393-404.



측 불가능성이 생성되고, 이는 예술적 측면에서 작품의 가치를 높인다는 점을 통해 엔트로피의 현상이 바디아트 범주에서 순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작품 VI의 제작과정

- ① 모델의 몸 전신에 흰색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스케치를 쓴다.
- ② 화이트, 그레이, 블랙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모델의 오른쪽 상반신을 채색한다.
- ③ 화이트, 레드, 브라운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복부에 표현된 입술에 음영감을 주면서 채색한다.
- ④ 하반신을 화이트, 옐로우, 핑크 아쿠아 컬러로 조색하여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다.
- ⑤ 화이트, 옐로우, 브라운, 블랙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눈과 속눈썹의 세부묘사를 진행한다.
- ⑥ 화이트, 스카이 블루, 블루, 블랙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나머지 배경부분을 채색한다.
- ⑦ 화이트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구름을 표현한다.
- ⑧ 다양한 포즈로 촬영을 한다.
- ⑨ 배경과 합성할 이미지들을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활용하여 모은다.
- ⑩ 작품에 쓸 포즈들을 선택하여 포토샵에서 마스킹을 한다.
- ⑪ 이미지와 마스킹을 한 포즈들을 포토샵을 활용하여 데페이즈망 기법처럼 배치하고 합성하여 능동성에 의한 복잡성의 특성이 표현될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

작품 VI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은 <표 13>과 같다.

<표 13> 작품 VI의 디자인 이미지와 디자인 계획서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엔트로피 표현양식	능동성에 의한 복잡성
디자인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을 모티브로 하고 연관성 없는 무분별한 배치를 통해서 복잡한 바디페인팅을 디자인한다.
표현계획	바디페인팅 표현 후 콜라주 기법을 이용하여 생산자의 관점에서 작품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재료	아쿠아 컬러
컬러	



<그림 56> 작품 VI

7) 작품 VII

표현 특성: 리턴던시에 의한 유용성

(1) 작품설명

<그림 57>의 작품 VII는 엔트로피의 정보적 측면의 특성인 리턴던시에 의한 유용성으로 휴머노이드를 모티브로 하여 현대 기술발달로 인해 삶의 대부분은 기계와 AI로 행하여지고 있는 모습을 풍자하며, 인간과 기술이 융합되고 혼란스러워지는 이미지를 바디페인팅으로 표현하였다.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모습을 갖춘 로봇을 가리키는 말로써 인간의 행동을 가장 잘 모방할 수 있는 로봇이다. 인공지능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 지각된 유용성이 수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잠재적 정보를 내포한다는 것을 뜻한다.¹⁹²⁾ 사람의 신체에 휴머노이드를 페인팅으로 그려냄으로써 정형화되어가며 상업화되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전달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또한, 수용자 측면에서는 이 작품에 표현된 압축 진공팩의 특성상 표면에 나타나는 외부적 노이즈 형태는 엔트로피 적 카오스로 볼 수 있으며, 마트 진열대처럼 표현된 배경은 잠재적 또는 숨겨진 정보(hidden information)로써 수용자에게 생산력이 풍부한 무질서로 인식이 될 수 있고, 작품의 유용한 가치 및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술의 작품을 수용할 때에는 유연한 구조적 접근 및 수용이 요구되고, 그러므로 잠재적 정보에 의한 유용성이 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

192) 김근정, 박성중, 이희정(2019). 인지된 사용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이 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품학회*, 37(3), pp.1-9.

(2) 작품 VII의 제작과정

- ① 연한 브라운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모델의 몸 전신에 스케치를 쓴다.
 - ② 피부를 표현할 부분을 화이트, 옐로우, 레드 아쿠아 컬러를 혼합하여 피부톤과 유사하게 만든 후 채색한다.
 - ③ 연한 브라운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음영감을 준다.
 - ④ 화이트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하이라이트를 준다.
 - ⑤ 그레이, 골드, 블랙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로봇 부분의 관절을 표현한다.
 - ⑥ 블랙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남은 라인 부분을 채색한다.
 - ⑦ 가로 100cm, 세로 130cm의 진공 압축팩에 모델이 들어가 포즈를 취한다.
 - ⑧ 진공 압축팩에 흡입기를 사용하여 압축을 진행한 후 촬영을 한다.
 - ⑨ 작품사진에 포토샵을 활용하여 포장지처럼 보이도록 글자와 바코드를 합성한다.
 - ⑩ 포토샵을 활용하여 배경에 들어갈 이미지를 제작한 후에 앞서 합성해 놓은 작품사진을 배치하여 시각적으로 구성한다.
- 작품 VII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은 <표 14>와 같다.

<표 14> 작품 VII의 디자인 이미지와 디자인 계획서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엔트로피 표현양식	리턴던시에 의한 유용성
디자인	로봇과 인간이 결합된 휴머노이드의 모습을 모티브로 하여 상업화되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바디페인팅으로 디자인한다.
표현계획	바디페인팅 표현 후 인간이 대체될 수 있는 표현을 위해 포토샵으로 합성하여 잠재적인 정보를 표현한다.
재료	진공 압축팩, 아쿠아 컬러
컬러	



<그림 57> 작품 VII

8) 작품 VIII

표현 특성: 효율성에 의한 유용성

(1) 작품설명

작품 VIII(그림 58)는 엔트로피의 정보적 측면의 특성인 효율성에 의한 유용성으로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1929 - 1968)의 연설문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today)’을 모티브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로 표현하였다.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는 텍스트의 크기, 위치 등의 타이포그래피적 속성을 시간과 공간을 통해 변화시켜 정적인 텍스트에 역동성을 부여한 것으로 다양한 움직임과 폰트의 종류, 글자의 크기 및 색상으로 인해 정보를 전달할 때의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¹⁹³⁾

이를 통하여 바디아트에서 생성된 작가의 의도 즉 정보가 전달될 때 생성되는 엔트로피 현상 속에서 정보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표현하였다. 기존의 기호 중심 2차원적 표현 형태에서 문자의 의미, 크기, 형태 등을 차별화하였고, 이를 신체 선의 굴곡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적 관점에서의 노이즈가 생성되었다.

신체가 가지고 있는 곡선과 입체적 원근감에 의해 신체에 표현된 활자는 엔트로피 적 카오스가 수용자에게 작품과 작가의 의도 및 정보를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유용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노이즈를 활용하여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정보 전달은 물론 수용자에 의해 가치가 부여될 때에 작품의 의미는 생성되고, 유용해질 수 있다. 정보 관점에서는 전달 과정에서 효율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 노이즈는 좋은 활용 수단이

193) 이준환, 김동환, 위지은, 장수연, 하세용, 전수진(2014).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통한 텍스트 기반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감정 전달 연구,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17(1), pp.77-93.

된다. 또한, 배치와 크기로 인해 드러나는 질서는 없어 보이지만 숨겨진 정보는 존재하고, 이는 생산력이 풍부한 무질서로 제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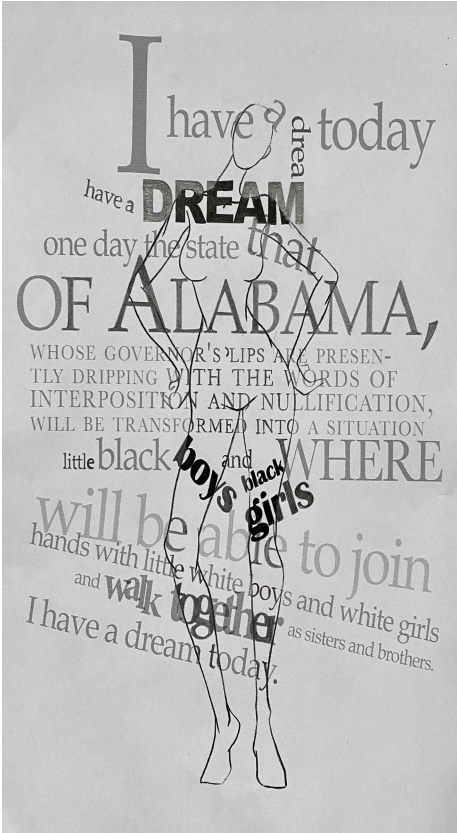

이는 수용자에 의해 정보가 생성되고, 이는 바디아트에서 유용한 가치부여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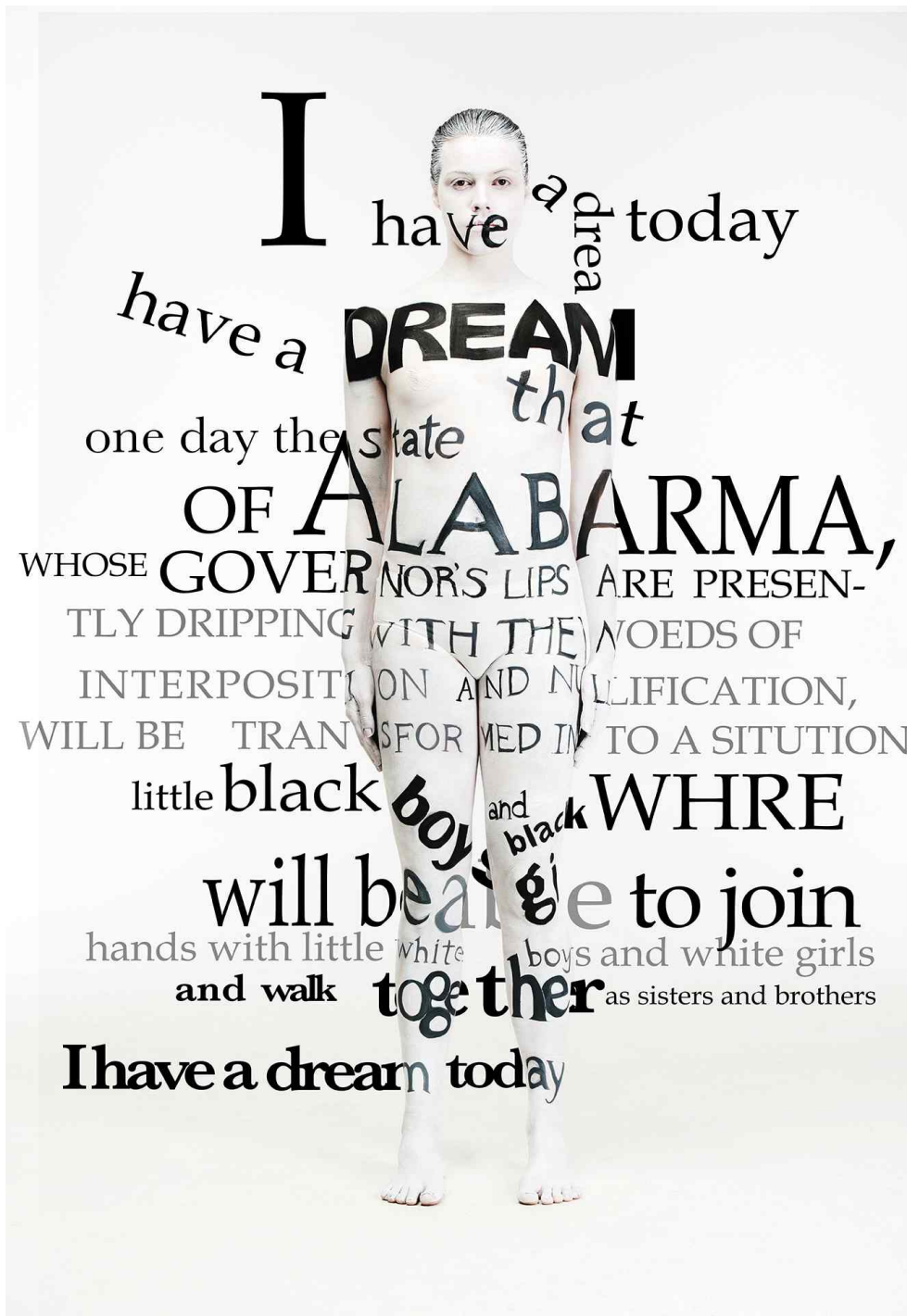
(2) 작품 VIII의 제작과정

- ① 포토샵을 활용하여 디자인 이미지를 제작한다.
- ② 이미지 작업한 파일을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3m 거리에서 모델의 몸을 향해 쏜다.
- ③ 그레이, 블랙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모델의 몸 굴곡에 맞춰 비치는 글자를 따라 스케치한다.
- ④ 그레이, 블랙 아쿠라 컬러를 사용하여 스케치한 글자를 채색한다.
- ⑤ 남은 여백의 부분을 화이트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채색한다.
- ⑥ 촬영한다.
- ⑦ 포토샵을 활용하여 제작한 레이어 배경과 바디페인팅한 몸이 일치하도록 재 구성한다.

작품 VIII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은 <표 15>와 같다.

<표 15> 작품 VIII의 디자인 이미지와 디자인 계획서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엔트로피 표현양식	효율성에 의한 유용성
디자인	마틴 루터킹의 'I have a dream today'의 연설문을 모티브로 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바디페인팅으로 디자인한다.
표현계획	바디페인팅 표현 후 포토샵을 이용하여 배경과 바디 페인팅의 글자를 일치되게 연결해 정보의 유용성을 표현한다.
재료	빔 프로젝트, 아쿠아 컬러
컬러	



<그림 58> 작품 VIII

9) 작품 IX

표현 특성: 이질성에 의한 비정형

(1) 작품설명

작품 IX(그림 59)는 엔트로피의 비평적 측면의 특성인 이질성에 의한 비정형으로 민화에서 표현된 정형적인 책가도를 모티브로 하였다.

민화의 전형적 특징인 역 원근법(다시각), 다채로운 색상, 평면성, 진채(짙게 채색) 등을 활용하여 표현한 후에 물을 뿌려서 형태를 무너트리는 방식을 통해 이질성에 의한 비정형을 표현하였으며, 정형적 요소 즉 신체와 책가도에 물이라는 외력을 가하여 의도적으로 형태를 파괴하였으며 이는 기존의미의 표현 형식을 해체하며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때 물은 일정한 모양이 없는 유동성의 띠고 ‘흐른다’라는 것은 물의 가장 큰 특징이며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이나 힘으로 변형된다.¹⁹⁴⁾

종래의 바디아트는 인간의 질서 추구에 대한 욕망을 해체하는 방식으로써 주로 색상이나 신체의 변형을 통하여 시도되었고 이를 토대로 신체에 표현된 정형적 페인팅에 이질성을 더함으로 무질서의 상태가 연속적으로 증대해 나가고, 중력에 의해 점차 극대화된다. 의도적으로 외부 요소를 추가하여 엔트로피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건축, 의상 등의 분야에서 자주 시도되었으나 본 연구자는 신체에 이를 가함으로써 이질성에 의한 비정형을 표현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무질서함의 정도는 극대화되어 엔트로피를 생성하였다. 이처럼 무질서 적이고 비정형적 표현의 범람 속에서 수용자는 비평적 시각으로서 유연하고 균형적 사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194) 염동철, 오태원(2015). 조르주 바타유의 비정형 개념을 통한 물의 디지털 이미지 정형화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16(1), pp.329-339.

(2) 작품 IX의 제작과정

① 모델의 몸에 맞추어 화이트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디자인 이미지의 스케치를 표현한다.

② 밝은 컬러인 핑크부터 화이트, 오렌지, 레드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그라데이션을 하며 채색한다.

③ 나뭇잎은 옐로우, 브라운, 그린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채색한다.

④ 화이트, 그레이, 블랙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화분을 채색한다.

⑤ 나무 상자는 옐로우, 브라운, 블랙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그라데이션 하며 음영감을 표현한다.

⑥ 퍼플, 그린, 오렌지, 블루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책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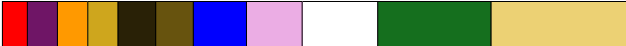
⑦ 브라운, 블랙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세세한 부분들의 세부묘사를 진행한다.

⑧ 옐로우, 내추럴 컬러, 브라운 아이섀도우를 브러쉬에 묻혀 바디페인팅을 한 가장자리를 따라 음영을 표현한다.

⑨ 사진 촬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물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그림의 정형적 형체가 무너져 흘러내려 가는 모습을 촬영한다.

작품 IX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은 <표 16>과 같다.

<표 16> 작품 IX의 디자인 이미지와 디자인 계획서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엔트로피 표현양식	이질성에 의한 비정형
디자인	책가도 민화를 모티브로 특징을 응용하여 정형적인 바디페인팅을 디자인한다.
표현계획	책가도를 모티브로 바디페인팅 표현 후 물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완성된 페인팅에 예측 불가능한 이질성에 의한 비정형을 표현한다.
재료	물 스프레이, 아쿠아컬러
컬러	



<그림 59> 작품 IX

10) 작품 X

표현 특성: 표현에 의한 비정형

(1) 작품설명

<그림 60>의 작품 X에서는 엔트로피의 비평적 측면의 특성인 표현에 의한 비정형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인 라파엘로 산치오(Raffaello Sanzio, 1483 - 1520)의 회화는 과장되고 왜곡되어 비정상적인 형태의 인체 묘사와 원색적이고 역동적인 기괴한 색상, 비현실적인 빛의 묘사 등과 같이 독창적이고 전형적인 그로테스크한 특징을¹⁹⁵⁾ 구조로 신체에 배치하여 표현하였다.

비정형은 양식이나 예술적 실행의 패러다임으로 인해 생성되는 종속된 의미론과 주제론으로부터 사고를 해방하기도 한다. 이에 생산자 관점에서 형식적 와해 및 해체는 작품의 생성에서뿐만 아니라 해석 측면에 있어서 또한 난해함을 유발함으로써 전형적인 엔트로피 현상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이처럼 형식과 주제에 변형을 가하여 유동적인 양상으로 표출되며 기존의 사고질서와 경계를 파괴, 전복해버리는 시도를 통해 엔트로피는 극대화되었다. 그 결과 난해함으로 관람자를 혼란에 빠트려 스스로가 지각적 체험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도록 하는 역설적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엔트로피는 가속화되며 극대화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 바디아트를 접하는 수용자들은 작품 접근에 있어서 유기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비평적 접근의 필요성을 비정형의 특성을 통해 알 수 있다.

195) 박성영, 김정미(2014). 현대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에 관한 연구: 2000년 이후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 16(1), pp.12-25.

(2) 작품 X의 제작과정

- ① 디자인 이미지에 맞는 포즈를 모델에게 취하게 한다.
 - ② 포즈를 취한 모델의 몸에 맞추어 화이트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디자인 이미지 스케치를 표현한다.
 - ③ 화이트, 옐로우, 레드의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스킨톤으로 조색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채색에 들어가는 피부색상을 표현한다.
 - ④ 레드, 블루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옷을 표현한 부분을 채색한다.
 - ⑤ 화이트, 브라운, 블랙의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음영을 넣으면서 세부 묘사를 진행한다.
 - ⑥ 블랙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남은 부분의 배경을 채색한다.
 - ⑦ 모델은 포즈를 잡고 전신과 디테일 컷 사진촬영을 진행한다.
 - ⑧ 포토샵을 활용하여 뒷 배경에 디테일 컷을 촬영한 부분들의 투명도를 달리하여 전신 컷과 합성하여 표현에 의한 비정형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
- 작품 X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은 <표 17>과 같다.

<표 17> 작품 X의 디자인 이미지와 디자인 계획서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엔트로피 표현양식	표현에 의한 비정형
디자인	라파엘로 산치오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왜곡과 변형을 넣어 비정형적인 바디페인팅을 디자인한다.
표현계획	전반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불규칙적이고 왜곡되어 보이도록 바디페인팅을 표현한다.
재료	아쿠아컬러
컬러	



<그림 60> 작품 X

11) 작품 XI

표현 특성: 구조에 의한 질서와 무질서

(1) 작품설명

<그림 61>의 작품 XI은 엔트로피의 비평적 측면의 특성인 구조에 의한 질서 무질서로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 우연의 효과를 표현한 마블링 기법을 모티브로 하였다.

마블링 기법은 색이 선명하게 구분되어 표현되고, 표현할 때마다 다른 모양과 구성이 생성된다. 하지만 추상적이고 우연의 형태로만 표현할 뿐만 아니라, 에브루(Ebru) 즉, 터키쉬 마블링(Turkish Marbling)과 같이 마블링 기법 바탕에 추가로 정교하고 세밀하게 의도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에 의한 질서와 무질서가 공존하고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물을 사용한 마블링 기법의 표현은 일정한 형태를 구축하지 않으며, 자유로움과 무한한 연속성을 지니며 질서와 무질서의 사이를 유동적으로 움직이며 빈 공간을 채운다.¹⁹⁶⁾ 작품에 나타냈듯이 설명되지 않은 무 질서적이고 불확정적인 요소들에 본 연구자의 의도적 질서 창조의 시도로 인해 고-엔트로피에서 저-엔트로피로의 본능적 욕구가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질서와 무질서의 쌍방향적인 이동으로 인해 균형이 생성되고 예술작품의 의미가 증폭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무질서 속에서 질서가 나타나며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긴장감이 나타나며 화합을 통하여 부분과 요소 간의 전체적인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진다.



196) 염동철, 오태원(2015). 조르주 바타유의 비정형 개념을 통한 물의 디지털 이미지 정형화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16(1), pp.329-339.

(2) 작품 XI의 제작과정

- ① 모델의 몸 전신에 흰색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스케치한다.
- ② 스카이 블루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넓은 면을 채색한다.
- ③ 화이트, 블루, 퍼플, 다크블루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마블의 느낌을 표현한다.
- ④ 가로 200cm, 세로 160cm의 폴에 물을 3/1 정도 받아서 준비한다.
- ⑤ 폴에 물을 받아서 준비한 후 바디페인팅이 된 모델이 물속으로 들어간다.
- ⑥ 작품과 비슷한 색상의 배스 밤을 풀어서 거품과 컬러를 표현한다.
- ⑦ 물에 비슷한 아쿠아 컬러 물감을 풀어가면서 마블이 표현되도록 사진 촬영을 한다.

작품 XI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은 <표 18>과 같다.

<표 18> 작품 XI의 디자인 이미지와 디자인 계획서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엔트로피 표현양식	구조에 의한 질서와 무질서
디자인	Marble기법을 모티브로하여 질서와 무질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바디페인팅을 디자인한다.
표현계획	바디페인팅 표현 후 물속에 들어가 움직임의 파동에 따른 무질서와 이를 통한 균형에서 오는 질서의 구조적인 상관관계를 표현한다.
재료	물, 아쿠아컬러
컬러	



<그림 61> 작품 XI

12) 작품 XII

표현 특성: 역설에 의한 질서와 무질서

(1) 작품설명

작품 XII(그림 62)은 엔트로피의 비평적 측면의 특성인 역설에 의한 질서 무질서로 프랑스의 고딕 양식의 성당건축물인 ‘생트샤펠(Sainte-Chapelle)’을 모티브로 하였다.

이 건축물은 채색된 반투명 유리를 기하학적이거나 장식적인 형태로 잘라 붙여 만든 창유리로 빛을 받으면 유리에 사용된形形色색의 색상이 투영되어 환상적인 분위기로 표현되는 스테인드글라스로 꾸며져 있다. 스테인드글라스와 같은 화려함은 질서로, 단순함은 무질서로의 충돌을 일으키면서 질서와 무질서의 대비를 더욱더 강하게 여기게 된다.¹⁹⁷⁾ 이를 바디아트에 접목해 일반적인 질서 과정에서의 빛의 반사가 아닌 흔들리는 모습을 촬영한 빛을 받은 그림자의 잔상을 작품의 불확정 요소로 이용하여 고의적인 무질서를 넣음으로써 무질서의 극대화를 통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설에 의한 질서와 무질서로 표현할 수 있으며 무질서를 통한 질서가 추구될 때 예술의 형식 창조 충돌이 일어나며 현대예술의 혼란스럽고 가속화되어가는 현상을 엔트로피의 비평적 관점 중 질서와 무질서의 특성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197) 김성률, 김준, 유재우(2008).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주 이론을 통해 본 르 꼬르뷔제 건축과 이론, *대한건축학회*, 24(11), pp.191-198.

(2) 작품 XIII의 제작과정

① 모델의 몸 전신에 화이트 펜슬과 30cm 자를 사용하여 삼각형이 표현 되도록 스케치한다.

② 화이트, 옐로우, 오렌지, 레드, 그린, 퍼플, 블루, 그레이, 블랙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여 스케치에 맞춰 채색한다.

③ 스튜디오 호리존의 바닥과 배경에 홀로그램 천을 깔아준다.



④ 카메라 셔터를 1/15로 설정하고 모델과 포토그래퍼가 움직이면서 촬영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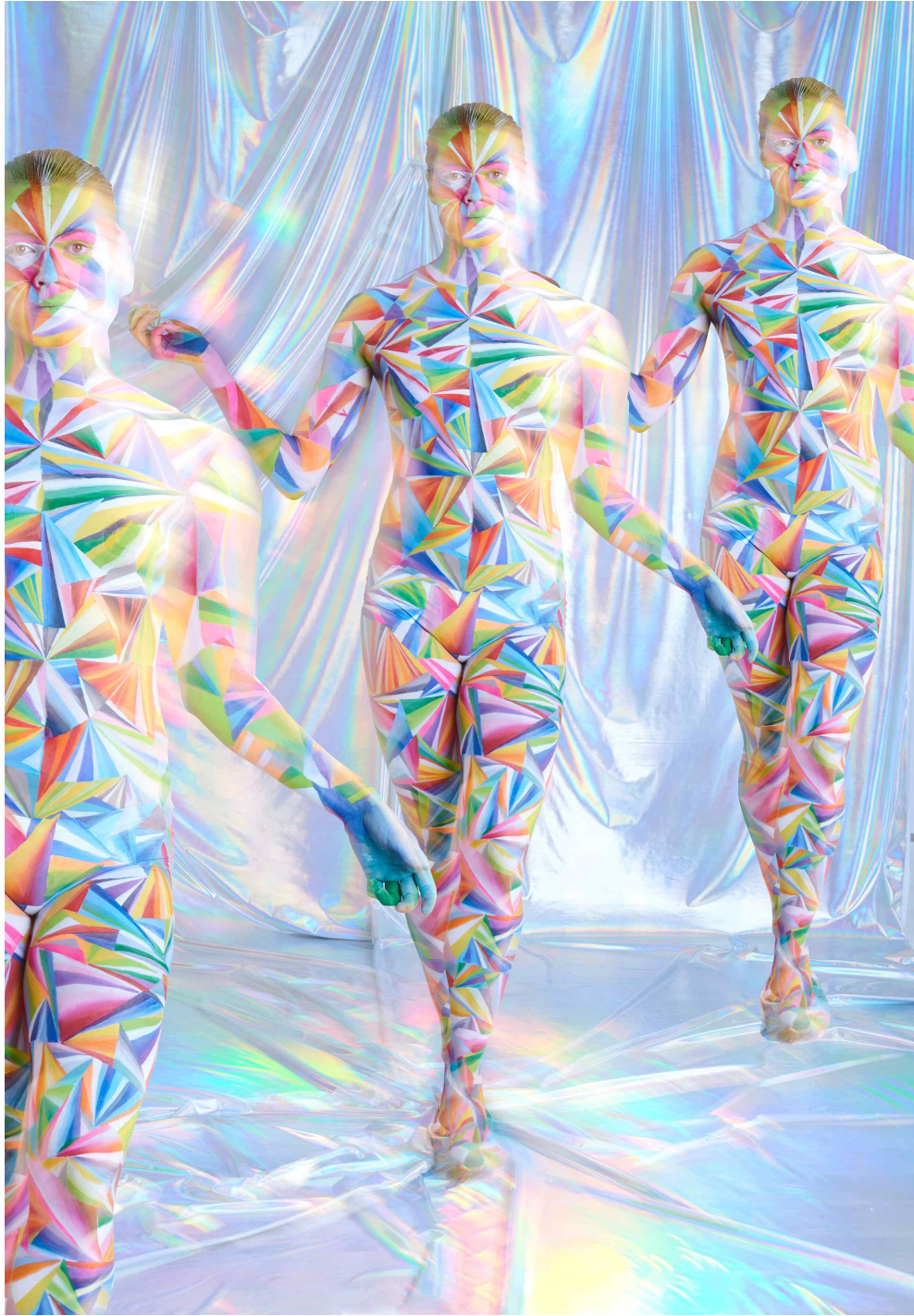
⑤ 흔들린 상태의 사진으로 찍히게 되며 합성할 부분을 생각하여 비슷한 포즈로 촬영을 진행한다.

⑥ 포토샵을 활용하여 걸어 나오는 듯한 이미지로 재구성한다.

작품 XIII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은 <표 19>와 같다.

<표 19> 작품 XIII의 디자인 이미지와 디자인 계획서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엔트로피 표현양식	역설에 의한 질서와 무질서
디자인	Sainte-Chapelle의 건축물의 스테인드글라스의 빛의 형상이 표현될 수 있도록 바디페인팅을 디자인한다.
표현계획	바디페인팅 표현 후 이중노출로 촬영하여 빛이 반사되어 무질서하게 표현한다.
재료	아쿠아컬러
컬러	



<그림 62> 작품 XII

IV. 결 론

본 연구는 무질서의 정도를 나타내는 열역학 이론의 엔트로피 특성을 통하여 회화, 조각, 건축 등의 현대예술에서 나타나는 엔트로피의 현상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을 통해 도출한 엔트로피의 관점을 특성별로 분류한 후, 바디아트 작품에 적용·제작하였다.

엔트로피는 실제로 정신과 물질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소비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므로 현대예술의 복잡화 경향 속에서 정신적 기능의 효율성과 동질화를 거부한 배설적 소비 형태에 관한 관심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예술은 결코 불변인 부동의 것이 아니라 시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역동적이고, 유동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속화되고, 물질적인 혼란함이 확장되고 파생되는 현대예술에서 엔트로피의 무질서 정도를 현재까지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비평적으로 접근하여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비평 방식을 통해 현대예술의 다양한 분야 중 하나인 바디아트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다.

바디아트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엔트로피는 물리학 관점에서의 무질서도(Disorder)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잉여적 낭비와도 결부될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해석과 태도가 요구된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엔트로피를 바디아트를 대할 때 요구되는 하나의 비평적 작동 기제로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자는 생산자 관점으로부터 예술적 측면의 다양성, 정보적 측면의 복잡성, 비평적 측면의 비정형으로 분류하였고, 수용자 관점으로부터 예술적 측면의 다의성, 정보적 측면의 유용성, 비평적 측면의 질서·무질서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각 특성상 작품 2점씩을 제작 및 연구하였다.

작품 I ~XIII는 도출해낸 엔트로피의 특성을 바탕으로 팝아트의 작가 로이 리히텐슈타인과 아르누보의 문양, 살바도르 달리의 ‘바르셀로나의 마네킹’, 정크아트, 칸딘스키의 ‘Composition VII’와 초현실주의의 작가 르네 마그리트, 휴머노이드, 연설문을 응용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민화 ‘책가도’, 라파엘로 산치노, 마블기법, 생트샤펠 건축물의 스테인드 글라스을 모티브로 하여 바디아트의 재료, 색감, 질감 등 간의 혼합을 통해 엔트로피의 특성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작품 I 은 형태에 의한 다양성의 엔트로피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카툰을 모티브로 하였다. 압축 스티로폼 판넬을 사용하여 신체와 연결해 표현함으로써 공간의 한계 초월과 예술 표현수단의 확장을 바디아트에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작품 II는 와해에 의한 다양성의 엔트로피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아르누보 문양을 모티브로 사용하였다. 자연스러운 융화와 문양을 거울을 통한 반사를 활용하여 예술의 개방성을 바디아트에 표현하였다.

작품 III은 자율성에 의한 다의성의 엔트로피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바르셀로나의 마네킹을 모티브로 포즈, 색감, 실루엣, 마네킹 등을 활용하여 신체를 둘러싼 다양한 의미와 관점은 수용하는 과정에서 또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을 바디아트에 적용하여 만들었다.

작품 IV는 상대성에 의한 다의성의 엔트로피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정크아트를 모티브로 하여 수용자의 환경에 다른 작품수용의 의미를 바디아트에 적용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V는 노이즈에 의한 복잡성의 엔트로피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칸딘스키를 모티브로 하여 전형적인 복잡성을 표현하였다. 시각적 복잡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조명, 색채, 구조 등을 활용하여 강렬한 인상을 나타내 바디아트에 제작하였다.

작품 VI은 능동성에 의한 복잡성의 엔트로피 특성으로 마그리트의 그림을 차용하여 형태적 측면에서 데페이즈망과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작품이다. 이는 흥미와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작가의 의도를 바디아트에 적용하여 만들었다.

작품 VII은 리던던시에 의한 유용성의 엔트로피 특성으로 휴머노이드의 모습을 모티브로 하여, 작품을 포장 재질에 넣음으로써 발생한 외부 노이즈를 통해 신체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를 잠재적 정보로 바디아트에 적용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VIII은 효율성에 의한 유용성의 엔트로피 특징으로 신체 선의 굴곡과 문자의 크기, 의미, 형태를 차별화하여, 정보적 관점에서의 노이즈가 생성되도록 바디아트로 제작하였다.

작품 IX는 이질성에 의한 비정형의 엔트로피 특성으로 민화를 모티브로 하여 신체에 정형적 책가도를 표현하였다. 더 나아가 전형적인 신체와 책가도를 이질성의 물로 파괴하여 비정형적 무질서함을 극대화되게 바디아트에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작품 X은 표현에 의한 비정형의 엔트로피 특성으로 라파엘로의 그림을 모티브로 하여 형식적 와해 및 해체는 전형적 엔트로피 현상을 극대화하였고, 기존의 사고질서와 경계를 파괴하고, 전복하는 시도를 바디아트에 적용하여 만들었다.

작품 XI은 구조에 의한 질서와 무질서의 엔트로피 특성으로 물과 신체에 표현된 마블링 기법을 통해 질서·무질서의 쌍방향적 이동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정교하고 세밀한 표현으로 인해 생성된 불확정적이고, 무질서 속에서 질서와 균형을 바디아트에 표현하였다.

작품 XIII은 역설에 의한 질서와 무질서의 엔트로피 특성으로 스테인드글라스를 모티브로 하여 빛의 반사를 더 흔들리게 표현함으로써 무질서의 극대

와를 통해 질서를 균형성을 바디아트에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엔트로피의 특성을 활용하여 12점의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바디아트 또한 다른 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질서, 무질서, 다양성, 다의성, 비정형, 유용성, 복잡성의 엔트로피 특성이 작품에 융화되어 생산자와 수용자의 측면에서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으며 바디아트의 물질화, 시각화의 예술 형태를 통해 엔트로피의 특성을 작품에 표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현재까지 현대예술과 엔트로피를 관련하여 다양한 선행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엔트로피가 어떠한 특성으로 분류되는지는 고찰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다른 분야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진 엔트로피와 바디아트의 관계성을 이 연구로만 정립하기에는 인문학적, 미학적 연구가 미력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자들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 나아가, 후속 연구에는 엔트로피 특성을 더욱 다각적 측면으로 바디아트 작품과 연계하여 응용한 종합적인 사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바디아트의 예술적 가치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가와노 히로시 저, 진중권 역(2008). 「컴퓨터 예술의 탄생」, 서울: 휴머니스트.
- 강덕봉(2018).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인체 조각에 나타나는 비정형 신체 이미지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19(5), pp.1-16.
- 강덕봉(2020). “현대 조각에 나타나는 신체 이미지의 비정형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형구(2010). “아트퍼니처와 오브제의 상관관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동연(2011). 전 지구화 시대의 중국 현대미술과 비평: 우홍의 ‘실험적인 예술’ vs 가오밍루의 ‘트랜스 내셔널 아방가르드’, *한국미술사학회* 27, pp.69-99
- 고충환(2006). 「무서운 깊이와 아름다운 표면」, 서울: 중앙M&B(랜덤하우스중앙).
- 공현진, 양태근(2019). 헤테로피아적 장소연구 -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중심으로-, *한국기초조형학회*, 20(2). pp.1-12.
- 곽영직(2005). 「클라우지우스가 들려주는 엔트로피 이야기」, 서울: (주)자음과모음.
- 권미원(2013). 「장소 특정적 미술」, 서울:현실문화연구.
- 권테일(2006). 들뢰즈의 ‘재현’과 ‘표현’개념으로 본 현대예술의 다양성 문제 - 현대회화와 건축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40,

pp.283-307.

- 김광숙(2001). 바디아트의 조형적인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1), pp.11-23
- 김근정, 박성중, 이희정(2019). 인지된 사용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이 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품학회*, 37(3), pp.1-9.
- 김금란(2010). “오브제바디아트의 표현기법에 따른 심리적 반응 연구”,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무경(2013). “복잡성 패러다임’으로의 :초대 에드가 모랭, 「복잡성 사고입문」 (1990)”, *한국문화사학회지*, 14, pp.263-281.
- 김상철(2019). “로버트 스미드슨의 장소특정적 예술에 나타난 엔트로피 성향 -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의 이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률, 김준, 유재우(2008). 에이젠슈테인의 몽타주 이론을 통해 본 르 꼬르뷔제 건축과 이론, *대한건축학회*, 24(11), pp.191-198.
- 김성은(2015). “경계와 관계의 엔트로피: 소피 토이버 아르프와 한나 회히의 다다”, *한국미학예술학회*, 45, pp.145-178.
- 김송휘(2019). “혼돈에서 질서로: 현대 금속조형디자인에서의 엔트로피 융합 현상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아(2015). “바디아트퍼포먼스와 메를로퐁티 몸 현상학의 상호작용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운찬(2016). 「움베르토 에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주).
- 김정곤(2002). “수용미학과 비교문학 수용 문제를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학회*, 6, pp.53-67.
- 김정현(2014). “현대예술에서 엔트로피의 문제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 김정현(2015). 로버트 스미슨의 울트라모던 시공간 개념과 동시대적 의의,
현대미술사연구, 38, pp.7-32.
- 김철규, 김정재(2003). “현대건축의 비정형 건축형태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4), pp.101-108.
- 김혜균(2019). “뱅크시 그래피티를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사단법인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17(3), pp.31-40.
- 남상식 외 5명(2017). 「경계를 넘는 공연예술 - 상호매체성과 새로운 지각
의 파노라마」, 경기도: 태학사.
- 남운찬(2016). 「움베르토 에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주).
- 노버트 린튼 저, 윤난지 역(2011). 「20세기 미술」, 서울 : 도서출판 애경.
- 뉴욕현대미술관, 열화당 공동발행(2004). 「모마 하이라이트 350점의 뉴욕
현대미술관 컬렉션」, 경기도:열화당.
- 테브라J.드위트, 랄프M.라만, M.캐스린 실즈 저, 조주연, 남선우, 성지은, 김
영범 역(2014). 「게이트웨이 미술사」, 경기도:(주) 이봄.
- 로베르 에스카르피 저, 김광현 역(1995).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서울: 민
음사.
- 로이 에스콧 저, 이원곤 역(2002). 「테크노에틱 아트 새로운 의식, 리얼리
티, 예술의 창발을 향하여」,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루돌프 아른하임 저, 오용록 역(2017). 「엔트로피와 예술」, 서울: 전파과학사
- 마이클윌슨, 임산, 조주현 역(2003). 「한 권으로 읽는 현대미술」, 서울:마로
니에북스.
- 문정혜, 김현주(2014). “인체 실루엣 기반 프로젝션 매핑 작품 제작 연구“,
한국영상학회, 12(2), pp.85-99.
- 민수영, 최희자(2010). “바디페인팅에 응용한 표현주의 회화기법 연구”, 기초

조형학회, 11(6), pp.231~237.

박미정(2020). “현대 아트메이크업에 나타난 페이스페인팅의 시뮬라시옹 표현 기법과 페인팅의 재료특성 연구”,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성영, 김정미(2014). 현대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에 관한 연구: 2000년 이후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 16(1), pp.12-25.

박소정(2019). “고대 이집트의 전통문양을 응용한 바디아트디자인 연구”,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60, pp.101-110.

박은주(1996). “정보예술론의 기초와 미학: 정보이론의 미학적 한계”, *한국미학예술학회*, 6, pp.167-186.

박일호(2001). 미술비평의 기능과 오늘날의 미술비평, *현대미술학회*. (5). pp.291-320

박이문(2010). 「예술과 생태」. 서울: 미다스북스. p.44.

박이문(2016). 「예술철학」. 서울: 미다스북스.

박정신(2007). “클립트의 회화 장식을 응용한 바디아트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8(1), pp.39-58.

박찬국(1995). 「현대미술의 기초개념」, 서울: 재원.

박천신(2008). 「디지털 아트 디지털 페인팅」, 서울: (주)한언..

배경진, 이상현, 전한중(2004). “비정형건축물 구현을 위한 디지털 디자인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9(1), pp.221-224.

살릿 본햄 카너, 데이비드 하지 저, 김과우, 심희섭, 김호정 역(2014). 「컨템퍼러리 아트 북」, 서울 : 미술문화.

신단주(2016). 신단주의 바디아트와 캐릭터 메이크업, 서울:클라운출판사.

신석규(2009). “아이코노그래피 차원의 미니멀리즘 경향과 해체적 실험성 표현 유형 연구”,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5, pp.33-50.

- 신원선, 권태순(2014). *아트 메이크업 발상*. 서울 : 훈민사.
- 신종천, 윤준성(2018). “정보 생성 예술로서의 바이오아트: 엔트로피와 노이즈, 그리고 생물학적 변이의 예술적 활용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회 연구*, 19(1), pp.305-318.
- 심길재, 이동연(2007). “물려받는 것 (傳承)’에 바탕을 둔 현대건축에 관한 연구: 지엔니 바티모 (Gianni Vattimo) 의 해석학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23(7), pp.137-144.
- 심상용(2007). 현대미술에 있어 트렌드화 현상과 다양성의 위기에 관하여, *현대미술사학회*, 21(1). pp.181-223.
- 안성준, 정재윤(2011). “광고에 나타난 트롱프뢰유 기법을 활용한 바디페인팅 연구”, *기초조형학회연구*, 12(2), pp.283~293.
- 안신영(2019). “시각 커뮤니케이션에서 엔트로피와 정보의 변용 가능성”,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염동철, 오탈원(2015). 조르주 바타유의 비정형 개념을 통한 물의 디지털 이미지 정형화 연구, *학국기초조형학회*, 16(1), pp.329-339.
- 에드가 모랭, 신지은 역(2012). 「복잡성 사고 입문」. 에코리브르.
- 오광수(1975). 「전환기 미술」, 서울: 열화당, p.116.
- 오병근, 홍석일(2005). “정보디자인의 잉여성적용 연구”, *디자인학연구*, 18(1), pp.49-58.
- 월 곰퍼츠 저, 김세진 역(2014). 「발칙한 현대미술사」, 서울:(주)알에이치코리아.
- 유현주(2011). 팝아트 이후 현대미술의 소통 가능성 : 아도르노와 보드리야르의 시각에서 팝아트와 미니멀리즘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중심으로. *현대미술학회*. 15. pp.175-210
- 윤난지(2012). 「현대조각 읽기」, 서울: 한길아트. pp.362-363.

- 윤득근, 김개천(2015). 현대 건축 공간에서 나타난 미장아빔적 표현 특성 - 장누벨의 건축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 pp.315-325.
- 윤영인(2012). “엔트로피 법칙의 시각표현 연구 -디지털미디어 도구와 기초디자인 요소 및 원리를 바탕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자정(2011). 현대미술의 매체환경 대응과 그 의미, *현대미술학회*. 15(2). pp.175-205
- 이경은(2007). “메이크업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에 관한 연구: 2001년 ~ 2005년 파리 컬렉션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광호·윤성원(2018). “시각적 복잡성 연구 고찰 I -문헌고찰을 통한 문제점 도출-”, *한국기초조형학회*, 19(2), pp.343-356.
- 이봉순(2008). 포스트모던시대 조형예술의 장소성과 환경, *한국조형예술학회*. 13. pp.30-47.
- 이연희(2009). “화장의 상징적 기능과 페이스페인팅”, *한국의류학회지*, 32(1), pp.1608-1618.
- 이원곤(2004). 「디지털 영상과 가상공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유나, 김경희(2011). “시물라시옹 개념에 의한 바디아트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화장품미용학회*, 1(1), pp.59-71.
- 이유림, 소황옥(2019). 의미 네트워크를 활용한 바디아트 트렌드 분석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20(2). pp.133-150
- 이재운(2016). “증강현실 퍼포먼스 디지털 공연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은(2008). “로버트 스미슨(R. Smithson)의 “개간 프로젝트(Reclamation Project)”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은(2009). 엔트로피와 변증법의 관계 나선형 방과제를 중심으로. *현대미*

술사연구. 26. pp.81-105.

이재인(2015). “로버트 스미슨의 엔트로피와 현대건축 비교 연구 - 초기에 해체주의 성향을 보였던 현대 건축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50, pp.121-129.

이정원, 조규화(2008). 아르누보 이미지의 드레스 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12(2). pp.42-58.

이준환, 김동환, 위지은, 장수연, 하세용, 전수진(2014).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통한 텍스트 기반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감정 전달 연구,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17(1), pp.77-93.

이호규(2010). “주체형성 장치로서의 가상공간과 커뮤니케이션 모델: 르페브르와 푸코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7(2), pp.173-213.

이현주(2009). 팝아트와 동 시대 대중문화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 5(2), pp.183-192.

장진미, 우나리아(2010). “환타지 메이크업에 나타난 미래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1(4), pp.1-15.

책 호키키안, 전대호·전광수 역(2004). “무질서의 과학 - 기술문명에 던지는 엔트로피의 경고”, 서울: 철학과현실사, pp.111-117.

전영백(2016). 「코끼리의 방」, 경기도: 두성북스.

전영백(2019). 「현대미술의 결정적 순간들: 전시가 이즘ism을 만든다」, 경기: 한길사.

전혜숙(2016). 「포스트휴먼 시대의 미술」. 경기도:아카넷.

정숙영(2007). “현대회화의 비정형이론과 형상전이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승희(2010). “2000년대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 디자인의 이국적 이미지

-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제레미 레프킨 저, 이창희 역(2015). 「엔트로피」, 서울: 세종연구원.
- 조성숙(2015). 초현실주의 회화에 나타난 은유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96.
- 조아라(2019). “비가시적 정감의 조각적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정옥(2013).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의 회화에서 감정과 이성, *한국예술연구*, 8, pp.183-220.
- 진중권(2012). 「미디어아트-예술의 최전선」, 서울: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 진휘연(2010). “바타이유의 비정형(formless): 비형상에 대한 현대미술이론의 고찰과 한계”, *미술사학연구회*, 34, pp.103-123.
- 질케 폰 베르스보르트-발라베, 이수영 역(2008). 이우환 타자와의 만남. 서울: 도서출판 학교재.
- 최정화(2007). 르네 마그리트 회화의 영향을 받은 포스터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16, pp.393-404.
- 채정우(2004). “작품 생산과 수용의 엔트로피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회*, 5(3), pp.35-45.
- 최경옥(2009).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 아트 연구: 바디페인팅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인규(2014). “도시디자인에서 역사·문화 생태적 맥락의 수용체계 및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지은, 정연자(2019). “피카소의 큐비즘 표현기법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20(1), pp.289-300.
- 캐롤 스트릭랜드 저, 김호경 역(2013). 「클릭, 서양미술사 동굴벽화에서 개념미술까지」, 서울: 예경.

- 켈리 그로비에 저, 윤승희 역(2017). 「세계 100대 작품으로 만나는 현대미술 강의」, 경기도: ㈜도서출판 아름다운사람들. p.173.
- 크리스토퍼 마스터스 저, 유안나 역(2015). 「위대한 현대미술가들 A to Z」, 서울: 시그마북스.
- 태동숙(2011). “투명성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프랑크 술츠, 귄터 레겔, 요하네스 키르헨만, 하랄트 쿤데 저, 황종민 역(2011). 현대미술 보이지않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 미술과문화.
- 한명숙(2015). “바디아트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지훈(2012). 「네트로피 2.0」, 서울: 행복에너지.
- 허버트 리드 저, 임산 역(2006). 「예술의 의미」, 서울: 에코리브르. p.32.
- 헬 포스터 저, 김정혜 역(2014). 「컴플렉스: 미술을 소비하는 현대 건축의 스펙터클」, 서울: 현실문화.
- 헬 포스터 저, 이영욱 외2 역(2003). 「실재의 귀환」,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 허나영(2008). “시각예술의 형식분석에 있어서 엔트로피의 역할”, 한국조형예술학회, 14, pp.103-122.
- 홍임실(2010). 20세기 후반 미국미술에 나타난 건축적 조각 연구: 로버트 스미슨과 낸시 홀트를 중심으로, 미술사문화비평학회, 1, pp.121-141.

국외 문헌

- Claude, E. Shannon, Warren, Weaver(1949).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Frank, Mc Carty(1973). "Entropy as Value-Theory in the Art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32(2), pp.268-271
- Holt, Nancy(1977). "Sun Tunnels.". *Artforum*, 15(8), pp. 32-37.
- Henry Rasmusen and Art Grant(1967). 「Sculpture from Junk」, New York: Reinhold Publishing Corporation, p.7.
- Jonathan, Fineberg, *Art since 1940: Strategies of Being*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2000).
- K, Ziarek (2007). Review of Gary Shapiro, *Archaeologies of Vision: Foucault and Nietzsche on Seeing and Saying*, *Bryn Mawr Review of Comparative Literature*, 6(1), pp.1-14.
- Michel Mendès France, Alain Hénaut, Jacques Mandelbrojt(1994). "Art, Therefore Entropy", *The MIT Press*. 27(3)
- Rudolf, Arnheim(1971). 「Entropy and art: An essay on disorder and ord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udolf, Arnheim(1996). "From Chaos to Wholenes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4(2), pp.117-120.
- Steven, Cody(2013). Rubens and the "Smell Of Stone": The Translation of the Antique and the Emulation of Michelangelo, *Arion: A Journal of Humanities and the Classics*, 20(3), pp. 39-55.
- Vladimir, Petrov(2002). "Entropy and Stability in Painting: An information Approach to the Mechanisms of artistic Creativity.", *The MIT press*, 35(2), pp.197.
- Warren, Weaver(1953). "Recent contributions to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ETC: A Review of General Semantics", *Institute of General Semantics*, 10(4), pp.276-277.

Yve-Alain Bois & Rosalind E. Krauss(1996). 「Formless: A User's Guide」, *The MIT Press*, 78, pp.38-88.

<인터넷 자료>

<https://holtsmithsonfoundation.org/spiral-jetty> (검색일자: 2019.12.22.)

<https://holtsmithsonfoundation.org/asphalt-rundown>

(검색일자: 2020.02.12.)

<https://holtsmithsonfoundation.org/hydras-head> (검색일자: 2020.02.25.)

ABSTRACT

Body art Study Work Production on Entropy

Kim, Su - bin

Departmen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Entropy is a unit of the degree of disorder, and the amount of entropy is characterized by the thermodynamic theory, in which it is said to increase irreversibly in all the phenomena of material-energy, from micro-thermal motion to the human environment, and even up to the energy of the Earth.

Today, the impact of entropy with these characteristics is being strengthened as it is applied and expanded throughout various fields, including society, culture, and art.

Thus, this study used the entropy as a medium so that the trends of modern arts, such as painting, sculpture, and architecture, which are accompanied by chaos, disorder, and order the inside & outside of it, can be approached from a diverse and balanced perspective through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order and disorder, and the characteristics of entropy derived in this way were classified by artistic, informative, and critical aspects to produce the works of body art by the application.

The characteristics of entropy derived from the cases of modern arts of painting, sculpture, and architecture by applying the phenomena of entropy to three aspects classified from the perspectives of producers and consumers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diversification of forms and collapses appeared in the cases of modern arts of painting, sculpture, and architecture, this study classified them into the diversity by form and the diversity by collapse from the producer's point of view in the artistic aspects.

Second, the polysemous characteristics in the artistic aspect are the entropic characteristics being able to occu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umer who interprets the work, and this study classified it into the autonomous polysemy and the relative polysemy.

Third, this study classified the chaotic complexity expressed by the producer into the noisy complexity and the active complexity to deduce the characteristics as the entropic ones hav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ducer in the informative aspect.

Fourth, this study classified the intention of the producer or the work accepted by the consumer in the informative aspect into the potential informative usefulness and the efficient usefulness because of the presence of usefulness which can be delivered potentially and efficiently.

Fifth, the irregularity shows the consumer a possibility of new visual and perceptual experiences through changes in the form and semantic system of the work performed by the producer in the critical aspect, and this study classified the method of irregularity into the heterogeneous irregularity and the expressive irregularity.

Sixth, the consumer needs the structural and balanced views through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lements and the whole in the high & low flow of entropy so that it can be classified into the structural order and the structural disorder.

Also, this study classified into the paradoxical order and the paradoxical disorder in consideration that it needs to show the order and balance paradoxically through the method of disorder maximizatio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arts, this study tried to look at body art, which is a part of modern arts, by classifying the perspectives of entropy in terms of the producer and the consumer.

Through this process, body art is also developing based on interactive communications, showing the unpredictability and the uncertainty from the traditional body decorations to the current advanced forms. In this process, producers and consumers are supposed to see the phenomenon of high entropy.

However, there could be the internal order in terms of entropy behind these external appearances of body art being splendid and complex, and, like various fields of modern arts, it can rediscover the perspectives and trends while looking at each other in a balanced way through the fact that such high or low entropy could be flexible in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depending on various environments, the times, and perspectives, etc. Based on this study, it is hoped that body art can be rediscovered, and also that follow-up studies of it can be carried out based on various fields of modern arts making 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entropy.